

# IL princip<sup>e</sup> 군주론

마키아벨리 저 | 임명방 역 “어느 역사적 사실은 그 사실이 이루어진 시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만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랑케의 말을 기억하라. 이탈리아에서 역사를 전공한 역사의 당부다. 『군주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세 침략에 무방비 상태였고, 내부 독재 정치로 각박했던 이탈리아 반도의 15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도덕과 윤리가 배제된 통치기술은 당대를 살아낸 지식인의 처절한 구국책이 아니었을까.



OLJE CLASSICS  
10

# IL principle 군주론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제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사단  
법인  
**olje**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군주론》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출판 디자인 전문기업인 캠퍼스헤럴드는 편집디자인을 도맡았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 해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폐낼 수 있도록 혀락해주신 임명방 님과 격려해주신 임승휘 · 안정민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① 02)720-8278 ② www.olje.or.kr ③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 옮긴이의 말

역사가 랑케는 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어, 독자가 처하고 있는 시대의 감각에서가 아니라 그 역사 현실이 발생한 그 시대의 감각, 즉 그 시대성 · 정신상황 · 배경을 토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역사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해당되는 중요한 암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흔히 마키아벨리는 약육강식 · 권모술수 · 일인독재를 주장한 부정적인 면으로 접하기 쉬운데, 이런 위험성은 우리가 랑케의 말 그대로 마케아벨리가 생존했던 그 시대, 그 환경에 들어가 그를 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살고 있던 그 시대야말로 이탈리아, 특히 그가 태어난 피렌체는 문자 그대로 전국시대(戰國時代)였고, 특히 르네상스 문화의 표면적 영광의 후면엔 강대국의 침입, 자체의 내분 등 이탈리아는 정치적 암흑기를 맞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수난 속에서 마키아벨리의 뇌리에 남은 유일한 이상은 로마제국적인 유럽 질서의 회복이었으며, 이 최대선(最大善)을 위하여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바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즉, 그는 법에 의한 유럽 사회의 회복과 이를 위해 잠시나마 일단 무정부 상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과 수단으로 보르지아와 그의 잔인무도한 정치수단과 방법을 빌렸을 뿐이다. 이 《군주론》은 그의 최종목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목적으로 향하는 일시적 수단방법을 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끝으로 이 역자(譯者)는 1966년 Giulio Dinaudi editore 판(版)을 대본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林明芳

## 해 제

###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군주론》

#### 1. 전기 활동과 시대배경

마키아벨리는 1469년 5월 3일, 르네상스 시대의 문예운동이 그 최고봉에 도달한 때,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니콜로 베르나르도 마키아벨리 (Niccolò Bernardo Machiavelli)로, 1527년 6월 22일에 58세의 생애를 마치고 타계하였다. 그는 동시대의 천재들, 즉 라파엘로(1483~1520),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미켈란젤로(1475~1564)와 함께 인류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금자탑을 세운 역사적인 존재이다.

마키아벨리의 저작활동과 내용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그는 주로 《군주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흔히 약육강식의 폭군지상주의자(暴君至上主義者)로 낙인찍혀 일반적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러한 《군주론》에 대한 오해는 “어느 역사적 사실은 그 사실이 이루어진 시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만 진실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 랑케의 주장대로, 현시점의 감각에서가 아니고 마키아벨리가 살던 그 시대의 의식에서 살펴볼 때 스스로 해소되며, 독자가 그 시대로 환원함으로써만 《군주론》의 참다운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현시점의 자기 눈으로만 역사적 사실을 아전인수 격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서 역사적 인지(認知)에 오류가 발생한다.

마키아벨리와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가 아니고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하며, 이것은 그가 《군주론》을 서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처절하고 각박하던 당시의 이탈리아 반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문예활동으로 그 당시의 이탈리아는 전 유럽의 꽃밭이며 극히 안

정되고 평온한 사회생활만이 이루어진 것 같이 흔히들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꽃핀 라틴 문화의 마지막 절규시대이며, 정치적·사회적으로도 19세기 후반기까지의 길고도 파괴적인 분열과 혼란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혼란기에 처하였던 인물이었다.

15세기 말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프랑스·독일이 통일된 국가형태로 전되어 가는 것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멸망 후부터 지속된 국가 분열이 더욱 악화하여 외세의 지배가 강화되고,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 여러 곳에 발생한 도시국가들이 이 혼란에 박차를 가할 뿐이었다. 르네상스 문예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었던 피렌체는 당시 명목상 공화국이었을 뿐 실은 피에로 데 메디치의 독재에 의한 소위 ‘메디치 가(家)’의 전제(專制) 시기였다. 마키아벨리가 출생한 1469년은 바로 피에로 데 메디치를 이어 그 가문에 전성기를 갖다 준 로렌초가 약관 21 세의 나이로 전제권을 가지고 등장한 해로서, 그는 다른 도시국가들의 소수 지배자들과 다름없이 전제적 독재자였으며, 그는 권력의 원천을 통상과 은행업에 두고 농업 위주의 봉건체제로부터 이탈하여 심지어는 종교적 세력, 즉 로마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할 정도로 이례적인 특권을 구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물론 그 당시의 교황 세력은 중세기에 누렸던 문화·정치·사회적인 중심적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오로지 무력과 권모술수로 겨우 생명을 유지해야만 되는 이탈리아의 한 지방군주로 탈락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전(全)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종교적 주권은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독재자이긴 했지만 천부의 총명과 덕망으로 메디치 가문의 전통을 이어 받으며, 르네상스의 대표적 인물로 부각되었다.

1469년은 또한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 정복을 감행한 해로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분열상태에서 이탈리아는 어이없이 굴복당하고, 그 후 계속하여 외침을 받았다. 이탈리아는 지력·무력 또는 정치적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의 분열로 외세 침략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물론 샤를 8세의 침입은 이탈리아에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문화면에서는 오히려 르네상스 문예를 알프스 이북으로 이식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

는 바로 이탈리아에서의 문예운동의 퇴보와 동시에 알프스 이북으로의 문화 중심지 이동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환경에 처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문학·예술 등 각 방면의 활동에서도 충분히 발휘되지만, 특히 그의 흥미를 끈 것은 조국 이탈리아의 운명이었으며, 그는 조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해결뿐이라 결론 짓고 그의 독창적인 정치사상을 꾸민 것이다. 즉, 정치를 윤리·도덕과 분리시켜 객관적·과학적인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통치 기술이라 한 점이다.

그는 피렌체의 공리(公吏) 또는 외교사절로서 국가 간의 무자비한 비윤리적 투쟁과 군주를 목격하며 이 비극에서 조국 이탈리아를 구출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군주론』에서 밝혀 놓은 것이다. 이는 그의 『리비우스론』과 함께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학을 창설한 이정표이다.

1498년 29세 때, 그는 처음으로 공직을 맡았는데, 피렌체의 최고 통치기관인 시뇨리아(Signoria)의 4부처의 하나인 '자유평화 10인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군부나 내무부의 독립된 기구로서 외교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동시에 국민군(당시 피렌체 군대는 용병들이었다)을 관장하였다. 그때까지의 그의 경력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그의 부친이 법률가이며 높은 교양을 쌓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출생 후 29년 간은 피렌체와 이탈리아에 엄청난 시련과 재난이 거듭된 시기이며, 피렌체와 르네상스 시대 문예운동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로렌초는 사망하고 이로써 피렌체와 이탈리아는 더욱 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를 계승하여 피에로 메디치가 등장하며, 로마에는 그 압명높은 보르지아 가의 알렉산더 교황이 즉위하고 드디어 프랑스의 침입으로 전 이탈리아는 전국 시대를 맞게 된다. 피렌체에서는 이제 피에로가 추방되었으며, 여러 도당의 대립·투쟁이 계속되고 수도사 사보나롤라가 예언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 예언자도 1498년, 즉 마키아벨리가 공직에 나타난 그 해에 화형에 처해지고 이 사건은 마키아벨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마키아벨리가 공직에 취임한 다음 해 샤를 왕을 계승한 프랑스의 루이 12세는 또

다시 이탈리아로 진격하여 이 반도는 다시 한 번 전화(戰禍)에 휩쓸리게 되며, 그는 피렌체 외교관으로 파리에 파견되어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그는 외교관으로서의 수완을 충분히 발휘하여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박학한 지식과 더불어 실제 정치를 경험하게 되고, “프랑스인은 정치를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놓았다. 바로 이 시기에 《군주론》의 주인공인 체자레 보르지아가 혜성같이 이탈리아 정치에 등장한다. 그는 교황 알렉산더의 아들로서 교황과 프랑스를 업고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목표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이에 크게 당황한 피렌체 측에서는 마키아벨리를 체자레에게 사신으로 보내 수교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체자레와 접촉을 갖게 된 마키아벨리는 〈발렌티노 공(체자레의 공식명칭)이 반역 장군들을 살해한 양상에 관한 기술〉이란 글에서 체자레의 인간 됨됨이를 객관적으로 냉철히 분석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담성·세심성·행동에 있어서의 기만과 잔인,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단호한 태도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후에 《군주론》에 나타난 그의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정치적 이념은 이때 벌써 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기에서 그는 체자레 개인의 인간성이나 도덕적 행위를 정치적인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의 특이한 정치철학을 구체화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가 인간에 대한 승배나 존경을 떠나 오로지 조국 통일의 정치적 수단으로 유력시하고 희망을 걸었던 체자레도 1503년 극단적인 후견인인 부친 알렉산더 교황이 별세함으로써 그 포악한 기세가 꺾였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이탈리아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한갓 꿈으로 사라진다. 피렌체 자체 내부에서는 장기화한 피사와의 전쟁으로 사회불안이 격화되고, 특히 재정면에서 더욱 큰 곤란을 당하자, 과중한 세금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으로서 〈국가재정에 관한 진언〉을 1503년에 당시 권력자인 소데리니에게 권하고, 다시 1504년에는 1494년부터의 피렌체의 퇴폐와 비운을 《10년기》에 기록했다. 또한 구국의 유일한 방법은 용병이나 그 장군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병을 조직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고 국민국방을 주장하여 새로운 군사노선을 천명하였다.

그에게 국민병의 필요성을 암시한 것은 고대 로마 시민병과 그가 목격한 프랑스를

비롯한 강대국의 군제였으며, 소데리니도 그의 우국의 정열에 감동하여 국민군 조직에 착수하여 1506년 마키아벨리는 군부비서(軍部秘書)에 임명되면서부터 시 군정(市軍政) 확립에 헌신하게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는 프랑스·독일 양국으로부터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그 중에도 프랑스의 경우는 그 만행이 극도에 달하여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단결했다. 그러나 피렌체의 경우, 프랑스와는 통상 상의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어 어느 편에도 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자, 마키아벨리는 다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신으로 프랑스에 파견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견문으로 〈독일 정세〉, 〈프랑스 정세〉의 두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독일의 번영과 안정의 요인을 각 시의 자치제도와 상호협력에, 프랑스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제도에 기인한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 이탈리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512년 피렌체에는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 소데리니는 실각하고 시(市)는 다시 메디치 가의 전제시대로 들어가며, 구(舊)정권에 봉직하였다는 이유로 마키아벨리는 1년간이나 억류생활을 하였다. 그 후 다시 공직에 복귀되나 반(反) 메디치 혐의로 다시 투옥되었다. 다행히도 투옥 기간은 단시일이었으며, 석방된 후 사회생활을 멀리하고 산 카시아노의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저작생활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의 대표작인 《군주론》과 《리비우스론》도 바로 이 시기의 저작이었다.

그가 실의에 차 있을 때 유일한 벗이며 사상과 우정을 기탄 없이 나눌 수 있었던 친구는 로마 주재 피렌체 사절이었던 베토리였으며, 독서와 저작생활에 몰두하는 이외에 친구와의 문통(文通)이 그에게는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문통 내용은 주로 이탈리아와 피렌체에 관한 정치·사회 문제로서, 박학다재한 이 두 사람의 서간은 그 시대의 역사와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2. 후기 활동과 저작

《군주론》보다 뒤늦게 써어진 《티투스 리비우스 첫 10권에 관하여(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리비우스론))》는 《군주론》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될 논문이다. 그 내용은 제목 그대로 로마 사학자 리비우스가 로마 기원에서부터 기원전 9년까지의 역사를 총 120권으로 분류하여 쓴 로마 사료 중 가장 귀중한 것으로서, 마키아벨리는 그 중 첫 10권에 관하여 해설식으로 주석(註釋)한 것이다.

로마가 황제제(皇帝制)로 변천하기까지의 공화제 국가의 흥망을 다룬 이 역사서를, 마키아벨리는 신 시대의 정치가의 안목으로 해석해 가면서 양 시대의 여러 양상을 비교하며 거기에서 국가 생리의 보편적 · 일반적 원칙을 찾아내려고 했다. 이것은 비록 미완성 작품이긴 하지만 3권으로 되어, 제1권은 국가제도, 제2권은 영토확장, 제3권은 국가의 흥망에 관하여 냉철한 관찰 태도로 꾸며져 있다.

마키아벨리는 비록 일체의 공직과 정치활동에서 손을 빼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피렌체와 이탈리아의 운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1519년에는 <피렌체 정부의 개혁을 논함>이란 정책 개정의 글을 당시 실권자에게 제시한 바도 있다. 또한 《전술》을 1521년에 발표했는데, 국가의 자유와 독립 보존을 위한 요령을 《리비우스론》에, 주권자로서의 자격과 행동원칙을 《군주론》에 논한 데 이어 《전술》에서는 국가와 주권자가 국가의 안정 보존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필요한 방법으로서의 군병(軍兵)에 관하여 논하였다. 다시 말하여 이 세 논문은 계속적인 연관성이 있는 저술인 것이다. 물론 마키아벨리는 군인도 병술가(兵術家)도 아니었지만 그는 군조직에 참여하였고, 타국의 군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그는 전문가 못지 않게 이 문제를 파악하였고, 국가 · 주권자 · 군대의 삼위일체에서 전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피력하여, 근대 사회조직에 묵시적인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색적인 정치사상 작품으로, 한 무사의 일생을 그린 《카스트루치오 카스트라카니 전(傳)》이 있다. 이 작품의 역사상 주인공은 1328년 전장에서 사라진 실재 인물인 데 반하여, 마키아벨리는 이와는 관계없이 고아 출신으로 용명을

날리는 한 가공 인물을 등장 시켜, 《군주론》서 보르지아를 이상적인 군주로 묘사 하듯 그의 《전술》 내용을 이 무시를 통해 구체화시켰다.

마키아벨리의 저술 재능은 정치적 사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순수 문학자로서도 그의 작품활동은 광범위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의 상징적 특징인 고전, 특히 라틴 문학에 대하여 깊이 정통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그의 정치사상에 잘 표시된 대로 로마 문화와 이탈리아 향토색에 대한 관심과 존경은 지대하였다. 따라서 그의 문학활동에 있어서도 이탈리아어와 그 문학이 항상 초점이 되었다. 이탈리아어는 11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모체어(母體語)인 라틴어와 분리하여 성 프란체스코의 시론(詩論)을 거쳐 단테에 이르러 그 형태를 확고히 갖추게 되어 이탈리아 반도의 일반 생활언어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 뿐만 아니라 허약하였고,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활동 시기에 이르러 전체적 구성을 갖게 되었는데, 마키아벨리는 자국어(自國語)에 대한 찬사와 존경을 1514년에 저술한 《언어에 관한 대화(Dialogo intorno alla Lingua)》에서 여지없이 표현하여 어학(語學)에 있어서의 그의 관심과 재능을 나타냈다.

1517년경에 씌어진 작품인 《황금 당나귀》는 단테의 《신곡》과 같은 3행시로서 마왕 키르케에 의해 당나귀로 변신된 어느 인물이 환상 속에서 이탈리아 각 도시를 돌며 그 시대의 모순과 비정상을 풍자한 재치있는 내용이며, 《대악마 벨화골 이야기》는 여자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풍자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옥의 악마 벨화골이 지옥에 떨어진 여러 남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모두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실제로 여자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돈을 준비하여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나타나 아내를 얻는다. 과연 지옥에서 조사한 대로 그는 여자에게 시달리다 못해 목숨만을 간신히 구해서 지옥으로 도망친다는 내용인데, 여자에 대한 멸시 · 조소는 옛 문학, 특히 중세에 유행된 주제였다.

그러나 그의 문학작품 중 최대 걸작은 풍자희극 《만드라골라(Mandragola)》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아리스토파네스, 프랑스의 몰리에르의 작품들과도 비교될 수 있는 세계적 걸작이며, 초연(初演)은 1504년경에 이루어졌는데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에 불러 초대공연까지 한 바 있다. 피렌체 출신의 롤리코마란 남주인공은 고향을 떠나 20년 간이나 파리에서 순조로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고향 친구의 처 루크레치아가 재색겸비한 절세 미인이란 이야기를 듣고 문득 유혹에 사로잡힌다. 고향에 돌아와 그녀를 본 그는 그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욕정에 사로잡힌다. 이성을 잊고 양속(良俗)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일삼으며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멍청한 그녀의 남편, 돈에 눈이 먼 건달 리구리오, 욕심쟁이 어머니, 타락한 수도사의 간계, 그리고 착하고 아리따운 루크레치아, 사랑에 눈이 먼 주인공 등 보카치오에 나타난 르네상스 때의 사회의 부패, 도덕의 타락상을 마키아벨리는 그의 예리한 문학적 소질과 재능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쳐 나간다.

마키아벨리가 은둔생활에서 저술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이탈리아와 전 유럽에는 역사적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으로 전 유럽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혼란에 빠지며, 이탈리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변하여 마키아벨리가 그렇게나 사랑하던 피렌체도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치하에 들고 만다. 마키아벨리는 절망적 비탄에 사로잡힌다.

그의 학자로서의 마지막 영광은 1525년에 교황 클레멘스 7세(메디치 가 출신)에게 봉헌한 『피렌체 사(Istorie Florentine)』이다. 『피렌체 사』는 1520년에 클레멘스 7세가 피렌체 집권자로 있을 당시 피렌체의 흥성과 메디치 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마키아벨리에게 편찬을 위임함으로써 시작된 작품이다. 처음 계획은 1434년 메디치 가가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부터 서술하려고 하였으나, 역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불충분하여 중점을 ‘피렌체 사’에 두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8권으로 꾸며져 있는 이 책은, 제1권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서부터 1440년까지의 이탈리아 반도의 주요한 역사를 다루고, 다음 제2·3·4권은 시(市)의 발전사로서 여기서 메디치 가의 영광을 클레멘스 7세가 권세를 장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나머지 4권은 1434~1492년(로렌초 데 메디치가 사망한 해)까지 피렌체와 전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전란 상황이 설명되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참상은 이탈리아 자체의 내부 분열과 거기에 따른 무력화가 지동적으로 외세 침입을 초래한 데에 있다고 하여, 『군주론』에서 피력한 그의 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순수 사학적인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史實)의 기술에만 만족하지 않고 사실을 토대로 그 인과관계를 부각시켜 논리적 귀납으로 역사의 원인을 파헤치는 새로운 양식의 역사 서술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그는 중세기적 종교 권위에서 벗어나 신의 섭리와 교훈을 역사적 사실과는 분리시켜, 자연법에 입각한 객관적인 사관을 확립시키는 역사학에 공훈을 남겨 놓은 것이다.

1527년 6월 22일 중병에 시달리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은 여생을 또다시 조국과 피렌체의 평화를 위해, 교황 또는 피렌체의 사신으로 공직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중심부인 로마는 1527년 5월 에스파냐의 부르봉 군대에게 점령당하고, 동시에 그에게 잊을 수 없었던 메디치 가문도 반란으로 쫓겨나 피렌체는 니콜라 카포니가 이끄는 평민당(平民黨) 지배 하에 들어가 마키아벨리는 실의에 찬 채 위대한 업적만을 남기고 타계하였다.

그의 유해는 성 크로체 성당에 매장되었고, 거기에는 페르로니의 간단하나 깊은 뜻이 담긴 비석이 서 있다.

위대한 명성을 어이 찬사로 다하리.

니콜로 마키아벨리

1527년 사망.

Tanto Nomini Nullum Par Elogium.

Nicolaus Machiavelli

Obit Anno A.P.V. Mdxxvii.

### 3. 《군주론》이 씌어진 동기와 배경

솔직 담백하고 하등의 불필요한 수식도 없이 직설적인 문체로 이루어진 《군주론》은 마키아벨리 자신이 팜플렛이라 부를 만큼 부피가 작은 저술이다. 그러나 이 저작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위정자들과 이 방면의 전공자들 사이에 널리 애독된 책은 그리 흔치 않으리라.

사실 《군주론》만큼 자고로 물의를 많이 일으킨 작품은 드물 것이다. 급기야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이란 새로운 정치용어와 사상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는데, 과연 《군주론》과 마키아벨리즘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과연 마키아벨리즘이 그가 의도한 바대로 구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본인이 목적한 바와 동떨어진 것인지, 《군주론》을 아전인수 격인 주관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1513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이 저작은 처음부터 평탄한 길을 걸으리라곤 생각되지 않았으며, 그러기에 이것이 처음으로 공간(公刊)된 것은 마키아벨리가 별세한 몇 년 후인 1532년이었다. 그는 먼저 그의 글을 그와 가장 가까운 베토리에게 보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그는 저자에게 아무 평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판을 권유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것은 통례와는 달리 메디치 가의 아무에게도 현상되지 않았고, 다만 소수의 우인(友人)에게만 그 사본이 돌아갔을 뿐인데, 아마도 마키아벨리 자신은 그 글이 공표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을 염려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드디어 발간 후에 일어났으며 빗발치듯한 비난이 먼저 그 시대의 정신적 지배자 격이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다. 마키아벨리는 교회 그 자체의 권위와 교황의 종교적 주도권을 의심 또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르네상스 시기에 실재적 지방 정치세력으로서의 교황 측의 무능·탐욕·타락을 신랄하게 반박하였다. 따라서 그의 글에는 당시의 종교 권력층의 비위에 거슬리는 제목이 하나 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연히 상상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루터의 종교혁명으로 인하여 카톨릭 교회의 뿌리인 교황권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고, 전 유럽 그리스도교

사회가 양분되면서 동시에 이를 쟁점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란을 맞이하게 된 교회 측으로선 마키아벨리의 글은 좌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교황 옹호파인 예수회를 중심으로 『군주론』을 소각하는 등 배격운동을 벌였고, 1559년 공포된 금서(禁書) 중에 『군주론』뿐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전 저서를 포함시키면서 전면적 탄압을 가했다. 이 금서 조치는 한편으로 『군주론』에 대한 비방을 날조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의 지식인에게 그것을 널리 선전하여 그들의 호기심을 끌게하는 반작용까지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예로 ‘금서령’이 내린 바로 그 다음 해에 바젤에서 『군주론』의 라더역 판이 출판되었다.

단순한 감정적인 탄압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군주론』에 대해 노골적인 편견과 악의에 찬 비판이 시작된 것은, 프랑스 법학자 이노센트 젠틸레(Innocent Gentillet)에 의해서였다. 그는 <페렌체인 마키아벨리의 논(論)>을 반박하며 왕령(王領)과 기타 영국(領國)의 평화유지와 통치방법을 논함>이란 글을 발표함으로써, 『군주론』에 담긴 정치사상을 반박하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열거하고, 자기의 정치사상과 정책요강을 표시하였다. 그가 바로 이 글로 『군주론』의 본의를 곡해한 ‘마키아벨리즘’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이후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자기의 권력과 세력을 팽창,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것에도 구속받지 말고 도의정신 · 종교심 · 논리성을 저버리며,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방법을 주장한 지적 괴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그 후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즘이란 괴물로 둔갑하여 각 시대 전제자들의 애완물로 타락하고, 오늘날까지 비정한 정치세계의 하나의 행동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군주론』의 내용을 통치방법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군주론』에 담은 마키아벨리의 뜻이 국제적인 파란의 대상이 되어 본래의 저자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곡해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할 따름이지 『군주론』이 곡해된 마키아벨리즘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도 아니다. 『군주론』은 여하간 권력자들에 의해 아전인수 격으로 받아들여져 마치 전제군주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전락한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주론』에 대한 곡해를 풀고 객관적 견해를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유명한 국제법학자 알베리코 젠틸리(Alberico Gentili, 1552~1601)의 마키아벨리 연구와 프리드리히 그リスト의 『마키아벨리 연구』(1731)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군주론』에 대한 곡해를 벗어나 모든 선입관념을 배제하고 그 저작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책이 씌어진 동기와 작자 개인의 입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개인이 처한 시대적 배경은 상술한 바 있고, 여기서는 『군주론』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512년 프리토 정변으로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의 집권자로 등장하자, 마키아벨리는 반(反) 메디치의 혐의로 공직에서 쫓겨나 독서를 벗삼아 시골에서 상심에 젖은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 해가 다 저물어 갈 즈음 그는 그의 절친한 친구 베토리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피렌체엔 20일도 채 못 있었고 줄곧 여기 시골에 와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 새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면서 9월달을 별일없이 지냈지만, 이제 그 장난도 무의미해서 그만두어 버렸소. 아침이면 태양과 함께 일어나 내가 현재 벌목하고 있는 산으로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며 일꾼들과 잡담도 하고 지내는데, 이러한 나날은 견뎌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이들 순진한 일꾼들도 항상 그들 간에 또는 동네 사람들과 문제가 있더군요. 일꾼들과 잡담한 후면 나는 발길을 시냇물 있는 곳, 내가 새집을 만든 곳으로 옮기며, 단테 · 페트라르카 · 디부르스 · 오비디우스 등의 작품을 읽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비교해 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곤 합니다.

그려고는 길가 주막에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담소하면서 그들 나라 사정과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면서, 각 개인 간의 생각과 사람 됨됨이가 서로 다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식사 때가 되고, 나는 그들과 함께 가난한 내 살림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아무 음식이나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막으로 돌아가 보면 항상 그 주막 주인, 숙수, 뺑집 주인, 미장 이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그들과 트럼프 또는 체스를 두며 때로 승부를 놓고 입씨름도 합니다. 이들은 얼마 안 되는 판돈을 갖고도 곧잘 싸움하며 그 소리는 온 마

을에 다 들릴 정도이니,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며 나는 내 머리를 식히고 잔혹한 내 운명을 슬퍼합니다.

저녁 해가 지면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동안 흙과 때 묻은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내 서재로 들어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나는 옛사람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나를 따뜻이 반겨주는 듯 느끼며, 그들이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양식을 베풀기를 바라고, 그들과 그들의 행동 · 생활에 관하여 묻는 것을 주저 않지요. 그러면 그들은 친절히 나에게 대답하고, 이렇게 4시간 동안 나는 모든 피로와 고통을 잊고, 심지어는 공포와 죽음도 머리에서 사라질 정도로 그들에게 몰두합니다. 나는 단테를 비롯해서 먼저 간 철인들에게서 얻은 것을 상기하면서 여기에 『군주론』이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에서, 나는 문제된 점들을 최대한 심사숙고하면서 국가의 성격 · 종류 · 형성 · 유지 · 패망에 관해 논해 보았는데 귀하가 읽으시면 결코 지루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책은 새 군주에게 환영받으리라 생각하여 줄리아노 메디치 전하게 바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게 된 직접적인 환경과 동기를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이 글을 메디치 가에 현상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무슨 이유론지 실행되지 않았다. 여하간 그가 공직에서 쫓겨난 후에도 피렌체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히 있었는데, 그것은 위의 서간 끝 부분에도 역력히 나타나 있다.

14년 간 나는 결코 무위도식도, 꿈속을 헤매지도 않으면서 위정자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 왔습니다. 이같이 많은 경험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이용하려고 원할 것입니다.

이 서간 끝에서 “나같이 43년 간을 결백 충실하게 지낸 자가 이제 와서 표변할 수는 없는 일이며, 나의 결백과 충신(忠信)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썼는데, 이는 마키아벨리의 공인(公人)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솔직 결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인품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그의 국가에 봉사하려는 열망도 꿈으로 사라지고, 끝내 그는 꿈속에서 유토피아를 헤매는 빈곤한 선비로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군주론』이 지니고

있는 솔직하고 가식 없는 정열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의 조국통일의 꿈은 한낱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로 19세기 말에 이르러 그대로 실현되었다.

#### 4. 마키아벨리가 파악한 ‘군주’의 개념

마키아벨리가 비분의 은둔생활에서 착상한 《군주론》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외침과 내분에 허덕이며 로마 제국의 영광을 저버린 조국 이탈리아의 구국이었다. 그러기에 이는 일반적인 국가정치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순수학문적으로 이탈리아 문제를 다루기엔 너무나도 절박한 느낌이 있다. 이탈리아 구국을 위해선 먼저 국내 통일과 외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 강력한 국가가 절대 필요시되고, 그 실행은 오로지 새로운 폭군적인 전제군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새로운 군주와 그가 영도하는 국가는 과연 어떤 정책으로 이탈리아를 구제할 것인가. 이 문제점을 그의 다년간의 경험과 학식, 그리고 천재성으로 밝혀나간 것이 바로 《군주론》의 내용이며 그 집필 목적이다.

마키아벨리의 염두에 일관된 이념은 조국 · 영광 · 힘(원어로는 *virtù*인데, 단테의 《신곡》에도 이 단어는 힘으로 이해된다)이며, 이 세 개념은 조국이란 한 마디로 집약할 수도 있지만 힘과 영광 없는 조국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정삼각형에 서 볼 수 있는 대로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 조국이란 물론 로마의 후광을 업은 이탈리아 전 반도를 뜻하며, 교황이나 황제(신성로마제국의)가 지배 하는 한 정된 독립과 자유가 아니고 외세로부터 완전 독립하고 자치권이 충분히 행사되는 통일조국을 그는 꿈꾼 것이다. 국가관념에 있어서 그는 그가 존경해 온 단테와도 이견을 보인다. 단테는 《제정론(帝政論)》에서 국가관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여 야만 되는데, 평화 유지에는 정치생활의 지도자로 황제가, 영적 · 종교적 지도자로 교황이 필요하다. 이 양자는 마차의 두 바퀴같이 하나가 빠져도, 결함이 있어도 안

되는 불가분의 공존관계에 있으며, 양자는 인간을 위해 신이 내려준 은총이다. 완전한 자유와 독립이란 신의 섭리의 범위에서만 존재하며, 황제와 교황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유롭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지배 하에서만 봉건국가와 도시 국가의 존재이유와 목적이 합법화될 수 있다. 이 사회구조는 그 우두머리인 황제와 교황이 자기 위치와 권위를 견지하는 한 무난히 지탱될 수 있으나, 양자 중 누구 하나라도 그의 직분·사명·힘을 저버릴 때 이 구조는 자체적으로 간단히 무너져 버린다.

단테가 이런 정치사상을 지녔던 시기와 마키아벨리 시대 사이에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 단테의 신국론적(神國論的) 사회구조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 교통의 발달, 지식 증대, 세속 생활의 긍정, 자유도시와 그 부력(富力)의 발달, 국민정신의 각성 등으로 널리 깨어난 르네상스 인들은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세속권과 돈에 눈이 먼 교황과 황제를 저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유럽 제국은 신국론적 통일체를 벗어나 서서히 국민국가 형성으로 그 대세가 흘러갔으며, 각국의 주권과 권익을 그 무엇보다도 앞세우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뒤늦은 것이 바로 이탈리아였으며, 이런 국제정치 생활의 변화로 마키아벨리는 단테의 신국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판단, 구국을 위한 방안을 『군주론』에 제시한 것이다.

보르지아에게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의 가능성을 찾았던 마키아벨리는 보르지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메디치 가문에 기대를 걸었다. 메디치 가에 『군주론』을 헌상하려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조국은 그에게 지상에 있어서 유일한 절대적 존재였다. 여기서 그가 중세기적 국가관을 완전히 탈피하여 국가지상주의의 현대적 국가관을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국가는 신의 섭리에서가 아니고 그 자체의 존엄성에서 존재하며 그러기에 국가의 법은 절대적이며, 개인은 국가 내에서만 그 존재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국가를 떠난 개인은 상상할 수도 없고, 도덕과 종교도 국가의 법과 일치함으로써 만 그 생명이 발휘된다. 단, 국가의 법과 명령은 국민 모두가 존경하여 받드는 것 이므로, 그 근원을 ‘국민의 소리(vox populi)’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또한 국가는 신의 섭리나 운(運)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정신과 자연법이 그 원리이고, 군주는 다만 이 국가를 실현하는 현실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군주’라고 말한 것은 교황·황제 또는 어느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내용의 국가 관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영도자를 뜻한다. 그가 군주 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직결시킴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최대시한 것은 당시 개인의 능력·활동의 가치를 중요시한 르네상스 풍조를 따른 것이며, 동시에 국가라고 할 만한 조직사회를 갖지 못한 이탈리아의 당시 사정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마키아벨리가 뜻하는 군주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그에 의하면 군주는 먼저 냉철한 심사숙고형이어야만 되고, 조국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으며, 목적을 향해 지(知)와 용(勇)으로 무자비하게 돌진해야 된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도덕도 문제시 않는 정·부정을 초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선정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항시 파악하고, 이를 이용 또는 만족시킬 수 있는 총명함을 지녀야 하는데,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엔 바로 이 정신력과 군병(軍兵)이 절대 필요한 수단인 것이다. 군병 없이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마키아벨리는 군주 교육 중에 사냥을 제일 먼저 권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군주의 행동요강이 바로 이 『군주론』이다.

林明芳

## 차례

옮긴이의 말 · 해제	5
울리는 글	25
제 1장 군주국의 종류와 그 형성과정	27
제 2장 세습군주국	29
제 3장 복합형 군주국	31
제 4장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왕의 제국에서 사망한 후 후계자를 둘러싼 반란이 없었던 이유	41
제 5장 점령하기 전에 시민자치제를 취해 온 도시나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45
제 6장 자기 무력과 역량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군주국	48
제 7장 타인의 무력과 운으로 얻은 새로운 군주국	53
제 8장 비행(非行)으로 지배자가 된 군주	61
제 9장 시민형 군주국	66
제 10장 군주국의 국력 추정	71
제 11장 교회국가	74
제 12장 군대의 종류와 용병군	78
제 13장 외국 원군 · 혼성군 · 자기 군대	84

제 14장 군비(軍備)에 관한 군주의 임무	89
제 15장 인간, 특히 군주가 찬양받거나 비난받는 몇 가지 이유	92
제 16장 관후함과 인색함에 대하여	95
제 17장 잔인함과 인자함에 대해. 그리고 사랑받는 것과 외경(畏敬)받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	99
제 18장 군주는 어떻게 신의를 지킬 것인가	104
제 19장 경멸과 증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8
제 20장 군주가 구축하는 요새 및 그 비슷한 것들은 과연 유익한가 유해한가	120
제 21장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26
제 22장 군주의 측근 대신	131
제 23장 간신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134
제 24장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왜 영지를 넓었는가	137
제 25장 운명은 인간사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졌으며, 또 운명의 힘에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140
제 26장 만족(蠻族)으로부터의 이탈리아 해방을 위한 권유	145



올리는 글

## 올리는 글

###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올림<sup>1</sup>

군주의 은총이나 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물품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나 혹은 그 군주가 받음으로써 즐거워할 것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거의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무구(武具)·금품·보석과 기타 군주의 위엄에 적당한 장신구 등이 선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으로서도 각하를 만나 뵈옵고자 원하는 이 마당에 각하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서 무엇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만 본인에게는 별다르게 귀중하고 값나가는 것이 없으며, 다만 무엇이 있다면 근래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오랜 경험과 고대에 관한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하여 터득한 위대한 인간의 행적에 관한 지식뿐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장구한 시간을 들여 대단한 노력으로 연구하고 상세히 조사하여 얻은 지식을 이 작은 책으로 정리하여 각하에게 올리고자 합니다.

이 책이 각하가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선물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오랫동안 많은 노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이 연구한 것을 각하가 단 시일에 알아 보실 수 있게 짐작하였기에 자비하신 각하께선 본인이 바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 생각하여 쾌히 받아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 소품을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은 대부분의 저자가 그들의 글을 쓰는 데 있어 흔히

1 본문에서는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Nicolaus Maciavelius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1513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썼던 글이다. 그는 이 책을 당시 피렌체의 지배자 중 한 사람이었던 줄리아노 데 메디치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중부 이탈리아 지방에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려고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좌절되자 이 책을 다시 피렌체의 최고 지배자였던 로렌초에게 바치게 됨으로써 이 올리는 글은 본문보다 뒤늦게 썼던 것이다.

사용하는 문구 끝의 거북한 운율<sup>2</sup>이나 과장된 미사여구, 또는 비유 수식을 일체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이 소품이 소재의 새로운 점과 내용의 중대성으로 받아들여지기만 원하였을 뿐, 그 외의 여하한 특색으로도 이 작품을 장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 낮은 한 개인이 대담하게도 군주의 정치를 논란하거나 방향제시를 한다는 것이 신분을 망각한 대담한 짓이라고 꾸짖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를 들어 풍경을 그리려는 화가들이 산이나 들의 모습을 관찰하려면 평지에서 해야 되고, 그와 반대로 낮은 곳을 관찰할 때는 산 위에서 해야 되는 것과 같아, 민중의 성질을 알자면 군주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고, 군주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중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각하께서는 본인의 이 심정을 이해하시고 이 작은 선물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각하께서 이 책을 소중히 여기시고 읽어 주신다면, 운명과 각하가 지니신 여러 장점이 각하에게 길을 터주는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 틀림없으며, 이것이 바로 본인의 최고 소망입니다.

또한 각하께서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때로는 여기 이 낮은 곳에 눈을 돌리신다면, 본인 이 얼마나 엄청나고 지속적인 부당한 운명의 학대를 받고 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2 중세의 산문에 흔히 사용되었던 수사법의 하나이다.

제 1 장

## 제1장

### 군주국의 종류와 그 형성과정

역사상 오늘날까지 인간을 다스린, 또는 아직 다스리고 있는 국가나 주권 집단은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의 어느 하나였다.

군주국이란 지배자의 혈통을 계승한 자가 오랜 시일에 걸쳐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습군주국과 새로이 탄생한 군주국들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군주국으로서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sup>1</sup>가 통치하기 시작한 밀라노와 같은 전연 새로운 국가와, 에스파냐 국왕이 현재 통치하고 있는 나폴리 왕국과 같이 한 군주의 원래의 세습영토에 수족과 같이 통합돼 버리는 새로운 국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영토에는 군주제도 하에 사는 것이 몸에 벤 곳과 또는 자유스러운 생활<sup>2</sup>에 익숙한 곳이 있다. 그리고 이 영토를 얻는 방법에는 타국의 무력을 이용하는 것과 자기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운수에 따를 때와 노력 여하에 좌우될 때도 있는 것이다.

1 스포르차 가(家)는 원래 용병 대장의 집안이다. 프란체스코는 베네치아와 내통하여 군주를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랐다.

2 봉건군주 하에서보다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던 공화제의 도시국가들을 가리킨다.

제 2 장

## 제2장

### 세습군주국

공화국에 관해서는 별도로 길게 논한 바 있기에<sup>1</sup>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다만 군주국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상기한 분류에 따라 군주국이 어떻게 통치되어야 하고 무슨 방법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지를 논의하겠다. 먼저 혈통이 옳은 군주의 지배 하에 있던 세습군주국이 새로운 군주국보다 다스리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전자의 경우에는 통치에 있어 조상이 행한 정책을 충실히 지키고 동시에 불의의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지킨다면 뜻하지 않은 강력한 세력에 의해 그 자리를 빼앗기기 전에는, 군주는 평범한 능력만 가지고서도 국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자에게 국가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침략자에게 조그마한 불운이 있을 경우, 다시 그 국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실례로서 이탈리아의 페라라 공(公)<sup>2</sup>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세습적인 지배자의 후계자가 아니었던들 1484년에 있었던 베네치아 군의 공격이나 1510년에 있었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정통의 군주는 민중을 귀찮게 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기에 민중에 의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며, 상식 밖의 비행을 범하지 않는 한 미움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호감을 받게 된다. 또한 혈통이 오래될수록 혁신의 동기도 그 생각도 멀어져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혁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초래하는 화근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1 《정략론(政略論)》 제1권 18장까지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2 페라라 영주였던 에스테 가(家)의 에르콜레 1세를 가리킨다. 그는 베네치아에 패했으나 후에 다시 그 자리를 되찾는다.

제 3 장

### 제3장

#### 복합형 군주국

그러나 새로이 형성된 군주국에는 여러 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먼저 전혀 새로운 군주국은 아니나 신·구 영토를 합치면 복합형이라 부를 수 있는 나라의 수족 부분에 해당하는 새로운 군주국의 예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혁은 모든 신생 군주국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연발생적 난점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 난점 중 가장 큰 것은 민중의 생활이 향상되리라 믿고 지배자를 갈아치우려는 것이며, 이러한 신념 아래 손에 무기를 들고 지배자에 맞서게 된다.

그러나 민중은 그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경험으로써 알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원인은 새로이 군주가 되려는 자가 부하들의 난폭함에 의해, 또한 점령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해 행위로 인하여 민중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복자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또한 그를 지원하여 모여든 친지까지도 당초의 약속대로 대우해 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고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사적으로 월등히 강력한 군주라도 어느 지역을 침입할 때에는 그곳 주민의 지원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루이 12세<sup>1</sup>가 단숨에 밀라노를 점령하였다가 또한 순식간에 이를 상실한 것, 이때에 로도비코가 소수의 자기 부하만으로 이를 해치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그곳 주민들은 루이 12세를 위해 성문을 열었지만, 후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의 행복에 대한 꿈이 깨진 것을 알아차려 새로운 군주를 더 이상 모시기가 힘들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1 루이 12세 (1462~1515) : 베네치아 공화국과의 양해 아래 밀라노 공국을 공격하여 점령하나 다시 빼앗긴다. 저자는 피렌체에 의해 확립된 이탈리아의 정치 균형이 이로 인해 깨어졌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일단 반란이 일어나 원래의 주인이 다시 그 국가를 찾게 되면 이제는 또 다시 쉽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군주가 이런 주권 쟁탈전을 통해 반역자를 가려 내어 처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로도비코 공 같은 사람은 밀라노를 프랑스로부터 되찾기 위해 첫 번째는 그 국경에서 시끄럽게만 함으로써 이를 성공시켰는데, 그 후 다시 프랑스에게 빼앗긴 후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 세계<sup>2</sup>가 프랑스에 대항하여 그 군대를 쳐부수고 이탈리아로부터 퇴각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원인 때문인데, 여하간에 밀라노는 프랑스로부터 두 번이나 해방될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밀라노의 제1차 탈환에 관하여 그 일반적 원인을 설명하였으니, 이제 제2차 때의 원인을 알아보기로 한다. 프랑스 왕은 이 경우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또한 다른 자가 그때 프랑스 왕의 입장에 있었다면 밀라노를 그대로 장악하기 위해 이 왕보다 어떠한 좋은 정책을 강구할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복자가 새로이 영토를 얻어 그것을 본국에 합칠 때 이 두 영토가 동일한 지방이며 또한 동일한 언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공통인 데다가 그곳 주민이 아직 자유스러운 생활을 모르는 곳이라면 거기를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간단하며, 이런 영토를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지배자의 혈통을 없애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밖에는 속민(屬民)에게 이전대로의 생활을 지속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로써 생활의 변화가 없으므로 주민들은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그 예로 이전에 프랑스에 병합된 부르군트·브르타뉴·가스코뉴·노르망디 지방을 들 수 있는데, 이 지방들과 프랑스 사이에는 언어상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도 풍습이 서로 가까웠으므로 용이하게 통합이 되었다. 이러한 나라를 정복하는 군주는 그 접경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그 영토의 먼젓번 지배자의 혈통을 단절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곳의 기존 법률과 세제(稅制)에 손을 대지 않는

2 루이 왕에 대항하여 유럽 각국이 연합, 드디어 루이는 1513년 폐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손을 떼게 된다.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면 새로운 지배자는 단시일 내에 신·구 영토를 완전히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언어·풍습·제도가 다른 지역의 영토를 새로이 지배하게 될 때는 여러 난점이 따르게 마련이며, 그것을 유지하자면 많은 노력과 동시에 운수가 좋아야 한다. 이 경우 최선의 방법은 정복자가 스스로 그 지방에 가서 정주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두 영토의 융합은 더욱 확실하고 영속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예로서 오스만 투르크의 그리스<sup>3</sup>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데, 이 경우 오스만 투르크의 군주가 거기에 새로이 이주하지 않았던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영토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지에 가 있음으로써 직접 그곳 사정을 알게 되어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건이 터진 한참 후에나 알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거기마다 군주가 현지에 군림하면 하급 관리들이 속민을 약탈한다든가 하는 불법 행위는 없을 것이며, 속민들도 역시 무슨 일이 있을 때 군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속민에게 새로운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면 군주가 가까이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더욱 두터워지며, 그와 반대로 반역심을 가질 때 군주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며, 외부에서 이 나라를 개혁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들은 군주가 거기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경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가 새 영토에 정주하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영토의 중요한 전략 지역에 상주병<sup>4</sup>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병이나 보병을 다수 파견해야 되니 이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상주병에 드는 약간의 비용과 비교가 안 된다. 물론 이민병(移民兵)의 이주로도 피해를 입는 현지민이 발생하나 이는 소수로서 국민 전체로 볼 때 무시할 만한 것이며, 이렇게 희생당한 무리는 언젠가는 흘어지고 빙곤

3 그리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발칸반도 전체를 말한다.

4 《전략론(政略論)》 제2권 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콜로니(Colony)를 말하는데, 이는 주둔지에서 영농을 겸하여 영주하면서 군비에 종사하는 군대 제도를 말한다.

해저 군주에게 해를 끼치게 되지는 못 할 것이다. 그 이외의 주민은 이런 피해가 자기들한테 닥치지 않았으므로 안심하고 생활할 것이며, 내심 그러한 피해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할 것이다. 결국 상주병은 비용이 적게 들고, 거기다 군주에게 충실히 일한 군인과 달리 포악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일 해를 준다 하여도 피해자들은 위에 말한 이유로 큰 위협은 되지 못할 것이다. 여하간 민중을 다스리는 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민중이란 머리를 쓰다듬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모욕에 대해서는 보복하려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피해에는 보복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복수가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상주병 대신 일반 군대를 둔다면 거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국고 수입이 모두 소모되어 새로운 영토를 획득한 데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한다. 또한 이 군대를 여러 주둔지로 이동시킴으로써 영토 전역에 해를 끼치게 되어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되고 만다. 또한 주민들이 제압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들 고향에 기거하므로 역경에 처하면 언제나 적이 될 수 있는 소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상주병이 다른 일반 군대와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풍습이 다른 지역을 다스릴 경우에는 그 군주는 인접한 약한 국가들의 맹주가 되어 그 보호자 노릇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며, 반면 강력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력이 약화되도록 꾀하고, 무슨 돌발 사건이 일어나건 자기 나라보다 국력이 동등하거나 강력한 세력이 개입치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애심과 공포심이 작용하여 자국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역사상 알려진 사실로서 그 옛날 아이톨리아인(Aetolian)이 로마 군대를 그리스에 끌어들인 일이 있으며, 그밖에 로마군이 각지에 진출했을 때 그 지방 민의 유인이 있었던 것이다.

상식적인 일이지만, 어느 강력한 세력이 외부에서 침입해 오면 그 지방의 약소국은 그때까지 자기들을 억누르던 강자에 대한 원한으로 단숨에 새로운 세력과 연합

하게 되며, 그러기에 이런 약소국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약소국의 심리는 강한 자에게 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약소국에 관해서 유의할 것은 이 약소국에다 너무 큰 세력이나 권한을 부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언제나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이 약소국의 지원으로 강자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의를 끝각하면 손에 들어온 것도 놓치기 일쑤이며, 그렇지 않으면 영내에 끊임 없는 재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로마인들은 위의 방침을 그들이 점유한 지역에서 잘 지켰다. 그들은 상주병을 파견하여 약소국에 있어서는 그 세력이 증대하는 것을 억누르고, 강국의 경우에는 이를 쳐부수고, 또한 제3세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였던 것이다. 그 실례로 그리스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들 수 있는데, 로마군은 아카이아 인(Achaian)과 아이톨리아 인<sup>5</sup>을 자기편으로 하는 동시에 마케도니아 왕국을 치고 거기서 시리아 왕 안티오크스 3세를 내쫓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로마인은 아카이아 인이나 아이톨리아 인들이 공적이 있다 하여 그 후 이 두 나라의 영토 확장을 용서하지는 않았고, 마케도니아 왕이 협력을 청하였을 경우에도 일단 그를 악화시킨 후에야 비로소 자기편으로 삼았다. 또한 안티오크스가 강대한 세력으로 버티고 있음에도 그에게 그 지방의 어떠한 영토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로마인은 현명한 군주라면 누구나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즉, 현명한 군주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면 장래의 일도 배려해야 되며,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처하여야 된다. 위험이란 미리 알면 쉽게 그 대책이 강구되나 가만히 좌시만 하고 있다가는 불치의 병으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는 폐질환에 있어서 흔히 의사들이 말하는 것인데, 이 병은 초기에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일단 알면 고치기 쉬운데 반대로 그냥 모르고 지나면 병이 발견되어도 치료는 거의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치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흔히 있는데, 현명한 위인이라면 멀리서도 영내에 재난의 씨가 발견되면 이를 쉽사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일이 표면화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

5 이 두 나라는 약소국이며, 마케도니아는 강대국이었다.

런 면에서 로마인은 재난을 예견할 수 있었기에 항상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을 기피하기 위해 화근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로마인의 생각에는 전쟁이란 피하여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뒷걸음질치면 적에게 이점만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로마인은 필립 왕이나 안티오페를 이탈리아 본토에 맞아들여 싸우지 않고 선수를 써서 그리스 본토에서 싸움을 한 것이다. 로마인은 아마 그 당시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들은 이를 뒤로 미루지 않았다, 오늘날 위인들이 흔히 이야 기하듯 “좋은 시기를 조용히 기다린다”는 말은 그들에겐 통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들의 역량과 조심성만을 다한 후 그 결과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 이유인즉, 시간은 모든 것을 구현시키며 선이나 악이나 구분 없이 물고 오기 때문이다. 이제 프랑스에 관하여 그들이 어찌하였는가를 보기로 한다. 샤를 왕<sup>6</sup>보다 루이 12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루이 왕은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영토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그는 풍습이 다른 지역의 영토를 다스리는 데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역행하는 짓을 한 것을 알게 된다.

루이 12세가 이탈리아에 침입한 것은, 롬바르디아 영토를 반쯤 루이 왕의 개입에 의해 빼앗으려고 노린 베네치아의 야망에 기인한 것이다. 루이 왕의 이런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근거지를 구축하려던 그에게는 이 지방에 자기편은 아무도 없는 데다 더욱이 샤를 왕의 불미스러운 행각 때문에 모든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기에 그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였던 것이다. 그가 취한 정책은 다른 곳에서 그가 실패를 범하지 않았던 들행공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루이 왕은 롬바르디아를 손아귀에 넣은 후에 샤를 왕이 상실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게다가 제노바(Genova)는 항복하고 피렌체도 그의 편에 들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여러 공국도 그에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으니 그때서야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들이 취한 정책이 그릇되었음을 알아차렸으나 이

6 루이 이전에 이탈리아에 침입한 샤를 8세.

미 때는 늦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롬바르디아의 일부 영토를 탐내다가 루이 왕으로 하여금 이탈리아 전 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게<sup>7</sup>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루이 왕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책을 견지하여 자기편에 서게 된 여러 공국을 굳게 단결시키고 보호한다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루이 왕 편에 든 여러 나라의 수는 많지만 모두 약체로서 교회 또는 베네치아<sup>8</sup>에 대해서 공통된 공포심을 갖고 있었기에 루이 왕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런 입장에 놓인 여러 나라의 힘을 빌어 다른 세력 있는 국가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밀라노에 입성하자마자 곧 알렉산더 교황<sup>9</sup>이 로마냐<sup>10</sup> 지방을 정복하려는 것을 지원하는 데 나섬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썼는데, 그는 이런 정책이 그를 믿고 그의 편에 들어온 여러 국가를 놓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입장이 약화된다는 것이나, 또는 권위와 교권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더욱 큰 속권(俗權)을 줌으로써 로마 교회가 강대해지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그가 큰 실패를 한 이유이며 그 후 계속 실수하게 되어, 결국에는 알렉산더 교황의 야심을 꺾고 교황이 토스카나 지방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이탈리아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는<sup>11</sup>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는 그의 실책으로 로마 교회의 세속권을 강화시킨 데다 자기편을 상실한 것도 부족하여 다음에는 나폴리 왕국을 탐내어 그 나라의 에스파냐 왕과 분할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루이 왕은 거의 단독으로 이탈리아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었는데<sup>12</sup> 귀찮게도 상대를 더 끌어들인 격이 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일부러 모셔온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

7 3분의 2란 사실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라 추측된다.

8 15세기 말 이탈리아의 양대 세력은 교황령과 베네치아였다.

9 알렉산더 6세(1431~1503) : 금전으로 교황자리를 샀다.

10 알렉산더 교황의 아들인 보르지아는 1500~1502년 사이에 중부 이탈리아를 지배 했다.

11 보르지아가 피렌체까지 공격한다는 소문이 1502년에 나돌자, 루이는 밀라노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12 1500년 에스파냐 왕 페르난도와 같이 나폴리를 양분하나, 후에 양자 사이가 악화되어 루이는 그 권한을 상실하고 만다.

다. 나폴리 왕국에 그에게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군주를 앉혀 놓아야 했을 것을, 그는 정반대로 자신을 몰아낼 자를 그 자리에 앉혔던 것이다.

영토욕이란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으로서 능력 있는 자가 영토를 더 가지려 하면 이는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도 없는 자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그것을 손에 넣으려 한다면 이는 그릇된 일로 비난받을 만하다. 프랑스가 독자적인 병력으로 나폴리를 점령할 수 있었다면 한번 해 볼 만한 일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것을 분할해 영유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루마르디아를 베네치아 인과 같이 분할한 것도 이탈리아에 프랑스의 근거지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나, 그 후 있었던 분할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루이는 다음의 다섯 가지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약소국을 없애버린 것, 로마 교회 세력을 신장시킨 것, 강한 외국 군주를 이 나라에 끌어들인 것, 본인이 정주하지 않은 것, 상주병을 두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도 루이가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를 탈취하려는 여섯 번째의 과오만이라도 범하지 않았다면 위의 실패들도 왕의 생존시까지는 그에게 아무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베네치아를 친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강대하기 전에, 또한 에스파냐가 이탈리아에 개입하기 전이라면 그럴싸하였을지 몰라도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는 베네치아는 절대로 몰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을 것이다.

베네치아를 그대로 강력한 상태에 둔다면 타국이 루마르디아로 쳐들어 올 리 없는 데, 이는 베네치아가 자국이 루마르디아의 맹주가 되지 않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서도 루마르디아를 프랑스로부터 빼앗아 일부러 베네치아에 넘겨줄 리 만무하였고, 이 두 나라에 정면으로 충돌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루이 왕이 로마냐 지방을 교회에 양보하고 나폴리 왕국에 에스파냐를 끌어들인 것은 전쟁을 회피하려고 한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위에서 말한 근거에 따르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혼란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 결단을 못 내리면 본인에게 손해만 더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루이의 정책에 대하여, 루이가 자기 결혼의 취소와 루앙의 모자<sup>13</sup>를 얻기 위해 교황과 맺은 전쟁 협력의 약속<sup>14</sup>을 충실히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그를 옹호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군주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 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루이 왕이 룸바르디아를 빼앗기고 만 것은 정복지를 훌륭히 지키려는 군주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덧붙여 이야기할 것은, 알렉산더 교황의 아들인 체자레 보르지아, 통칭 발렌티노 공(公)이라 불리는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점령했을 당시 나는 루昂 초기경<sup>15</sup>과 낭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이탈리아인은 전쟁을 모른다고 하기에 나는 프랑스 인은 정치를 모른다고 반박하고, 만일 그들이 정치를 알았다면 로마 교회 세력을 그렇게 크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험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것은 로마 교회와 에스파냐가 이탈리아에서 비대해진 것은 결국 프랑스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의 퇴보는 바로 이들에 의해 초래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에 관한 일반원칙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틀림없는 규칙이다. 즉, 타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자멸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강하게 되는 자는 그를 그렇게 만드는 이의 술책과 권력으로 그리 되는데, 일단 강하게 된 후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3 초기경의 모자.

14 알렉산더 교황은 그가 로마냐를 점유하는 대신에 루이 왕과 다음 몇 가지를 약속 했다고 전해진다. 즉, 루이 왕의 이혼을 허가하고 그의 재상에게 초기경 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그로부터 로마냐의 점유와 그의 아들 보르지아에게 남부 프랑스 발렌티노의 백작위를 수여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15 루昂의 대주교로서 루이 왕의 재상 노릇을 했다.

제 4 장

## 제4장

###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왕의 제국에서 시망한 후 후계자를 둘러싼 반란이 없었던 이유

새로이 분배하게 된 영토를 보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을 돌아다 볼 때 이상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대왕은 단수년 사이에 중근동(中近東) 지방의 지배자가 되었고, 그 새로운 영토에 대한 완전한 지배체제를 확립시키기도 전에 별세하였는데,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듯한데 부하 장병 사이에 영토 쟁탈전은 있었을망정 본토인들의 반란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먼저 모든 군주국은 두 가지 양식으로 다스려지는데 그 하나는 한 명의 군주 아래 그 군주가 인가하는 자신들이 국정을 보좌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한 명의 군주와 그 밑에 있는 봉건제후에 의한 형식인데 이러한 제후는 군주와는 독립되어 예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에 의하여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제후는 각자 자기의 영토와 속민(屬民)을 보유하고 있어 이 속민들은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연스런 애정으로 양자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군주와 신하에 의하여 직접 통치되는 곳에서는 군주는 절대자이며 그 위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데, 여기서는 속민과 군주 사이에 친밀감보다 권력자에 대한 복종심만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다른 정치양식의 실례로는 최근의 오스만 투르크와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한 사람의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신하들인 것이다. 왕은 그 나라를 여러 행정구역으로 분할하여 거기에 행정관을 보내 지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 왕은 이전부터 혈맥을 유지해 온 여러 봉건영주에 의해 보좌되고 있는데, 이 영주들은 각자 영내에서는 주권자로 군림하며 속민은 그를 주인으로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은 국왕일지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오스만 투르크의 경우에는 정복에 따른 곤란은 더할지 모르지만, 일단 정복한 후에는 용이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オスマン ツルク를 정복하기 힘들다는 이유는, 거기서는 국내의 귀족들에 의하여 외세가 환영받기 어려울 뿐더러 군주의 측근에 배반자가 생겨 외부 침입이 용이하게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정치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신하란 완전히 예속관계에 있으므로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만일 외부세력에 의해 타락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민중의 동조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내부로부터의 반란을 기대하기란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하려는 자는 먼저 적이 일치 단결하여 저항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적의 내분에 어떤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적을 쳐부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면 군주의 협통을 가진 자들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지며, 따라서 군주의 혈맥을 말살하여 민중의 기둥을 없애버림으로써 두려워할 상대를 제거해 버린다. 이리하여 전쟁 개시 이전에는 그곳 민중에게 기대를 걸지 못했던 승자도 전승 후에는 이들을 별달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은 식의 정치를 하는 국가에선 이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즉, 거기에는 변혁을 뒤쫓는 도배(徒輩)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들 하나만 자가편으로 하게 되면 그 나라에의 침입은 용이하게 되며, 이리하여 승리의 길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일단 그 나라를 통치하려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한편이었던 사람이나 반대파로부터 어려운 문제가 속출하게 된다. 더욱 곤란한 것은 이들 뒤에는 새로운 변혁의 지도자 격인 여러 영주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군주의 협통만 없애버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불만분자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없애버릴 수도 없기에 언젠가는 다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리우스<sup>1</sup>의 제국이 어떤 정치형태를 가졌었는가 살펴보면 오스만 투르크와 흡사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왕과 정면 충돌하여 그의 땅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다리우스가 죽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알렉산더의 통치는 이미 말한 이유로 평탄한 것이었다. 그의 후계자들만 상호 결속하였더라면 별일 없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거니와 사

1 다리우스 2세로 알렉산더 대왕에 폐배한 고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실상 내부 불화로 인한 소동 이외에는 아무런 반란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식 정치형태를 취한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에스파냐·프랑스·그리스 같은 지방에서는 로마 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며, 로마인은 이런 반란이 계속되는 동안은 영토 확보에 큰 불안을 느꼈다. 다만 로마 제국의 세력이 계속 팽창하고 통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옛 제후의 끈기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국의 확고한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계속 각 속주(屬州)를 지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속주에서는 대부분 재래의 지배자의 혈통이 끊겨 로마인은 쉽사리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생각해 본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균동지방의 점령지를 용이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와 반대로 피루스<sup>2</sup>나 기타 여러 군주가 정복지 통치에 자극히 곤란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복자의 역량 여하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정복된 지방의 사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피루스(Pyrrhus) : 알렉산더 대왕의 친지로서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했으나 그 통치에 심한 곤란을 겪었다.

제 5 장

## 제5장

### 점령하기 전에 시민자치제를 취해 온 도시나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주민들 자신이 법률을 만들고 자유스럽게 생활해 오던 국가는 점령하였을 경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그 곳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거기에 새로운 지배자 자신이 이주해 사는 것, 셋째는 그들 재래의 법률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대신 연공(年貢)을 바치게 하며 밑을 만한 소수자에 의한 정치를 시행하는 방법 등이다.

이 소수자들은 군주의 호의와 영향력을 상실하는 날에는 자신들의 존속도 문제되므로 전력을 다하여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할 것이 틀림없다. 이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자유스런 생활에 습관이 된 새 영지를 통치하는 데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실례로서 스파르타 인과 로마인을 비교해 보면, 스파르타 인은 아테네나 테베를 통치하는 데 있어 소수 정치 체제를 조직했으나 그 후 모두 이 지역을 상실한 것에 비해, 로마는 카푸아(Capua) · 카르타고 · 누만티아(Numantia)를 점령했을 때 이곳들을 모두 재로 만들었고 다시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로마인이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에는 스파르타 인이 한 것과 동일하게 주민의 법률에는 손대지 않고 생활을 자유스럽게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도시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파괴되는 것도 확실한 해결책이라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로운 생활을 해오던 도시나 국가를 지배하는 자는 이곳을 파괴해 버리든지 아니면 도리어 이들로 인해 파멸되고 미는 위기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는 자유란 이름 아래 또는 재래의 생활과는 다르다는 명목 아래 항상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세월이 흘러도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쉽사리 시민의 뇌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며, 군주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자유와 그 제도를 잊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반항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렌체 통치하에 100년이나 지내온 피사도 다시 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이다.<sup>1</sup>

1 피사(Pisa)는 1405년 이래 피렌체 지배 하에 있었으나, 1494년 프랑스의 힘을 업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와 비교하여, 군주의 지배 하에 살아온 지역의 주민은 그 군주의 혈통이 끊기면 복종하는 습관이 있는 데다가, 다른 누구를 군주로 추대할 수도 없으므로 무기를 들고 새로운 지배자에게 대들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자는 쉽게 그 지방을 통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정치를 해 오던 도시의 경우에는 사태가 달라, 시민들은 쉽사리 자유의 맛을 잊지 못하므로 새로운 지배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깊이 지니게 되어, 이런 경우에는 그 시민의 씨를 없애버리든가 군주 자신이 거기에 가서 직접 통치하는 길밖에 다른 안전책은 없다.



제 6 장

## 제6장

### 자기 무력과 역량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군주국

군주도 영토도 참으로 새로운 군주국에 관하여 말할 때 위대한 인물의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대부분 타인이 먼저 지나간 길을 따라 그 선인(先人)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의 인간은 선인의 길을 그대로 틀림없이 찾을 수도 없으며 그 선인들과 같은 높은 곳에 도달하지도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은 누구의 뒤를 따른다면 위대한 인물, 즉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뒤를 따라야 한다. 이는 자기의 역량이 그 인물에 도달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근처까지 가서 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똑똑한 궁수(弓手)가 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즉, 궁수가 활을 쓸 때 그 목표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활로는 도저히 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면 그는 목표보다 훨씬 높은 곳을 겨냥한다. 이는 그 높은 곳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리 높이 겨냥함으로써 가능한 한 그 목표 가까이 화살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새로운 군주국을 다스리는 일은 한마디로 새로운 군주의 역량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까지 군주가 아닌 자가 군주가 되었을 경우 운과 역량이 일을 처리해 나가므로 어느 정도 곤란은 감소하겠으나, 이 경우 운은 과도하게 좋아도 안 될 것이며 영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점령지에 이주하게 되니 일단 안심은 되는 것이다.

이 운수에 의하지 않고 자기 역량으로 군주가 된 인물들을 볼 때, 그 중 탁월한 인물을 듣다면 모세 · 키루스(Cyrus) · 로물루스 · 테세우스<sup>1</sup>를 예로 들 수 있다. 그중 모세는 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나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는 신의 은총으로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뽑힌 것만으로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인물들은 그들의 행동과 규율을 고찰할 때 위대한 신을 스승으로 가졌던 모세와 다름없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1 이 인물 중에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키루스만이 실제의 인물이며, 다른 세 사람은 신화적 인물들이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운수 면에서 볼 때 좋은 기회를 가졌었다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것이 없고, 이 기회는 그들에게 재료가 되었을 뿐 그 재료를 갖고 작품을 만든 것은 역시 그들 자신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회는 그들에게 위대한 정신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반면 이들에게 그러한 역량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회는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모세를 따라 출국한 사실 이면에는 이스라엘인들의 수난과 모세의 결의가 그 원동력이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로물루스가 로마의 국왕이 되고 로마 제국의 건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바(Alba)에 있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즉시 버림받은 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키루스 왕의 경우도 페르시아 인이 메디아(Media)의 지배에 불만스러워한 데다 또한 메디아 인이 오랜 태평시기로 인해 여성화된 것이 기회가 되었고, 테세우스도 분열된 상태의 아테네 인이 그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그들의 탁월한 역량이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조국은 영광을 찾게 된 것이다.

이들과 같이 자기들의 역량에 의하여 군주가 된 자들은 그 나라를 형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르게 되지만 일이 일단 성사된 후에 그 나라를 다스리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이 봉착하는 난점이란 새로운 국가에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확립한다는 것이 성공하기 힘들고 위험한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옛 질서 아래서 편히 살던 모든 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에는 소극적으로 따라올 뿐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집권층에 대한 의구심과 확신이 설 때까지의 새로운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불신 때문이다. 그러기에 완전히 적이 된 자는 맹렬히 군주를 공격하지만 위에서 말한 자들도 강력히 군주 편에 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과 함께 군주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위해선 개혁을 시도하는 군주가 과연 자력으로 하려 하는가 또는 제3자의 힘을 이용하려 하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즉, 원조 없이 자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목적 달성을 비판적이며, 자력에 의한 경우는 비교적 궁지에 몰릴 위험성은 적

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무기를 든 예언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음에 비해 말뿐인 예언자는 결실을 못 보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말할 것은 민중의 천성이란 변덕스럽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사유를 설득시키기는 용이하나 그 설득된 상태로 그들을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말로써 안 될 때는 힘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모세·키루스·테세우스·로물루스 등도 만일 그들이 무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들 그들의 율법을 오랫 동안 민중이 지키도록 하는 데 실패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보나롤라 수도사<sup>2</sup>의 예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의 말을 믿고 있던 민중이 이를 믿지 않게 되자 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제도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는 그가 한번 믿기 시작한 민중들을 무슨 방법으로라도 자기편에 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수단을 갖지 못하였던 탓이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커다란 곤란을 맛보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더 가중되는데 이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위기를 넘어서면 존경을 받게 되며, 자기의 능력을 시기하는 자들을 처치한 다음에는 세력이 강화되고 안정되어 명예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 실례로서 시라쿠사(Syracusa)의 히에론 왕<sup>3</sup>이 있는데, 그는 위의 예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응하는 점이 있기에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평민으로서 시라쿠사의 군주가 된 사람인데, 그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별 행운이 없었다. 그 기회란 시달림을 받고 있던 시라쿠사 인들로부터 그들의 대장으로 뽑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군주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는 평민 때부터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었으며 “이 왕에게 만일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다스릴 나라가 적다는 것뿐이다”<sup>4</sup>라고 어떤 역사가가 말하였을 정도이다. 그는 새로운 군사제도를 확립하였고, 새로운 우방을 맺어 이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즉, 그는 나라를 손에 넣기까지는 여러 가

2 피렌체에 신정정치를 주장한 광신적인 성직자로서 후에 화형(火刑)당한다.

3 시라쿠사에서 (B.C. 3세기) 선정(善政)을 베푼 히에론 1세를 말함.

4 도리구스의 『페리피카의 역사(歷史)』에서 인용.

지 시련을 겪었어도 일단 자기 손에 들어온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다지 큰 각고(刻苦)가 필요없었던 것이다.

제 7 장

## 제7장

### 타인의 무력과 운으로 얻은 새로운 군주국

일개 평민으로부터 다만 운수가 좋아 군주가 된 자는, 군주의 지위에는 쉽게 오를 수 있어도 다스리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시련을 겪을 것이다. 즉, 그는 거저 그 자리를 얻은 것과 같으므로 그 과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면 사태는 달라진다. 이것은 또한 금전에 의하거나 타인의 호의로 군주가 된 자들도 동일하다. 이와 같은 예는 그리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오니아(Ionia)와 헬레스폰트(Hellespont)의 도시국가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그의 안전과 영광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도시의 사람들 중에서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 또한 군대의 부패로 인해 지배자의 자리에 오른 황제들<sup>1</sup>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자들은 다만 그들에게 나라를 넘겨준 자들의 호의와 행운 덕분으로 그리된 것이니, 이 두 가지 모두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이 자들은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것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재질을 갖고 민중을 영도하는 재주가 없다는 뜻이며, 그에게는 자기편을 만드는 재능이나 충성을 바치는 군대가 없기에 그 나라를 유지 못하게 된다. 그러기에 돌연히 생겨난 국가란 마치 땅 위에 솟아나자마자 너무 급속히 자라 차분히 뿌리를 뻗고 가지가 자라기도 전에 처음 닥치는 악천후에 쓰러져 가는 식물과도 같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별안간 군주가 된 자는 굴러들어온 호박을 간직하자면 속히 대책을 세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다른 군주가 미리 마련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군주가 된 후에 속히 갖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군주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즉 자기 역량에 의한 것과 단순히 운수에 의한 것의 두 가지 실례(아직 현대인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는)를 들기로 한다. 그 예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체자레 보르지아의 이야기인데, 전자는 적절한 평가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한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밀라노 군주가 되었고, 따라서 그가 권력을 손에 쥐기까지 너무나도 고생하였지만 그 후로는 그

1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서부터 막시미니우스까지의 황제들.

다지 큰 곤란이 없었다. 그와 반대로 발렌티노 공이라 불리는 체자레 보르지아는 그의 부친<sup>2</sup>의 덕으로 나라를 얻기는 하였어도 바로 운수가 사나워 그 나라를 놓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려깊고 능력있는 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즉 타인의 무력과 운수 덕분으로 얻은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팽창을 위해 해야 될 일을 모두 하면서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다. 모름지기 인간은 일찍부터 기초를 닦아야 하며 뒤늦게 그것을 마련하려면 몇 배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나마 건축가로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건물 자체도 튼튼한 것이 못 된다.

여기서 발렌티노 공이 취한 발자취를 고찰하면 그는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훌륭한 기초를 닦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 생각으로는 새로운 군주로서 그 이상 본받을 만한 실례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논하는 것도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 불행히도 그는 결국 실패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탓은 아니고 운수가 최고로 나빴기 때문이었다.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자기 아들인 발렌티노 공을 출세시키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당장 또는 장래에도 많은 적이 있을 것을 알아차렸다. 제일 먼저 교황령의 일부 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그를 군주로 앉힐 만한 곳이 없었으며, 다른 교회 영지를 빼앗으려 해도 밀라노 군주와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를 묵인할 리 만무했으며, 파엔차(Faenza)와 리미니(Rimini)는 별써 베네치아의 보호 하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교황이 그밖의 이탈리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은 바로 교황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오르시니(Orsini)와 콜론나(Colonna)의 양가<sup>3</sup>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방법은 이런 기성 질서를 혼들리게 하고, 이여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뿐이었다. 이 때 마침 베네치아가 다른 이유로 프랑스 군을 또다시 이탈리아로 끌어들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었기에 여러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교황은 베네치아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루이 왕에게 이혼을 허가함으로써 이 일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프랑스 군은 베네치아와 교

2 교황 알렉산더 6세.

3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로마의 양대 세력.

황의 지원을 얻어 이탈리아에 침입하였는데, 루이 왕이 밀라노를 점령하자 교황은 곧 그 병력을 빌려 로마냐 지방을 손에 넣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 지방세력도 상대방의 힘에 눌려 손을 들고 나섰다. 그리하여 발렌티노 공은 로마냐 지방을 점령한 다음 콜론나 가(家)를 쳐부수고 그 영토를 점유하여 다시 세력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그때 그에게는 두 가지 뜻하지 않았던 장애가 나타났다. 그 하나는 그가 이끄는 군대의 충성심에 관한 의심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진의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그가 신임하고 있던 오르시니 계(系) 군대의 성의가 흐려짐에 따라 점령지마저 빼앗기지 않나 하는 의심과, 또한 루이 왕에 대해 이와 동일한 걱정이 앞서게 된 것이다. 오르시니 계의 군인들은 볼로냐(Bologna) 공략에 나섰을 때 그 공격 태도에서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 냉담한 것을 느끼게 했는데 이것이 위에 말한 걱정의 원인이 되었고, 루이 왕의 경우에는 우르비노(Urbino)를 점령한 뒤 토스카나로 쳐들어가려 할 때 그가 공격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됨으로써 그 진의에 의심을 갖게 된 것이다. 거기서 발렌티노 공은 이제부터 타인의 무력이나 운수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깨닫고, 먼저 로마에서 오르시니와 콜론나 양가에 붙어 있는 지지자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 자기편에 서게 하고 그들의 소질에 따라 군사 또는 정치 임무를 주는 등 후대하여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힘을 약화시켰다. 이 귀족들은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옛 주인과 당파를 깨끗이 잊고 그에게 도취되고 말았다. 그 다음 발렌티노 공은 콜론나 가의 두목들을 분열시키고 오르시니 가에 대해서도 같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오르시니 가 사람들은 교황과 발렌티노 공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페루지아(Perugia) 근방의 마조네(Magione) 촌락에서 밀회<sup>4</sup>를 가졌다. 이후 발렌티노 공의 여러 점령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는 큰 위협을 겪게 되나 프랑스 군의 힘을 빌려 이를 진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다시 권력을 확립한 발렌티노 공은 더 이상 외부 세력의 힘을 빌리는 것을 피하고 이후부터는 간계를 쓰기로 하였다. 즉, 그는 교묘히 그의 진심을 숨기고 오르시니 가쪽에서 제의한 화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을 안심

4 오르시니 사람들이 보르지아를 막기 위해 여러 도시국가와 동맹을 맺었다.

시켜 놓은 다음 드디어 시니갈리아(Sinigaglia)<sup>5</sup>에서 참변을 일으키고 만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두목들을 쳐부수고 남은 귀족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도록써 발렌티노 공은 전(全) 로마냐 지방의 지배자가 되는 데 성공하였고, 특히 그 지방민들이 새로운 복지정책에 환성을 올립으로써 그는 민심을 장악하고 훌륭한 자기 세력이 생겼다고 믿게 되었다. 그가 이 지방민을 위해 한 일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타인들도 모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즉, 로마냐 지방을 장악한 발렌티노 공은 그때까지 그 지방을 지배해 온 자들이 무능하기 짹이 없어 민중을 올바르게 다스리기는커녕 약탈 대상으로 삼았고 단결보다 분열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방에서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고 갖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무질서를 바로잡아 평화를 되찾고 군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량한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비정한 인간이지만 재치있는 레미로 데 오르코<sup>6</sup>에게 정권을 주어 그 지방에 파견하였는데, 그는 단시일 내에 평화를 회복하는 질서를 확립하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 후 그의 너무나 큰 권한이 민중의 반감을 살 염려가 있다 하여 그의 권한을 약화시키기로 생각하고, 곧 그 영내에 민사재판소를 두어 유능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각 지방에서 선출된 변호사를 두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너무나도 냉혹한 정치에 대한 반감을 무마시키고 민심을 되찾으려 하였으며, 그때까지의 모든 비행은 자신의 짓이 아니고 오르코의 짓이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었고, 드디어 그는 기회를 잡아 체제나(Cesena) 시 광장에 두 토막으로 된 오르코의 시체를 피문은 칼과 함께 매달아 놓았다. 이 참혹한 광경은 민중의 울분을 풀어 주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면, 발렌티노 공은 이렇게 하여 충분히 강력해지고 자기를 공격할 위험성이 있는 이웃은 모두 쳐부수었기에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며, 계속하여 정복을 하기에 걸리적거리는 유일한 존재는 루이 왕 밖에는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루이 왕이 늦게나마 그의 과오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5 보르지아 가(家)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했다.

6 로마냐 장관으로 있다가 반란죄로 처형되었다.

의 원조는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새로운 지원자를 찾아내어야 했고, 이 때문에 프랑스 군이 가에타(Gaeta) 공격 중에 에스파냐 군대를 향해 나폴리 왕국으로 쳐들어 갔을 때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는데, 만일 알렉산더 교황이 생존하였더라면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였으나, 미래의 일에 관해서는 로마 교회의 새로운 지배자가 자기의 편이 되리라고는 믿지 않고 도리어 그의 것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계획하였다. 첫째로 모든 영지 지배자들의 협통을 균절시켜 교황이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으며, 둘째로는 상술한 대로 로마 귀족들을 자기편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교황을 견제케 하며, 셋째로 초기경 회의를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황이 생존 중에 충분한 노력을 구축하여 독자적 힘으로 차후 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상 네 가지 정책 중 아버지인 알렉산더 교황의 생존 중에 이미 세 가지는 달성되었고 네 번째의 정책도 거의 달성되어 가고 있었다. 즉, 그는 점령한 모든 지방의 지배자 가족을 거의 살해하였고, 로마 귀족은 그의 손에서 놀아났으며, 초기경 회의도 과반수를 지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토에 대한 정복도 순조로운 토스카나를 지배하려는 그의 꿈이 실현 직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나폴리에서 패배한 프랑스 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었기에 그는 피사를 점령했고, 루카(Lucca)와 시에나(Siena)도 그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피렌체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에 그에게 항복하고 이제 피렌체만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알렉산더 교황이 죽을 때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그의 확장정책이 끝까지 성취되었다면 그는 많은 세력과 명성을 확보했을 것이며, 그리 되었을 경우 그는 더 이상 운명이나 타인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버티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칼을 뽑은 지 5년 만에 알렉산더 교황이 죽으니 이제 그에게는 로마나 영토만 확립되었을 뿐 나머지 영지는 적대하는 프랑스와 에스파냐 양대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허공에 뜨게 되었고, 거기다 그 자신도 중병

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용맹심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민중을 다스리는 또는 쳐부수는 재주를 가졌으며, 그러기에 당시 일 내에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를 공격한 것이 강대국이 아니고 또한 그의 건강이 양호하였다면 그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기초작업이 얼마나 홀륭했던가는 다음 사실로써 알 수 있다. 즉, 로마냐 속민들은 1개월 이상이나 아무 반란 없이 그가 재기하는 것을 기다렸으며 로마에서도 그가 다 죽어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또한 발리오니 가(Baglioni 家), 비텔리 가(Vitelli 家), 오르시니 가의 부하들이 로마에 침입하였으나 그들의 반란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으며, 그가 원하는 인물이 다음 교황으로는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와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그 자리에 앉히게는 하였다. 그러기에 알렉산더 교황이 죽었을 때 그가 건강하기만 했다면 그에게 아무 타격이 없었을 것이다. 율리우스 2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날 그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즉 그는 알렉산더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았었는데, 마침 그가 죽게 될 때 자기도 같이 죽을 운명이란 것만은 예견 못 했다는 것이다. 그의 정책을 볼 때 나는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 도리어 상술한 바와 같이 운수나 타인의 무력으로 군주가 된 자들이 반드시 추종해야 될 인물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그 이유는 그의 인간됨이 크고 높은 뜻을 지향하였으며 그가 취한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좌절시킨 것은 그의 부친의 단명과 그의 병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군주국을 적으로부터 방비하는 것, 자기편을 늘리는 것, 힘 또는 속임수로 승리를 거두는 것,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으나 또한 두려워하게 하는 것, 병사에게 명령을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존경을 받는 것, 군주에게 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자들을 말살하는 것, 낡은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 엄격하면서도 정중하고 관대하며 능란한 것, 불충실한 군대를 폐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는 것, 왕이나 영주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도록 하고 그들을 해칠 때는 은근히 하도록 친교를 맺는 것, 이 모든 너무나도 생생한 실례는 다른 사람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가 실수하였다면 율리우스를 교황으로 선출한 것뿐인데,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는 그가 원하는 이를 교황 자리에 앉히지는 못 했지만 반대하는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해를 끼칠 인물이거나 또는 교황이 되면 그를 두려워할 자가 교황 자리에 오르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포심 또는 미움으로 인하여 해를 끼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해를 끼친 자들이란 빈콜라 가(家)의 산 피에트로 · 콜론나 · 산 조르지오 · 아스카니오 등이며 그 외에도 대부분 교황이 되면 그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다만 예외로 루앙의 추기경과 에스파냐 출신 추기경이 있었는데, 후자는 혈연 관계 상<sup>7</sup> 또는 은의 상 아무 일 없었으며, 전자는 프랑스 왕이 뒤에 있기에 그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가능한한 에스파냐 출신을 교황 자리에 앉게 해야 했으며,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루昂 추기경을 추대해야지 율리우스를 인정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위인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사무친 상처가 새로운 은의로 깨끗이 아문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며, 바로 여기에 발렌티노 공은 과오를 범하여 파멸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었다.

7 보르지아 가(家) 사람으로 에스파냐 출신이다.

제 8 장

## 제8장

### 비행(非行)으로 지배자가 된 군주

일개의 평민으로부터 군주가 되는 방법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운수나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둘 중 하나는 공화국을 논할 때 더욱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란 도리에 어긋나고 모독적인 방법으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한 시민이 동료 시민들의 지원으로 군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대와 현재의 두 가지 실례를 들어 말하고자 하는데, 이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론보다 모방이 더욱 간편하기 때문이다.

시칠리아의 아가토클레스<sup>1</sup>는 천한 신분의 평민으로부터 일약 시라쿠사의 왕위에 올랐는데, 오지그릇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일생 동안 비행(非行)을 일삼았다. 그러나 그런 비행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심신 양면의 역량이 있어 그가 군대에 들어가자 순조롭게 사령관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이렇게 지위가 안정된 후에는 그는 모든 것을 폭력으로 자기 손에 쥐려고 마음먹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칠리아 군대와 협상하여 전쟁을 수행하려 온 카르타고의 하밀카르(Hamilcar)와 음모하여 어느 날 아침 국정에 관한 중요한 심의가 있다는 구실로 시민과 원로원 의원들을 소집하고, 계획대로 모든 의원과 부유층 인사를 학살한 후 시민의 저항도 받지 않은 채 군주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두 번이나 카르타고 군대에 패하고 결국에는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도시를 방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으로 방비에는 일부 군사만 남겨 놓게 하고는 잔여 군대로 하여금 아프리카 본토로 쳐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되자 도리어 카르타고 군은 궁지에 몰려 화해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결과 카르타고는 시칠리아에서 손을 떼게 되어 아가토클레스에게 지배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의 행동과 용맹을 숙고한 사람이라면 행운의 소치로 돌릴 만한 것이 거의 없다

1 아가토클레스(Agathocles, B.C. 361~289)

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군대에서 세력을 쌓았고 마침내 군주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후에도 줄곧 대단한 용맹과 무모함으로써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을 학살하고, 자기편을 배신하고, 신의나 자비심이나 종교심을 저버린 그의 행위는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권력을 누릴 수는 있으나 영광을 차지할 수는 없으며, 그가 위기에 뛰어들어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보여준 기개나 역경을 이겨내는 데서 볼 수 있는 용맹성은 다른 무장(武將)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지만, 반면에 그 수없는 비행과 무자비한 잔악성 · 인도성은 그를 명사의 대열에 끼지 못하게 한다. 그에게 있어 운수나 역량이란 것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무관심한 것이었다.

현재의 예로서는 알렉산더 교황 치하, 페르모의 올리베로토<sup>2</sup>가 있는데 그는 어려서 부친을 잃고 외삼촌인 조반니 폴리아니(Giovanni Fogliani) 밑에서 양육되고, 청년이 되어서는 비텔리 가(家)의 파올로<sup>3</sup>에게 보내져 훈련을 받아 군인이 될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파올로가 사망하여 그의 동생 밑에서 일하였는데, 그는 재치가 있고 용맹스러웠기에 거기에서 제일가는 군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조국의 자유보다 노예상태를 원하는 페르모의 몇몇 시민의 협력과 비텔리 가의 원조를 얻어서 페르모를 점령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외삼촌에게 서신을 보내, 고향을 오래 떨어져 있으니 돌아가고 싶고 또한 삼촌도 만나보고 싶으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할 기회도 갖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그때까지 노력한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 명예를 걸고 그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그러기에 친구와 부하를 백 명쯤 이끌고 당당히 방문하고 싶으니 시민들에게 정중히 이 방문을 받아들이도록 주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노라고, 또한 그렇게 하면 그의 명예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명예도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외삼촌은 조카를 위해 정성을 다하였고 시민들도 그를 정중히 맞아들였다. 그는 수일 간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간계를 꾸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어느날 그

2 올리베로토 유푸레두치를 말하며, 이 사건은 1501년 12월에 발생.

3 15세기 후반에 활약한 전형적인 용병 대장.

시의 상류 인사를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어느덧 음식이 들어오고 여홍도 끝날 무렵 그는 화제를 알렉산더 교황과 그의 아들 보르지아의 비범한 활동에 관해 돌리자, 모두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장내가 소란해졌다. 그러자 그는 별안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이야기는 화제의 성격상 비밀 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면서 다른 방으로 물러나니 모두들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방에 다 들어가자마자 숨어 있던 그의 부하들이 뛰어 나와 그들을 모조리 살해 하고 말았다. 암살을 마친 그는 말을 타고 전시내를 돌아다니며 나머지 책임자들을 협박하니, 시민들은 공포에 못 이겨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정부를 꾸미고는 불만분자는 모조리 살해하고 새로운 민정과 군제를 실시하여, 1년이 안 돼 안전한 기반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이웃나라 모두가 두려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보르지아가 시니갈리아에서 오르시니 가와 비텔리 가의 여러 사람을 처형할 때 올리베로토가 그의 간계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아가토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실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는 존속살인으로부터 1년 후 시니갈리아에서 그에게 나쁜 치혜를 가르쳐준 비텔로초(Vitellozzo)와 함께 교살당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아가토클레스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배반과 참혹한 짓을 일삼아 왔는데도 이들이 각기 평안히 지낼 수 있었고, 외적을 막아내며 신민들의 반란이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보통 대다수의 지배자는 잔악하면 전시는 물론이거나 평화시에도 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들은 어찌하여 성공하였을까 하는 의심이 갈 수도 있다. 이 차이의 원인은 바로 그 잔악성이 서투르게 사용되는지 교묘하게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악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는 말이 사용될 수 있다면, 잔악성이 훌륭히 사용됐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상 한 번은 그렇게 행사하였지만 필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부하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서투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시종일관 잔악성을 나타냈을 경우를 뜻한다. 전자의 방법을 존중하는 자는 아가토클레스처럼 신과 민중의 도움으로 국가를

잘 보존하게 되며, 후자의 방법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점에서 어느 나라를 뺏는 정복자는 참혹한 가해행위를 여러 차례 행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치르도록 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인심을 수습하고 은혜를 베푸는 듯이 하여 민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겁쟁이 노릇을 하든지 그릇된 의견으로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자는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잔악성이 계속되면 부하들도 군주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런 부하를 군주는 믿을 수 없게 된다. 요컨대 가해행위는 한꺼번에 해치워야 되며 길게 끌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노기를 짧게 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베푸는 은혜는 민중이 오랫동안 음미하도록 조금씩 나눠 주어야 한다. 또한 군주는 신하들과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무슨 일이든 우발적인 사태로 신하들의 행동이 빗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긴급히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한다면 이미 때가 늦기 일쑤이며, 그때 도리어 은혜를 베풀면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아무 힘이 되지 못하며 아무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제 9 장

## 제9장

### 시민형 군주국

여기서는 극악무도한 악인이 허용될 수 없는 배반과 폭력 행사로 군주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후원으로 군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자 하는데, 이는 소위 시민형 군주국이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에서 군주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운수나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며 운수를 잘 이용하는 재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하간 여기서 군주가 되는 길은 민중의 지지를 얻는 경우와 귀족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민중은 귀족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귀족은 민중에게 그들의 권력을 발휘하려 하기에 여기 양자의 대립이 당파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른 욕망이 원인이 되어 각 도시는 군주제 또는 공화제,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sup>1</sup> 등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군주제란 민중 또는 귀족 중 어느 파가 그 기회를 잡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귀족들은 자기들이 민중의 힘을 견디기 어렵게 될 경우 동료 중의 한 사람에게 명성을 집중시켜 그 인물을 군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자신들은 이 군주의 그늘 밑에서 각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반대로 또한 민중들도 귀족들에게 못 당할 것같이 느껴질 때는 자기들 중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높여 그를 군주로 치켜세우고 그 권력 밑에서 보호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귀족의 지지를 얻어 군주가 된 자와 민중에 의해 선출된 군주를 비교해 볼 때, 전자가 군위(君位)를 유지하는 데 더욱 큰 곤란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귀족 출신의 군주는 스스로를 군주와 동등시하는 여러 귀족들에게 둘러 싸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군주는 자기 뜻대로 명령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민중 출신의 군주는 비교적 독립된 입장에 있게 되며, 주위에는 복종심이 없는 자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하더라도 극히 소수일 것이다. 또한 귀족의 욕망을 채워주려면 공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제3자를 해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데 비해 민중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 이는 민중의 원하는 바는 귀족의 그것에

1 무질서는 중공정치(衆恐政治)를 말함.

비해 너무나도 온당하며, 귀족은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데 비해 민중은 다만 억압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중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다수를 적으로 돌리는 군주는 안전할 수 없으며, 반면 귀족은 소수이므로 안심할 수 있는 상대이다. 군주가 민중을 적대시할 경우 거기서 오는 최악의 사태란 민중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인데, 만일 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또는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 할 것은 없다. 그 이유는 귀족이란 눈치가 빠르거나 비겁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빨리 승산이 보이는 쪽을 편들기 때문이다. 또한 민중이란 상대는 군주 마음대로 바꿔칠 수는 없어도, 귀족은 군주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귀족이 아니더라도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귀족에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이다. 즉, 상대하고 있는 귀족이 군주와 전적으로 운명을 같이 할 인물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그가 군주와 끝까지 같이 행동할 사람이면 그를 칭찬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충성심이 약한 귀족은 다음 두 가지 태도를 구별해서 취급해야 한다. 즉, 그 중 하나는 소심한 자들로 원래 결단심이 결여되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은 등용하여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자들이며 학식이 많을수록 더욱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군주가 흥할 때는 그들은 군주를 더욱 따를 것이며, 반대로 군주가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야심이 있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은 경계해야 되며 적과 동일시해야 된다. 이들은 역경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군주를 망하게 하는 편에 서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민중의 지지로 군주가 된 자는 항상 민중을 자기편에 잡아두어야 하며, 민중은 억압당하는 것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민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귀족의 힘을 입에 군주가 된 자도 먼저 민심을 자기편으로 돌리도록 노력해야 되며 이는 민중의 보호자로서 행동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히 이루어진다. 사실 인간이란 자기에게 해를 끼치리라고 생각했던 이로부터 도리어 은혜를 받게 되면 보통으로 은혜받는 것 이상으로 그것에 감사를 느끼

는 것이다. 또 민중은 원래 자기들의 지지로 군주 자리에 오른 군주에게보다도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타 군주가 민심을 장악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법칙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군주는 항상 민중을 자기편으로 잡아두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역경에 이르러서 구제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스파르타의 군주 나비스<sup>2</sup>는 그리스 군과 상승 로마군의 포위를 잘 견디어 그의 조국을 지키기에 성공했는데, 이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소수자들로부터의 위협만 제거하면 되었고 또한 그가 평상시 민중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았던들 사태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의견에 대하여 “민중을 토대로 삼는 것은 진흙 위에 터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케케묵은 속담으로 반박할지 모르나 그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 이는 다만 한 시민이 적이나 고관에게 눌려 민중과 함께 궐기했을 때 진흙 위에 터를 잡은 민중들을 믿고 그들이 자기를 구해 주리라고 믿을 때엔 적합한 말인데, 예를 들어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나 피렌체의 조르지오 스칼리<sup>3</sup>의 경우와 같이 뒤늦게 민중에게 속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군주가 민중 위에 토대를 구축하고 이들을 능히 지휘하며, 용기백배하여 불운에도 굴하지 않고 만반의 태세를 취하여 단호한 결의와 행동으로 민중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들에게 속는 일이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이미 확고부동한 터전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군주는 민주제에서부터 전제체제로 변천하려 할 때 위기에 부닥치게 되는데, 보통 전제체제에서는 군주가 직접 정치를 하든가 또는 여러 대신을 통해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 군주의 입장은 더욱더 불안정하며 위험한데, 이는 군주가 대신에게 휘말려드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며, 대신은 군주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면 반항과 불복종을 일삼고 심지어는 군주 자리까지도 염보는 것이다. 거기마다 군주는 역경에 처했을 때 절대적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되며, 오랫동안 대신의 말만 들어온 민중들은 어려운 경우에는 군주의 말을 들으려 하지

2 나비스(Nabis) : 스파르타의 전제군주로서 기원전 206~192년까지 군림하였다.

3 피렌체에서 1378~1382년 사이에 일어난 치옴피 난(亂)의 지도자.

않는다. 그러기에 이런 경우 군주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극소수임을 깨닫게 되니, 군주는 민중들이 평화시에 자기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을 겉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화시에는 어느 누구나 충실하며 헌신적이기 때문에 죽음이 저 멀리 있을 때에는 모두가 생명을 바치는 듯하지만 막상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군주가 정말 필요할 때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경험하는 그 자체가 위험천만한 것으로, 일생에 한 번만으로 족할 것이다.

그러기에 현명한 군주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민중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민중은 군주에 대해 항상 변함없는 충성을 바칠 것이다.

제 10 장

## 제10장

### 군주국의 국력 추정

군주국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이는 어떤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주가 자력으로 그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나라인가 또는 제3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인가의 문제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주란 풍부한 인력자원과 재력을 갖고 충분한 군대 조직을 소유함으로써 어떠한 외적과도 야전(野戰)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반해 제3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군주는 적과 야전으로 맞서지 못하여 성내에 머물러 적의 공격을 맞아 수세(守勢)로 나가는 자를 뜻한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다시 언급하겠지만, 후자에 관하여는 여기서 조언하고자 한다. 먼저 군주 자신이 사는 성의 방비를 견고히 하며 필수품을 비축할 것, 다음으로 성 밖의 영지에 관하여서는 신경을 쓰지 말 것이다. 여하간 성 안의 방비를 충분히 하고 신하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은, 또한 이후에 언급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면 공격하는 측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다. 인간의 상식으로 실행하는 데 대단한 곤란이 부수되는 계획은 포기하기 마련이며, 그러기에 그 성의 방비가 견고하고 민중의 원한도 받지 않고 있는 군주라면 쉽사리 공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독일의 여러 도시는 대단히 자유스럽고 시에 속하는 속령도 많지 않으며, 자기들 편의상 황제에 복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황제나 인근의 유력한 군주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도시들은 견고한 성벽으로 방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도 용이하게 함락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도시들은 필요한 해자(核字)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포도 부족없이 준비되어 있고, 1년분의 식량 · 연료 · 식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거기마다 하류계층 사람들이 국가의 부담 없이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1년분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그 도시의 활력소이며 동시에 생명이고, 하층민들에게는

생활수단인 것이다. 거기마다 군사훈련이 중요시되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위에 말한 것을 종합한다면 견고한 성(城)을 갖고 거기다 민중으로부터 미움 받지 않는 군주는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또한 만일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공격자는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일이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군대를 이끌고 1년이라는 오랜 시일 동안 한 성지를 포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 성안의 사람 중에서 성 밖에 재산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지 못하게 될 것이라든지, 또는 장기간에 걸친 농성자의 사욕으로 군주 따위는 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능력과 용기를 갖춘 군주는 신하에 대해 그 재난이 오래 갈 것이 아니라고 설득할 수 있고, 또는 적의 잔악성에 대한 공포심을 돋구어 주며 때로는 궤도를 벗어나기 쉬운 부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며 이런 난관을 반드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적군은 포위망을 치면 그 주변의 모든 부락을 약탈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나 성 안에서는 방위심을 드높이며 의욕이 넘치기에 처음에는 군주가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 후 시기가 지나면 공격으로 인해 벌써 성민(聖民)들은 타격을 받기 시작하여 이를 피할 길은 없어지고 집과 재산이 다 없어짐에 이르러서 성민들은 그들의 이러한 희생이 군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군주가 반드시 자기들에게 그 은혜를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믿게 됨으로써 더욱더 군주와 단결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란 그 성격상 은혜를 베풀어도 또 그것을 받아도 의리를 느끼게 되는 법이니, 만약 성이 포위되더라도 식량만 충분히 비축해 놓고 적절히 방비한다면 성민의 인심을 장악하는 것은 현명한 군주로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제 11 장

## 제11장

### 교회국가

이제 교회국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 경우에 곤란한 것은 국가를 소유하는 그 과정에 있지 일단 소유한 후에는 그것이 역량으로 이루어졌건 또는 운수로 이루어졌건 그것을 유지하기란 용이한 것이다. 즉, 이러한 국가에서는 종교에 근거를 둔 강력하고 특색 있는 옛 제도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군주가 어떤 생활을 하든 그 나라는 유지된다. 이 군주는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나 방비할 필요도 없고 신하를 애써 다스리지 않아도 되며, 국토는 방비가 약하다 하여 빼앗길 염려도 없고 민중도 정치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그들은 군주에게 반항할 생각도 않고 또한 그럴 힘도 없으며, 따라서 이런 국가는 태평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교회국가는 인지(人知)가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사유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논할 수 없으며, 신에 의해 건립되고 유지되는 나라이 만큼 이를 논하는 것은 불손하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소행일 것이다.

그러나 교회세력이 어찌 그렇게까지 강대해졌느냐고 묻는 이가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권력자들은 군주나 봉건귀족보다 알렉산더 교황이 출현할 때까지 로마 교회의 세속권을 너무 경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교회국가가 프랑스 왕도 놀라게 하고 나아가 이를 추방하여 베네치아 공화국마저도 없애 버릴 정도로 강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이미 논한 바 있으나 여기서 주요한 점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에 넘어오기 전에 이탈리아는 교황과 베네치아 공화국, 나폴리 왕, 밀라노 공,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 하에 있었다. 이들에게는 당시 심각한 기우가 있었는데, 이는 어느 외부세력이 침입하지 않을까,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나라가 영토확장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 대상이 되었던 것이 교황과 베네치아 공화국이었는데, 특히 베네치아를 눌러두기 위해서는 페라리를 방위할 때 여러 나라가 결속하였듯이<sup>1</sup> 단결이 필요하였다. 또

1 베네치아는 1483년 페라리를 차지하려 했으나 다른 도시의 동맹으로 좌절됨.

교황을 누르기 위해서는 로마 귀족들을 잘 조종해야만 했다. 이들은 콜론나 가(家)와 오르시니 가로 분열하여 대립하고 있었는데, 교황의 면전에서도 칼을 들고 싸울 정도로 이들은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때로는 시스투스(Sixtus) 4세 같은 과감한 교황이 궐기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행운도 재능도 교회령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의 원인에는 교황의 단명(短命)도 포함되는데, 교황의 평균 재위 기간은 10년 정도로서 이 짧은 기간에 어느 누구를 제압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예를 들어 오르시니 계의 한 교황이 콜론나 가를 거의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하여도, 다음에는 반대파의 교황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며 이 양대 세력은 그냥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탈리아에서는 교황의 세속권은 거의 무시당하여 왔으나, 알렉산더 교황이 출현하면서 금전과 무력을 교황이 갖게 되면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역대 교황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발렌티노 공을 앞세운 프랑스 군 진출이라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앞 장에서 말한 대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알렉산더 교황의 진의는 교회국가보다 발렌티노 공의 세력을 강력히 하는 데 있었으나, 교황과 발렌티노 공이 사라진 후 고통받게 된 것이 교회였음을 볼 때 교황의 뜻과는 달리 이 사건으로 교회세력이 강대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 후 율리우스 교황이 나타나 교회는 한층 더 융성하게 되어 로마냐 전 지방을 지배하고 로마 귀족들과 그 당파도 무력화시켰으며, 알렉산더 교황이 전에는 갖지 못했던 축재의 수단<sup>2</sup>도 갖게 되었다. 율리우스는 이렇게 그의 전임자의 행적을 뒤따랐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볼로냐를 점령하고 베네치아를 쳐부수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군을 축출하는 데 거의 성공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율리우스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이런 세력 팽창을 시도하였기에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다.

오르시니와 콜론나 양가는 이미 세력이 꺾여진 상태에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 양가에도 개혁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다음 두 가지 이유

2 고위 성직 매매로 재력(財力)을 모으는 것.

로 성공하지 못했다. 즉, 그 하나는 로마 교회 세력이 너무나 강대해져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다음으로는 두 당파의 싸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추기경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자들이 있는 한 양 당파는 항상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들이 로마内外에서 자기 파를 키워 왔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 두 파 가운데 어느 쪽인가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귀족들 사이의 분쟁과 알력은 고위 성직자들의 야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다.

이런 결과로 레오 10세<sup>3</sup> 교황께서는 현재와 같이 강력한 교회국가를 갖게 되었으며 이제 다른 교황들이 무력으로 교회국가를 번영시켰으니, 교황께서는 어질고 옳은 마음과 덕성으로 이 나라를 더욱 번영케 하신 모든 이의 존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大) 로렌초의 차남으로 1513년 교황이 됨.



제 12 장

## 제12장

### 군대의 종류와 용병군

서두에서 내가 논하고자 한 바 군주국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며, 각국에 있어서의 장단점과 그 원인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또한 이런 국가를 정복하고 유지하려 할 때 여러 군주들이 취한 태도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이제 이 문제와 연관된 일로서 어느 군주국이나 해당되는 공격과 방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군주에게 있어 국가의 토대를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이를 소홀히 한 군주국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데 예로부터의 군주국이든 복합형 국가이든 또는 신생 군주국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토대란 바로 좋은 법률과 훌륭한 무력인 것이다. 훌륭한 무력이 없는 곳에 좋은 법률이 있을 수 없고, 훌륭한 무력이 있어야 좋은 법률이 있기 마련이기에 법률 이야기는 생략하고 무력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군주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갖출 수 있는 무력은 본국 군대, 용병대, 외국 원군, 또는 이런 것을 혼합한 혼성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용병대와 외국 군대는 백해무익하다. 즉, 어느 군주가 용병에 의해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면 장래에 있어서의 안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용병이란 통솔하기 어렵고 야심적이며, 규율이 없고 충성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맹한 것같이 보이나 적중에 들어가선 비굴하기 짹이 없으며, 신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에 대한 신의도 없기에 전시에는 아무 소용 없으며, 평상시에는 그들에게, 전시에는 적에게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용병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급료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나 감정은 없다. 그런데 그 급료는 죽음을 각오할 만한 큰 액수도 아니므로 그들은 전쟁이 없는 동안에는 군주에게 충실하기를 원하나 일단 전쟁이 터지면 도망치고 만다.

이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현재 이탈리아의 몰락은 오랫동안 바로 이 용병을 믿어온 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용병들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고 용맹스럽게 보였으나, 일단 외국군이 침입하자 그 정체를 드러내어 프랑

스의 샤를 왕은 백묵 한 자루<sup>1</sup>로 이탈리아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떤 이는 그 책임이 이탈리아인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실이나, 원인은 바로 내가 언급한 데 있었던 것이다. 그 책임은 바로 군주에게 있었고, 그러기에 벌 받는 이도 바로 군주 자신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종류의 군대가 갖고 있는 결함을 더욱 명백히 하고자 한다. 먼저 용병 대장인데, 이 자리에 오르는 인물은 탁월한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다. 탁월한 자가 대장일 경우에 그는 고용 군주에게 위압적인 존재가 되어 군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일쑤이며, 반드시 자기 개인의 이해를 앞세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실력없는 대장은 그 군주를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일단 무기를 손에 쥐면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나는 군주 또는 공화국은 군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그 답을 대신하겠다.

군주는 스스로 자기 군대의 최고 통수(統帥)로서 행세해야 되며, 공화국에서는 그 시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 이 자가 무능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다른 자로 대체시켜야 하고, 반대로 유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목적에 서 이탈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자립하고 있는 군주국이나 군비(軍備)를 갖춘 공화국은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걷고 있으나 용병대를 둔 곳은 반드시 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화국에 있어서도 자기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외인부대를 갖고 있을 때보다 한 시민이 독재로 치닫는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로마와 스파르타는 군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던 편으로 자유스러웠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였다. 용병을 가졌던 고대국가로는 카르타고가 있는데 거기선 지휘관이 본 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의 제1차 전쟁이 끝난 후부터 용병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마케도니아의 필립은 에파미논다스 왕의 사후 테베 시민에 의해 추대되어 그 대장이 되었으나 그 후 그는 시민들의 자유를 약탈하고 말았다. 또한

1 샤를 왕의 이탈리아 전쟁은 백묵전쟁(白墨戰爭)이란 별명이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을 백묵으로 그어 놓기만 하면 아무 저항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밀라노 시민은 필립 공<sup>2</sup>이 사라진 후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채용하여 베네치아에 대항하도록 하였으나 그는 도리어 적과 합작해서 밀라노 시민을 제압했던 것이다. 그의 부친도 나폴리 여왕 조안나(Joanna)의 용병 대장이었는데 후에 여왕의 군대를 해치웠고, 그러기에 여왕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라곤(Aragon) 왕가의 신세<sup>3</sup>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와는 대조적으로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선 이 용병을 잘 이용하여 세력 확장에 성공하였으나, 용병 대장은 군주가 되거나 하는 일 없이 충실히 자기 본분을 다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피렌체의 경우는 운수가 좋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용병 대장 중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 자, 견제 세력에 눌린 자, 다른 곳에 야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피렌체는 무사했던 것이다.

승리를 거두지 못한 자란 조반니 아구토(Giovanni Aguto)<sup>4</sup>인데, 그는 전승을 못 거두었기에 그의 마지막 충성심을 알 길은 없으나, 만일 그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피렌체는 그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또 다른 용병 대장인 스포르차 가(家) 출신들은 항상 보라초 가(Braccio 家) 출신들<sup>5</sup>에 의해 견제 당하였는데, 예를 들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롬바르디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때 브라초 가는 로마 교회와 나폴리 왕국에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근래에 피렌체에서는 한 평민으로부터 일어나 큰 명성을 얻게 된 파올로 비텔리를 용병 대장에 앉힌 일이 있는데, 만일 그가 피사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면 피렌체와 그의 관계는 달라졌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적 측에 넘어가도 큰일이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놓아 두었더라면 명령자로 둔갑하였을 것이다.

이제 베네치아의 경우인데, 이 나라의 발전사를 볼 때 자력으로 전쟁을 했을 때 이나라는 착실히 발전했다. 즉 내륙에서 전투를 벌이기 이전에는 귀족이나 모든 시

2 비스콘티 가(家)의 마지막 군주. 그는 세력을 다시 얻기 위해 용병(傭兵)을 썼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3 나폴리 왕 조반니 2세(1316~1435)는 용병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배반으로 아라곤 가(家)의 알폰소를 양자로 하여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4 1361년에 부하를 데리고 이탈리아에 온 영국 기사.

5 용병대의 양대 세력.

민이 무장하고 용감히 싸웠으나, 내륙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한 이후<sup>6</sup>로는 이런 기운은 없어지고 이탈리아 본토의 습성에 따라가려 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베네치아는 영토란 것이 없었고, 반면에 국위는 드높았기에 용병 대장 정도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카르미놀라(Carmignuola)<sup>7</sup>의 통솔 하에 영토 확장에 나선 후 베네치아는 비로소 정책의 실패를 따끔하게 맛보게 되었다. 그가 밀라노 공을 쳐부수었을 때는 역량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으나, 곧 그가 전쟁에 열의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기에 그를 더 이상 채용해도 승산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점령한 지역을 상실하고 싶지도 않아 해고도 못 하고, 결국 국가의 안전을 위해 그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베네치아는 그 자리에 다른 용병 대장들을 차례로 임명했으나 이들은 도리어 영토만을 잊게 하는 자들이었다. 사실 베네치아는 8백 년 동안 간신히 손에 넣은 땅을 단 하루에 잊은 적도 있었다. 이런 용병<sup>8</sup>들이 가져오는 것이란 아무 이득 없는 손실뿐이다.

이상으로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날뛰던 용병대의 실례를 보았으며, 다음에는 이 제도의 기원과 발전을 예로부터 살피으로써 여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겠다. 황제권력이 물러가고 교황의 세속권이 대두하기 시작하여 명성을 떨치고, 이탈리아가 수많은 국가로 분열되었을 때를 상기해야 된다. 그 많은 대도시가 황제의 비호 아래 그 도시를 제압하던 귀족들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나자, 로마 교회는 그의 세속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이들 시민들을 후원했던 것이며,<sup>9</sup> 어떤 곳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이탈리아는 로마 교회와 몇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었으며, 시민과 성직자들이 무력을 몰랐기에 용병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성격의 군대를 널리 알려지게 한 이는 알베리고 다 코모(Alberigo da Como)<sup>10</sup>인데, 그의 부하 출신으로서 그 후 세력을 겨루게 되는 브라초와 스포르차가 있었고, 그 후 계속하여 이 용병제도가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들의 무훈 때문

6 14세기 이후를 말한다.

7 베네치아의 용병 대장으로, 후에 사형당함.

8 7세기 말부터 확장정책을 썼다.

9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는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대립에서 발생하였다.

10 14세기에 성조르지오 단(團)이란 용병 군대를 조직하여 명성을 떨쳤다.

에 이탈리아는 샤를에게 쫓기고 루이에게 약탈당했으며, 에스파냐의 페르난도에게 천대받고 스위스 군에게 창피를 당하게 되었다. 용병 대장들이 한 짓들은 그들의 평叛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보병들을 헬뜯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에겐 일정한 영토가 없는 데다 소수의 보병을 거느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다수의 보병을 거느릴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용병 대장이 거느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소수의 기병뿐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예를 들어 2만 명의 군단이 있으면 보병은 불과 2천 명<sup>11</sup>에 불과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 자신과 병사의 노고와 공포심을 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따라서 전투에선 적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포로가 되어도 몸값을 안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야간에는 성을 공격하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자들도 야간에는 적진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 야영 때도 주위에는 방책을 세우고, 더욱이 겨울에는 야영은 하지도 않았다. 이런 모든 예들은 그들 전투의 불문율로 되어 위험이나 노고를 이런 방법으로 피하였으며, 이들이 바로 이탈리아를 노예와 치욕의 땅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11 마키아벨리는 군대의 주력을 보병이라 주장한다.



제 13 장

## 제13장

### 외국 원군<sup>1</sup> · 혼성군 · 자기 군대

용병(傭兵) 이외에 또 다른, 기대할 수 없는 군대는 외국 원군, 다시 말하면 다른 유력한 군주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율리우스 교황도 외국 원군을 청한 바 있다. 그는 용병의 나쁜 면을 잘 알고 있었기에 페라라 공격 때는 외원(外援)에 손을 내밀지 않고 에스파냐의 페르디난도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타협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군은 원군 쪽에서는 별일 없으나 이를 불러들인 쪽에 반드시 해를 끼치는데, 그 이유는 전투에 지면 아주 멀망하며, 이기면 이긴 대로 원군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실례는 역사상 흔히 볼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최근에 율리우스 교황이 경험한 일을 환기하고자 한다. 그가 페라라를 탐내어 이를 갖고자 외국 원군에 자기를 완전히 내맡겨 버린 듯한 정책을 채택한 것은 너무나 경솔한 짓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이 그릇된 정책에서 오는 결과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원군이 라벤텐(Ravenna)에서 패배했을 때 돌연 스위스 군이 궤기하여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적을 쳐부숨으로써 교황은 적의 포로가 될 신세를 면했고, 또한 원군한테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피렌체는 군비를 전연 갖고 있지 않았기에 피사 공략 때 프랑스 군 1만 명<sup>2</sup>을 초빙하였는데 그 결과 피렌체는 크나큰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어느 황제<sup>3</sup>는 주변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1만 명이나 그리스에 초빙했는데, 이 외국군은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가 이교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발단이었던 것이다.

이런 예로 보아 승리를 얻고 싶지 않은 군주라면 외원(外援)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외국 원군이란 용병보다 그 위험도가 훨씬 높아 그것을 자청한 이는 자멸

1 원뜻은 보조군대인데, 여기서는 외국 원군을 뜻한다.

2 1500년 피렌체는 피사를 공격하기 위해 루이 12세의 원군을 정확히 8천 명 빙이들였다.

3 동로마 제국의 요안 6세. 그는 대립하는 반대파를 누르기 위해 1346년 오스만 투르크의 원군을 끌어들였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외국 원군은 본국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단결해 있는데 비해, 용병은 단결이 허술하며 채용되어 급료를 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전승해서 군주를 위협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시간과 기회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지휘관으로 임명된 자가 그런 용병들 중에서 군주를 위협할 만한 권력을 쉽사리 형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병의 경우에는 그들이 겁쟁이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외국 원군의 경우에는 그들의 충성심이 위험하다. 그러기에 현명한 군주는 항상 이런 군대의 사용을 피하고 자기 군대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타력(他力)에 의해 얻어진 승리는 참다운 것이 못되므로 타력에 의해 이길 바에야 자력으로 싸우다가 패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체자레 보르지아가 취한 행동의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보르지아는 프랑스 원군과 더불어 스스로 로마냐 지방에 들어가 순전히 프랑스 군사로만 이루어진 군대로 이몰라(Imola)와 푸를리(Furli)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이 군대가 미덥지 않아 용병으로 대체하려고 오르시니와 비텔리의 용병을 불러 들였으나, 이들도 이상한 낌새를 보였기에 그들을 해산하고 자기 군대로 바꾸어 버리기로 하였다. 그가 외원(外援) 군대나 용병을 고용했을 때와 자기 군대만으로 밀고 나갔을 때에 그의 평판은 너무나 차이가 났으며, 그가 자기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이 세상에 알려진 후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최고도에 도달했던 것이다.

나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만 소개하려 하였는데, 이미 앞에서 말한 시라쿠사의 히에론의 이야기를 부가해야 옳을 것 같다. 그는 시라쿠사의 민중에 의해 추대되어 군 지휘관이 되었는데, 그의 휘하에 있는 병력은 모두 용병으로서 아무 쓸모 없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해산시키는 것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위험하다 생각하여 모두 말살시켜 버리고, 그 후로는 오로지 자기 군대만으로 싸움을 계속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옛 이야기로 《구약성서》 중의 한 인물인 다윗(David)이 생각나는데 그는 도발자인 골리앗(Goliath)과 싸울 것을 사울(Saul) 왕에게 제의했다. 이에 왕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뜻으로 자기의 무구(武具)를 사용하라 하였다. 그

러나 다윗은 그 무구를 몸에 한번 걸쳐 보고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 하여 사양하고, 자기의 투석구(投石具)와 단검(短劍)만으로 싸움터에 나섰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타인의 무기란 몸에 맞지 않는 것이니 부담이 될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북한 것을 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이 11세의 부왕인 샤를 7세는 자기의 역량과 행운으로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그 당시 그는 본국의 군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왕국 내에 기병과 보병으로 된 군대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루이 왕은 보병대를 폐지하고 대신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실수는 그 자손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프랑스 왕국의 위기<sup>4</sup>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즉, 보병을 완전히 폐지하는 바람에 기병은 타국 보병의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려, 결과적으로 스위스 용병의 이름만 높이고 프랑스 군대는 약화시키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프랑스 군대는 스위스 보병과 협동하여 작전하는 데 습관이 들어 그들 없이는 전쟁을 못 치를 정도까지 되었고, 따라서 프랑스 군은 스위스 군에게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고 그들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그 결과로 프랑스 군은 자국 군대와 용병으로 이루어진 혼성군이 되어 버렸으며, 이런 군대는 외국 원군이나 일반 용병군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으나, 순수한 본국 군대보다는 훨씬 뒤떨어진다. 그러기에 만일 프랑스가 샤를 왕이 만들어 놓은 군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면 결코 패배를 모르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려가 부족한 사람은 처음 단맛에 속아 그 속에 숨어 있는 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고 마는데, 이는 위에서 밀한 바 있는 소모열(消耗熱)과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군주의 자리 있는 이가 재난이 목전에 닥칠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통찰력을 지닌 군주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고트(Goth) 인을 용병으로 고용한 데도 큰 이유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로마의 국세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로마인의 용맹성이 모두 고트 인으로 옮겨간 듯 되어 버렸다.

4 이탈리아에서의 프랑스 군의 패배를 말함.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군주는 반드시 자국의 군대를 가져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자기 군대가 없으면 불의의 역경이 닥쳐올 때 자신있게 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운명에 좌우되게 마련이며, “자력에 의거하지 못한 권세와 명성처럼 약하고 믿지 못할 것은 없다”<sup>5</sup>라는 명언은 현자가 항상 부르짖는 말이며 잡언(康言)이다.

자기의 무력이란 시민 또는 군주의 부하가 조직한 군대를 말하며, 타력이란 의원군 또는 용병군을 말한다. 자기 무력을 조직하는 수단에 관해서는 내가 먼저 특별히 언급한 4인<sup>6</sup>의 군사조직을 검토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필립 왕을 비롯해 여러 군주와 공화국이 어떤 군비를 갖추고 있었던가를 검토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제도에 전면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바이다.

5 타키투스의 《연대기》 XIII 19.

6 보르지아, 히에론, 다윗, 샤를 7세를 가리킴.



제 14 장

## 제14장

### 군비(軍備)에 관한 군주의 임무

군주는 전투 · 군사조직 · 훈련 이외에 어떠한 다른 욕심이나 배려나 직무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군주의 근본적인 책임이다. 군대를 잘 통솔한다는 것은 원래 군주 자리에 있는 이에게 그 나라를 잘 보존하는 힘이 되고, 또한 한 평민으로부터 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만일 군주가 무력 이외에 다른 우아한 취미에 정력을 쏟게 되면 그 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군주가 나라를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데 있으며, 또 반대로 군주가 되는 길도 이 직무를 잘 지키는 데 좌우되는 것이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무력을 가졌었기에 일개 평민으로부터 군주가 될 수 있었으나, 그의 아들들은 군비를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홀히 하였기에 군주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다. 무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으로써 받는 폐해는 여러 가지 있으나 특히 문제되는 것은 타인들이 군주를 얕본다는 것인데, 이 얕본다는 것은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군주로서는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다. 사실상 무력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동일할 수 없으며, 무력 있는 자가 무력 없는 자에게 스스로 복종한다든지 무력 없는 자가 무력 있는 자에게 둘러싸여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으며, 서로 의심하고 얕보는 자들끼리 마음을 합쳐서 같이 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사에 정통하지 않은 군주는 부하에게서 존경심을 받지 못하며, 그 결과로 군주는 부하들을 불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군주는 언제나 군사 훈련을 계을리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평상시에도 전시에 뒤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이 훈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다. 행동에 있어서는 병사의 조직과 군사 연습은 물론 산에 가서 동물들을 잡는 연습으로 심신을 단련시키며, 그럼으로써 그 지방의 지형을 익히고 특징을 알아두어야 한다. 군주는 이런 일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리에 관한 지식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한데, 먼저 자기 나라를 더욱 잘 알

게 됨으로써 국방에 도움이 되며, 다음에는 지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이역(異域)에 가서도 지리적 파악이 용이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토스카나 지방의 지형은 다른 지방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곳이 있으며, 그러기에 다른 지방의 그것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군주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전투 진행에 있어 유리한 포진을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카이아(Achaia)의 군주였던 필로포emen(Philopoemen)<sup>1</sup>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나 그가 평시에도 전술에 관해 항상 연구하였다는 것은 찬양 받을 만한 것인데, 그는 친구들과 야외에 나갔을 때도 그들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한다. “만일 적이 저 언덕을 점거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포진했다면 어느 편이 더욱 유리할 것인가? 여기서 진형(陣形)을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하여야 적의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 만일 후퇴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반대로 적이 후퇴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추격해야 옳을 것인가?” 이와 같이 그는 군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토의하고 그의 전술을 가꾸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그가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우발적인 일이 있어도 그 대책을 세우는 데 당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두뇌를 써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군주는 역사서를 읽고 위인들의 행적을 연구해야 되며,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승패의 원인을 검토 연구하여 모범으로 삼아 위인의 뒤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결국 그 위인들도 그들 이전의 위인의 모범을 뒤따랐을 뿐인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이 아킬레스를, 카이사르가 알렉산더를, 스키피오가 키루스를 모범삼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 왕의 전기』를 읽으면 스키피오의 일생은 키루스 왕의 그것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실상 키루스 왕의 철제·선의·인간미·관용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이런 위인들의 태도를 존중해야 되며, 평시에도 안일을 택하지 말고 노력하여 어떠한 역경도 이겨 나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즉, 악운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 아카이아 동맹(同盟)의 지도자(B.C. 253~183)



제 15 장

## 제15장

### 인간, 특히 군주가 찬양받거나 비난받는 몇 가지 이유

이제 군주가 신하들이나 자기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수단이나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논자들<sup>1</sup>이 이미 여러 가지로 저술한 바 있고, 여기서 내가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다룬다면 내가 주제를 다루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상이한 만큼 나를 견방지하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sup>2</sup>

그러나 내가 의도하는 바는 독자에게 유익한 것을 쓰려고 하는 데에 있다. 쓸데없는 사변(思辨)을 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였던 공화체제나 군주체제를 고안해냈다. 그러나 상상이 대체 무엇에 소용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와 실제로 사람이 살아 나가는 생활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로 해서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태를 놓친다면 이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또 무슨 일에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스스로를 선한 인간으로만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악인들의 무리 속에서 파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인도 악인도 될 줄 알아야 한다.

결국 군주의 본분은 가공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특히 군주는 그 높은 신분 때문에 자기가 지닌 특성 중 한 면이 두드러지게 찬양받거나 혹은 비난받게 된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인심이 후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색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우리네 언어로 탐욕(avaro)이란 뜻은 소유욕이 과해서 도둑질까지도 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그런데 토스카나 방언으로는 인색하다는 말이 자기 것을 가능한 한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토스카나 방언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1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군주의 자세를 논한 종래의 사상가들, 말하자면 고대의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크세노폰, 중세의 성(聖) 토마스·단테·마르실리오 다 파도바, 그밖에 초기 인문주의자들을 암시하고 있다.

2 여기서도 현실을 중시하고 그런 관점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설파한 마키아벨리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친절한데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든가, 저 사람은 잔인한데 이 사람은 자애심이 많다든가, 저 친구는 말뿐인 데 반하여 이 친구는 신의가 두텁다든가, 저 사람은 유약하고 겁이 많은데 이 사람은 단호하고 용기가 있다든가, 저 사람은 호인인데 이 사람은 오만하다든가, 저 쪽은 방탕한데 이쪽은 절조가 있다든가, 저 자는 솔직한데 이 자는 교활하다든가, 저 사람은 힘들지만 이 사람은 쉽다든가, 저 자는 무게가 있으나 이 자는 경박하다든가, 저 사람은 종교적인데 이 사람은 신심(信心)이 없다든가 하는 평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열거한 여러 기질 중에서 좋은 점만을 갖춘다면 이에 더바랄 것이 없으며, 이런 경우 군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인간조건이 그렇게는 허용치 않는다. 따라서 무릇 군주라는 자는 최소한 자신의 나라를 쉽게 할 수치스러운 악덕만은 피해야겠다. 다른 악덕들도 가능하다면 피해야겠지만, 그렇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 신경쓰지 말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어도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어떤 때는 몇 가지 결함을 짊어져야만 나라를 위기에서 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을 잘 살펴볼 때 일견 미덕으로 보이는 몇 가지 자질도 군주를 파멸로 이끌 수 있으며, 또 첫눈에는 악덕으로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군주의 안전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제 16 장

## 제16장

### 관후함과 인색함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기질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우선 논한다면 인심이 후하다는 평을 받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대하는 행위를 보편적인 규범으로 삼는다면 도리어 해를 입을 수 있다. 말하자면 후대하는 행동이 통칙(通則)인 상황에서는 후하게 행동한다 해도 남의 눈에 띄지는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오명 까지 뒤집어 쓸 염려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후하다는 평판을 많이 들으려면 어쩔 수 없이 사치에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주는 그런 일에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더구나 후하다는 평판을 계속 잊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민중을 억압하여 무거운 과세(課稅)로써 어떻게든지 돈을 긁어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을 높아지고 또 자기 자신도 차차 빈궁해져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절약을 모르는 군주는 결과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쯤 되면 매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장애물에 걸려 위기에 빠져도 해어나올 수가 없다. 군주가 설혹 이를 알아차렸다손 치더라도 때는 이미 늦어 몸을 빼려고 할 수록 인색하다는 악평을 듣게 된다.

요컨대 군주가 후하다는 세평(世評)을 지니려고 하면 사태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인색하다는 악평 쯤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군주의 절약하는 마음으로해서 세입(歲入)이 풍요해져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도 있으며, 또한 민중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 사업(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군주는 더욱더 후하다는 평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물건을 주지 않고도 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베풀이 없기 때문에 이 소수로부터만 인색하다는 평을 받게 된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 사업은 보다 인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인심 좋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다. 예컨대 교황 율리우

스 2세는 교황의 지위에 오르기까지는 후하다는 평판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는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 평판의 하락 따위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또 현재의 프랑스 국왕(루이 12세)은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 시키지 않으면서도 수 차례 결친 전쟁을 감행하였다. 이것도 꾸준한 장기에 걸친 절약이 막대한 지출을 보전했기 때문이다. 역시 현재의 에스파냐 국왕(페르디난도 5세)도 만약 자유분방하다는 평을 받았더라면, 도저히 그런 큰 사업에 몸을 던져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군주가 자기방어의 명목으로 백성에게 금품을 강요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가난 때문에 경멸을 받지 않으려면, 또 탐욕자가 되지 않으려면 인색하다는 평판 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이 인색하다는 결점은 바로 군주에게 지배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반가운 결점이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도 후한 마음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다스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하다는 평판으로 해서 지극히 높은 자리를 얻지 않았느냐 하고 만약 누군가가 반박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먼저 그 사람이 이미 군주인지, 또는 앞으로 군주가 될 사람인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첫 번째 경우라면 후한 것이 해가 된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후하다고 보일 필요가 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최고 자리를 바라본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만약 그가 집권 후에도 오래 생존하여 그 낭비를 고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스스로 제국을 뒤집어 엎고 말았을 것이다.

다음에 누가 또 반박하여, 많은 군주들이 지극히 후하다는 세평을 받으면서도 군대를 사용하여 대 사업을 이루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나는 이같이 대답하겠다. 즉, 군주가 돈을 씀에 있어서도 자기의 돈이나 신하의 돈을 쓸 때와 전혀 타인의 돈을 쓸 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절약자가 되어야 하며, 두 번째 경우에는 얼마든지 후해도 좋다.

사실은 한 군주가 군대를 이끌고 정복자가 되어 전리품을 얻고, 약탈을 행하며, 징발을 마음껏하여 남의 재보(財寶)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럴 때 후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병사들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나 신하들의 것이 아닐진대 키루스나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후하게 분배해도 무방하다. 타인의 것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떨어뜨리

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한층 드높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당신 자신의 것을 낭비할 경우에는 결국 당신에게 해가 돌아온다. 하여간 혼돈 것처럼 스스로를 탕진해 버리는 것도 없다. 마음껏 후대하는 동안 언젠가는 그 자력(資力)을 잃고 만다. 그래서 빙궁에 빠져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든가, 또는 빙궁에서 벗어나려고 욕심을 부려 남의 원망을 사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도, 또 원한을 사는 것도 다 한결 같이 군주가 엄격히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다.<sup>1</sup> 후한 행동은 이 중 어느 한쪽으로 당신을 이끌어 간다. 그렇게 되면 후하다는 평판을 얻으려고 발버둥쳐도 필연적으로 탐욕자가 되고 미움과 오명을 사게 된다. 이럴 바에야 오명만을 얻고 미움을 사지 않는 구두쇠가 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하겠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政治學)』중 참주설(僭主說)을 인용하고 있다.



제 17 장

## 제17장

### 잔인함과 인자함에 대해. 그리고 사랑받는 것과 외경(畏敬)받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기질들을 계속 검토해 가노라면, 모든 군주들이 잔인하다기보다는 인자하다는 평판을 받으려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인자함도 역시 서투르게 발휘하면 못쓴다. 예컨대 체자레 보르지아(Cesare Borgia)는 잔인한 인간으로 통했었다. 그러나 그의 이 잔인함은 로마냐(Romagna)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 지방을 통일하여 평화를 지키고 충성을 다 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피렌체 시민들이 냉혹 무도하다는 악평을 듣지 않으려고 피스토이아(Pistoia)의 붕괴를 막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보르지아가 훨씬 더 자애로웠다는 이야기가 된다.<sup>1</sup> 따라서 군주는 자기의 백성을 결속시키고 이들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인하다는 악평 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도 자애심이 깊어 오히려 혼란 상태를 초래하고 급기야는 살육이나 약탈이 횡행하도록 만드는 군주에 비하면, 약간의 엄격한 시범을 보이는 군주 쪽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자애롭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군주가 내리는 엄격한 재판은 개인을 다치는 데 그치지만, 전자의 경우는 사회 전체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 군주는 나라가 새롭기 때문에 위험도 많아 잔인하다는 평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Vergilius)도 디도(Dido)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곤란한 사태와 신생국이란 점이 나에게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하였고, 국경을 구석구석 감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노라.”<sup>2</sup>

그러나 군주는 경솔하게 남을 믿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또 스스로 의혹에 사로잡혀서도 못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지나치게 믿어 분별을 잃는다든가, 반대로 불신에 사로잡혀 편협함에 빠지지 않도록 사려와 인간미를 갖추어 침착하게

1 1501년에서 이듬해까지 1년 간 피스토이아에서는 두 파의 권력 다툼이 간단없이 있었다. 마키아벨리 자신도 피렌체의 조정자로서 이 쟁투를 지켜보았다. 이때 피렌체는 처음 양파의 지도자를 내세워 평화를 되찾으려고 하였다.

2 베르길리우스의 *Aeneas* I . pp. 562~563 참조.

일을 해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즉, 사랑을 받는 것과 외경(畏敬)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은가 하는 점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양쪽을 다 갖추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둘을 겸비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만약 그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경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sup>3</sup> 인간이란 원래 은혜를 모르고 변덕이 심하며, 위선자요 염치를 모르는 데다가 몸을 아끼고 물욕에 눈이 어두운 속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은 모두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며, 피도 재산도 생명도 아들마저도 당신에게 바친다. 그러나 이미 내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모든 현신은 아직 위협이 먼 곳에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 그러다가 정작 위협이 닥치게 되면 그들은 금방 등을 돌린다. 따라서 이들의 약속만 전적으로 믿고 있던 군주는 다른 준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만다. 송고하고 위대한 정신이 담보되지 않고 보수라는 미끼만으로 얄어진 우정은 그만큼의 가치밖에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정작 우정이 필요할 때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두려워하는 자보다 애정을 느끼는 자를 더욱 쉽게 배반한다.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이 사악하여 단순히 의리라는 끈에 매인 정 같은 것은 자기의 이해가 얹히는 기회 앞에서는 언제나 서슴없이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는 처형의 공포로 꽉 얹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모르는 체할 수가 없다.

하여간 군주는 사랑은 못 받더라도 남으로부터 일정한 한도내에서 외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외경받는 것과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 할 수 있다. 이것은 군주가 자기 백성의 재산이나 부녀자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sup>4</sup>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백한 이유가 따라야만 그 행위가 정당화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일은 삼가야 된다.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을 쉬 잊을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의 손실은 여간해서 잊기 어려운 법이다.

3 이 생각은 《전략론(戰略論)》 제3권 제22장에도 기술되어 있다.

4 제19장 참조.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엿보인다. 또 《전략론(戰略論)》 제3권 제19장도 참조.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기회는 사실 빈번히 있는 것이며, 그 구실과 방법도 항상 구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하면 피를 흘리는 일의 구실은 그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주가 바야흐로 군대를 이끌고 많은 병사들을 지휘할 때에는 잔인하다는 악평 같은 것을 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평판 없이는 군대의 결속을 이루고 군사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한니발<sup>5</sup>의 그 혁혁한 활약의 이면에는 이런 점들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인종으로 조직된 대단히 방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국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세가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한결같이 그의 군단에서는 병사끼리의 내분도 지휘관에 대한 모반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바로 한니발의 비인도적인 잔인성 덕택이었다. 부하 병사들의 눈에는 몇 가지 다른 덕성과 아울러 극도의 잔인성을 갖춘 이 지휘관이 항상 숭고하고 두려운 인물로 비쳤다. 이런 기질 없이 덕성만 있었다면 그는 그처럼 성과를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깨닫지 못한 저술가들은 한편으로는 그의 위업에 경탄하면서도, 그 성공의 기본 동기였던 그의 잔인성에 대해서만은 비난을 퍼붓는다. 다른 덕성들만으로는 한니발이 성공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스키피오<sup>6</sup>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스키피오는 오늘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역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실로 걸출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의 부하 병사들은 에스파냐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태는 군사 훈련에는 불필요한 온정주의를 병사들에게 지나치게 허용한 데 기인한다. 그 때문에 그는 원로원에서 파비우스 막시무스(Fabius Maximus)로부터 로마 군대를 부패시키는 장본인이라는 탄핵을 받았다.

또 로크리스(Locris)의 주민들이 스키피오가 파견한 장관으로 해서 시달림을 받고 파란을 겪은 일이 있었다. 스키피오는 그 후 이 주민들의 원망을 보상 하려고 하지

5 한니발(Hannibal, B.C. 202~183) : 카르타고의 용장. 기원전 218년 알프스를 넘어 로마에까지 육박하였다가 배후를 절리어 카르타고로 돌아갔다. 기원전 202년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에게 패배하였다.

6 스키피오(Scipio, B.C. 236~184) : 로마의 장군. 기원전 209년 에스파냐에서 카르타고-노바를 함락. 이듬해는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을 격파하여 로마의 에스파냐 정복을 확립하였다. 그 후 아프리카로 전쟁터를 옮겨 기원전 202년 한니발을 패배시켜 카르타고를 굴복시켰다. 이래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것이다. 부하의 모반에 대하여는《전략론》제1권 제29장 참조.

않았으며, 그 장관의 횡포를 규탄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의 온정주의적 기질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원로원에서 스키피오의 변호에 나서, ‘그는 남의 과실을 나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의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스키피오가 만약 이런 기질을 가진 채 계속 최고 권한을 누렸더라면 그의 영광과 명성은 흐려졌을 것이다. 다행히 그는 원로원의 명령에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이 유해한 기질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았던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는다면, 군주를 사랑함은 신민들의 뜻이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군주의 뜻이다. 요컨대 현명한 군주는 자기의 방침에 따라야지, 남의 생각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제 18 장

## 제18장

### 군주는 어떻게 신의를 지킬 것인가

한 군주가 언약을 지키며 간책(奸策)을 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산다는 것은 상찬(賞讚)할 만하다. 그러나 오늘날 신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계략으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군주가 오히려 더 큰 일을 성취한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이런 군주들이 신의에 행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군주들을 압도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싸움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도리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것이다. 전자는 인간 본연의 길이며, 후자는 본래가 야수의 짓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첫 번째 방법만으로는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원용하여야 한다. 즉, 군주는 야수성과 인간성을 교묘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옛 저술가들은 군주들에게 우의적(寓意的)인 방법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저술가들은 아킬레스를 비롯하여 많은 고대의 영웅들이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카이론(Chiron)에게 위탁되어 이 수신(獸神)으로부터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sup>1</sup>

여기서 반인반수를 훈육자로 내세운 것은 군주란 반드시 이런 양면의 기질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중 어느 한쪽을 결하더라도 군주의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군주란 야수의 성질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특히 여우와 사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sup>2</sup> 그것은 사자는 책략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힘에 있어서 여우는 늑대를 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함정을 알아 차리는 데는 여우라야 하고, 늑대의 혼을 빼려면 사자라야 한다. 그저 사자의 용맹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졸렬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기 때문에 무릇 명군(名君)이라 할 자는 신의를 지킴으로써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경우, 또 약속을 맷던 당시의 동기가 이미 없어졌을 경우에는 신의를 지키려

1 그리스 신화: 카이론은 반인반수(半人半獸)인 켄타우르(Kentaur) 족(族)의 현자로서 의술·음악에 통달하였으며, 아킬레스(Achilles), 이아손(Iason),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 등을 양육한 것으로 전해진다.

2 여우와 사자의 성질에 비유한 것은 키케로의 『의무론(De Officiis)』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신의를 지켜서도 안 된다. 물론 이런 가르침은 만인이 선하다는 가정 밑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악한 존재로서 당신에 대한 신의를 충실히 지켜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도 그들에게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군주에게는 신의의 불이행도 합법적으로 정당화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근래에 있었던 예를 무수히 들 수 있다. 군주의 불성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평화협정이 파기되었고 효력을 잃었던가. 또 여우의 기질을 가장 잘 구사한 군주가 가장 큰 변영을 누린 군주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우의 기질을 교묘하게 분장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위장의 기술도 완전히 터득하여야만 한다. 더구나 인간이란 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목적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쉽다. 그래서 속이려들면 얼마든지 속게 마련이다. 최근의 실례 가운데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교황 알렉산데 6세는 사람을 속이는 일만을 생각해 왔는데, 그 기회 포착과 수법은 무궁무진했다. 이 교황만큼 실제로 할약을, 그것도 맹세로써 자기의 언약을 뒷받침하면서도 자기의 약속을 도외시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속임수가 거침없었던 것을 보면 그 만큼 이 방면에서 도통한 사람도 드문 것 같다.

요컨대 군주는 이미 말한 바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손 치더라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는 것이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좋은 성품들을 갖추고 이 성품들을 행동으로써 지킨다면 그것은 도리어 해로운 일이다. 다만 이런 성품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이 유익한 것이다. 즉 자비심이 많다든가, 신의가 두텁다든가, 인정이 있다든가 표리부동하지 않다든가, 경건하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런 성품과는 전혀 반대의 자세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다는 자신을 평소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 무릇 군주라 함은, 특히 새 군주인 경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신의도 저버릴 줄 알아야 하며, 자비심을 버리고 인간미를 잃고 반 종교적인 행동도 때때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두어야 하겠다. 즉, 대중에게 선한 인간으로만 통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군주는 운명의 변화, 사

태의 변천에 따라 자유자재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선(善)의 길에서도 멀어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악의 길에도 서슴지 않고 발을 들여놓을 줄 알아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군주는 바로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기질에 어긋나는 언행은 단연 삼가야 한다. 그래서 군주는 사람들을 인견(引見)하여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군주를 어디까지나 성실하고, 신의가 두텁고, 언동이 일치하고, 인정이 많고, 종교심에 가득 찬 인물이라고 생각하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신심이 두터운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당신을 속속들이 알기보다는 곁으로 나타난 외관만으로 당신을 판단하는 법이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곁으로만 당신을 볼 뿐 실제로 당신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거기마다 이 소수의 사람들도 군주의 권력이 뒷받침하는 다수의 여론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더구나 재판소가 환문(喚問)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위, 특히 군주의 행동에 관해서는 결과만이 중요할 뿐이다.<sup>3</sup> 그래서 군주는 어쨌든 전쟁에 이기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의 수단은 누구에게나 훌륭한 것으로 칭송받는 것이다. 대중은 언제나 외관만으로, 그리고 결과만으로 평가하게 마련이며 이 세상은 이들 속된 대중으로 가득 차 있다. 소수는 다수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한해서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여기서 이름을 굳이 밝힐 수는 없지만, 요즈음 어떤 군주<sup>4</sup>는 입으로는 평화와 신의를 외치면서 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하기는 만약 그가 평화와 신의를 고지식하게 존중하였더라면, 아마 지금쯤 그의 국토도 그의 명성도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3 이 구절은 《전략론》 제1권 제9장 “주어진 결과가 훌륭하면 범한 죄는 언제나 씻어 진다”는 말과 더불어 소위 마키아벨리즘—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주의—의 전형으로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후세인들이 과장하여 생각하듯 목적과 수단을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또 그는 군주가 책략을 쓸 경우는 긴급사태 때문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였다. 때문에 이 구절을 마키아벨리의 일반론으로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4 에스파냐 왕 페르디난도 5세를 가리킴.

제 19 장

## 제19장

### 경멸과 증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앞에서 지적하였던 기질들을 대충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나머지 기질들을 이런 표제 아래 한꺼번에 간단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sup>1</sup> 여러 번 말해 온 것이지만, 군주는 되도록 경멸과 증오를 피해야 한다. 이것만 피할 수 있다면 군주의 임무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파렴치한 행위가 다소 있었다손 치더라도 별로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군주가 가장 크게 미움을 받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하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부녀자의 명예를 꺾을 경우이다. 이 일만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즉 재산과 명예만 빼앗지 않는다면 대체로 인간이란 만족스럽게 사는 법이다. 따라서 군주가 싸워야 할 적은 소수의 야심가뿐이다. 이때 이들의 야심을 누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편, 군주가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여성적이고 무기력한 데다 결단력이 없어 보일 때<sup>2</sup> 경멸을 받게 된다. 군주는 이런 것들을 암초로 생각하여 크게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자기의 모든 행동에 위대함·용맹심·신중함·강직함이 엿보이도록 애써야 한다. 다음, 신하들에 대한 개별적 문제에 있어서도 한 번 내린 결단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도록 할 것과 또 어느 누구도 군주를 감히 속이거나 농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머릿속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평판을 얻을 수 있었던 군주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았고, 이런 군주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또 군주가 탁월한 인물이어서 부하들로부터 경애받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면 이 군주에 대한 침략의 기도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보통 군주는 두 가지 근심을 갖는다. 하나는 백성이 일으키는 내우(內憂)요, 또 하

1 군주의 기질에 관해서는 이미 후함과 인색함(제16장 참조), 잔인함과 인자함(제17장 참조), 교활함과 신의(제18장 참조)의 이해득실을 따졌다. 이 장에서는 나머지 기질들을 일괄하여 논하고 있다.

2 이런 성질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군주가 피해야 할 것으로 열거하였다.

나는 외국 세력으로부터 받는 외우(外憂)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좋은 군비와 훌륭한 동조자들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훌륭한 군비가 있으면 좋은 동지들도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다. 또 그 나라가 전에 내란으로 어지럽혀진 일이 없고, 대외 관계까지 안정되어 있다면 국내의 안정은 절로 보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대외관계가 어지럽다 하더라도 국내 질서가 정연하여 국력만 쇠퇴하지 않았다면 어떤 침략도 반드시 견디어낼 것이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스파르타의 나비스(Nabis)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국외 정세가 안정되어 있으면 백성들 사이에 혹시 남몰래 모반을 꾸미는 자가 없는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군주를 경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의 통치에 만족하는 한 안심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군주의 통치에 백성이 만족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쨌든 군주가 반란을 모면하려면 무엇보다도 백성의 미움을 사지 말아야 한다. 모반자들은 군주를 죽이면 반드시 백성들이 만족하리라고 생각할 때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반란이란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만약 군주의 죽음이 민중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반란자들도 그런 위험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인류는 반란을 여러 번 경험하였지만 역사상 성공한 예는 극히 적다. 사람들이 단독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는 힘들다. 반드시 협조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불만을 잔뜩 품은 자들 가운데서만 얻어진다. 여기서 당신이 한 불평분자에게 본심을 털어놓으면 그것으로 그의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성의의 표시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상대방은 자기의 이익을 보상받게 된다는 언질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당신 쪽에 불으면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모반자 편에 서면 장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다는 데 생각을 돌리게 된다. 그래도 그가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모반자와 깊은 의리 관계에 있든가, 아니면 당신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크든가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원래 반란을 일으키는 측은 공포와 동료들에 대한 시기심과 형벌에 대한 근심이 뒤섞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군주 측은 군주

로서의 위광(威光)이나 법률, 동지들과 국가의 가호가 그를 지켜준다. 더구나 그 위에 군주가 민중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면 어떤 무모한 인간일지라도 그리 쉽게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렇지 않아도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그 거사에 있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하물며 군주 편에 민중이 서면 이 민중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없이 많은 실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들의 조상이 직접 겪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들기로 한다. 현재의 안니발레 전하의 조부로 옛날 볼로냐의 궁주였던 안니발레 벤티볼리(Annibale Bentivogli)는 칸네스키(Canneschi) 집안 사람들의 모반으로 살해되었다.<sup>3</sup> 그래서 그의 집에는 아직 갓난아이인 조반니 2세(1443~1508)만이 남았다. 그러나 안니발레가 살해된 직후 민중이 봉기하여 칸네스키 일가를 몽땅 살육하였다. 이것은 당시 벤티볼리 가에 쏠린 민중의 신망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민중의 신망은 실로 깊은 것이었다. 안니발레가 죽은 후 그 일문에는 볼로냐를 통치할자가 없었다. 다만 당시 피렌체의 어느 대장장이 아들이 실은 벤티볼리 가문의 혈통을 이은 자라는 소문이 떠돌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볼로냐 시민들은 일부러 피렌체에 가서 이 사나이에게 도시의 정권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반니가 커서 정무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이 정치를 맡았었다.

여기서 결론을 짓는다면, 군주는 민중의 호의를 얻고 있는 한 반란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반대로 민중이 적의를 품고 미움을 갖게 될 때는 매사에 있어서 또 누구에게나 조심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질서잡힌 나라나 영매(英邁)한 군주는 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또한 민중을 만족시켜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부심하여 왔다. 요컨대 이것이 군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것이다.

요즈음 질서가 잡히고 잘 통치되고 있는 나라들이 몇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 왕국이 그 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에는 국왕의 자유와 안泰(安泰)의 밑받침이 되는 훌

3 안니발레 벤티볼리는 칸네스키 일족의 반란으로 1445년 살해되었다. 반란자들은 한때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 직후 벤티볼리에게 호의를 가졌던 민중의 저항을 받아 칸네스키 일족은 살해되거나 추방되었다. 그 전후 사정이 마키아벨리의 『피렌체 사(史)』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륭한 제도들이 많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고등법원(Parliament)<sup>4</sup>이며 그 권위는 대단히 높다.

처음 이 나라의 제도를 정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야심과 그 횡포가 어떤 것인지 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이들 귀족에 대한 일반 민중의 미움이 크다는 것을, 그리고 이 미움은 바로 공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민중의 보호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보호의 역할을 국왕만이 맡아서 민중의 편에 서게 되면 귀족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반대로 귀족들의 편을 들면 민중의 미움을 산다. 그러니 이 미움받는 역할만은 피해야 했다. 그러므로 제3자적인 재판권을 정하여 국왕은 곤경에 빠짐이 없이 큰 세력을 누르고 작은 세력을 보호할 수 있다.

진실로 이보다 우수하고 이처럼 용의주도한 제도도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왕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이보다 훌륭한 지주가 없다. 특히 여기서 또 하나 유의 하여야 할 점은 미움 받는 역할을 다른 쪽으로 떠넘기고 군주는 혜택만을 베푸는 고마운 입장에 선다는 것이다. 결론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면, 군주는 권력자들을 존중하되 민중의 미움도 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로마 황제들의 생애와 죽음을 고찰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느낄지도 모르겠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언제나 현명한 길을 걷고 위대한 성품을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제국을 잃거나 부하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다. 또한 이것은 나의 설 법과는 정반대의 실례가 아니냐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이 이론에 답하려고 나는 여기에 몇몇 로마 황제들의 기질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파멸의 원인이 나의 지론과 모순되지 않음을 명백히 해두려고 한다. 아울러 당시의 사건들을 접할 때 어떠한 것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도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부터 막시미니우스(Maximinus)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의 제위를 계승한 황제들을 모두 고찰하면 충분하다. 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아들 콤모

4 프랑스에 이러한 고등법원 제도를 창설한 사람은 13세기의 루이 9세였다. 이 고등법원은 국왕의 명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되었다.

두스(Commodus) · 페르티낙스(Pertinax) · 율리아누스(Julianus) · 세베루스(Severus)와 그 아들 카라칼라(Caracalla) · 마크리누스(Macrinus) · 헬리오가발루스(Heliogabalus) · 알렉산더 · 막시미니우스 황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른 군주국가에서는 그저 귀족의 야심과 민중의 봉기에 대결하면 되지만, 로마 황제들은 군대의 횡포와 탐욕도 견디어 내야 하는 제3의 난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힘든 것으로서 많은 황제들이 이 때문에 파멸하였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온화한 군주에게는 백성이 따랐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병사들이 원한 것은 호전적이고 오만하고 잔혹하고 탐욕한 군주였다.

그래서 병사들과 백성들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병사들은 군주가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런 태도를 백성들에게도 취해 주기를, 그럼으로써 자기네 병사들의 급료가 배가(倍加)되고 탐욕과 잔학성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기질이나 기술<sup>5</sup>이 부족하여 이 양쪽 세력을 충분히 놀려 버릴 만한 명성을 못 얻으면 그 군주는 반드시 멸망하였다. 예컨대 이 상반된 분위기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대다수의 황제들, 그 중에서도 새 군주들은<sup>6</sup> 병사들에게 영합하려고만 애쓸 뿐 백성들이 억압당하는 데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하기는 이런 식의 결정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군주가 원래 아무에게서도 미움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우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세력 있는 집단의 미움을 피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수성가한 황제들은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성에게 기대기보다는 군대에 기울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과연 그 황제에게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황제가 병사들 가운데서 얼마만큼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다. 바

5 기술이라 함은 정치 경험을 말한다.

6 원문에는 '새로운 사람들(Uomini Nuovi)'이라고 되어 있다. 사인(私人)에서 황제에 오른, 일종의 자수성가한 황제를 뜻함.

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sup>7</sup>나 페르티낙스 또는 알렉산더는 모두 겸허한 생활을 하였고 정의를 사랑하여 잔혹을 미워하였으며 인정미가 넘쳐 흐르고 인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를 제외한 다른 황제들은 모두 비참한 죄후를 마쳤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만 이 명예에 빛나는 생애를 보냈지만 이것은 그가 상속에 의해 제위에 오른 황제였기에 병사나 백성들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르쿠스는 그밖에 수많은 미덕을 지니고 사람들로부터 송상받아, 그 생애를 통하여 국가의 모든 질서를 의무의 범위 안에서 지키게 하였으나 한 번도 경멸받거나 미움받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페르티낙스는 병사들의 뜻에 반하여 제위에 오른 황제였다. 더구나 병사들은 콤모두스 황제 치하에서 멋대로의 생활을 즐겨왔기 때문에 페르티낙스가 그들에게 과한 규율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 때문에 황제는 원한을 샀다. 더구나 이 황제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경멸까지 받았다. 이리하여 그는 제위에 오르자마자 멸망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시 할 것은 사람의 원한은 악행에서뿐만 아니라 선행에서도 생긴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나라를 보존하려면 이따금 선하지 못한 일도 행해야 한다. 당신이 군주의 자리를 지킴에 있어서 자기편으로만 들어야 할 백성이나 병사 혹은 귀족이라는 집단이 부패하여 있을 때, 이들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당신도 그들의 풍조에 물들어야 한다. 즉, 이런 경우 선행은 당신의 적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알렉산더<sup>8</sup>에게로 돌려보자. 이 황제는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었다. 그가 받은 칭송 중에는 14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당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있는데 가히 놀랄 만하다. 그러나 이 황제는 한편 너무 여성적이어서 정치를 모친에게 맡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멸받고 있었다. 결국 그는 군대의 음모로 살해 당하고 말았다.

7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90) : 진중에서 쓴 『명상록(冥想錄, Eis heauton)』을 남기고 있다. 이 책은 로마 제정기의 스토아 철학의 대표작이다. 그는 관인(寬仁)하여 백성을 사랑하였다. 관례에 반하여 못난 아들 콤모두스를 후계자로 한 것은 그의 실책으로 일컬어진다.

8 알렉산더(Alexander, 208~235) : 헬리오가발루스의 암살 후 즉위. 원로원과 협조하여 문치주의(文治主義) 시정(施政)을 행하였다. 대외정책이 소극적이어서 계르만족에게 보상금을 주어 화평을 맺으려 하여 군대의 노여움을 사살해되었다.

그리면 다음에는 콤모두스 · 세베루스 ·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 막시미니우스의 기질들을 검토하여 보자. 이들은 모두 극히 잔인하였으며 욕심도 강하였다. 이들은 병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백성에게 모진 학대와 부정을 감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황제는 세베루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세베루스<sup>9</sup>는 위대한 용기와 함께 남다른 역량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기에 엄청난 세금으로 백성을 착취하였건만 군대를 자기편에 있도록 해둠으로써 항상 통치를 잘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역량 탓으로 병사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역량은 백성을 망연자실 상태에 빠뜨렸으며 병사들에게는 황제를 존경하도록 하여 만족시켰다.

어떻든 세베루스의 행동은 신 군주로서는 대단한 것이어서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발휘하였던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두 기질의 결합이야말로 군주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모범이다. 원래 세베루스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비겁성을 깨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휘 아래 있던 판노니아<sup>10</sup> 주둔 군대를 향하여, 친위대에 살해당한 페르티낙스의 복수를 위하여 로마로 진격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로마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자기가 제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출동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는 이미 그의 군대가 이탈리아에 도달해 있었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 원로원은 무서움에 떨면서 그를 황제로 선출하였다. 그는 곧 율리아누스를 죽이고 밀았다.

세베루스는 이 일을 계기로 온 나라에 군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두 가지 난관이 남아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아시아였다. 거기에는 아시아 방면 군 사령관인 닐리우스가 황제를 자칭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난관은 서방에 있었다. 여기서는 알비누스가 역시 제위를 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양자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것은 불리하다고 보고 닐리우스를 먼저 공략하고 알비누스

9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146~211) : 군대에 의하여 황제로 옹립되어 로마에 입성하였다. 근위군을 해산하고 새로이 친위군을 편성하여 각지의 정적을 박멸하고 독재권을 확립. 그 후 브리타니아(Britannia)로 향하여 칼레도니아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에프라쿰(현재의 요크)에서 병사(病死).

10 현재의 유고슬라비아 영토인 슬라보니아(Slavonia).

는 책략으로 다스리려고 하였다. 그는 알비누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어 “나는 원로원이 추대한 황제이지만 이 황제의 존엄을 그대와 함께 누리고 싶어 카이사르(Caesar)의 칭호를 보낸다. 원로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대와 나는 동렬에 서게 되었다”고 알렸다.

알비누스는 이를 곧이들었다. 세베루스는 이윽고 닐리우스와의 싸움에 이겨 그를 죽이고 동방의 사태를 수습하여 로마로 개선하였다. 그러고는 원로원에 호소하여, 알비누스는 자기가 베푼 은덕을 저버리고 변절한 배은망덕한 자로서 오히려 자기를 없애려 노리고 있으니 이를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응징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진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고는 그와 대결하기 위하여 프랑스로 가서 알비누스의 영지와 생명을 빼앗은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세베루스의 행태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누구나 거기에서 사자의 용맹과 여유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경받고 군대로부터 미움받지 않은 인물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참 황제인 그가 그처럼 위세를 유지하였다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즉, 그를 두고 형성된 높은 평판이 그에게 쏠릴 백성들의 원한을 억눌러 버렸던 것이다.

그의 아들인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역시 결출한 데가 있는 인물이었다. 백성의 눈에도 경이적으로 보였고 병사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전쟁에 능하고 어떤 곤란도 견디며, 미식(美食)이나 기타 일체의 유약한 것을 배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이런 그를 모두 경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잔인성과 만행은 절정을 이루었고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그는 다수의 로마 시민을 매일 살육하였고, 알렉산드리아의 주민들을 온통 도륙(屠戮)할 정도였다. 그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증오하게 되었고 끝내는 측근자마저 그를 무서워했다. 결국 그는 군대 한 가운데서 백인대(百人隊) 대장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어떤 집념을 가진 인간이 복수를 결심하고 살해 행위로 나올 때는 군주라 할지라도 이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한

11 세베루스는 알비누스의 군대를 프랑스의 리옹에서 격파하여 알비누스를 생포한 다음, 로마에서 처형하였다.

인간은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드물게 있는 것이어서 별로 꽤념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자기가 부리는 자들, 그리고 측근에서 정사(政事)에 이바지하는 자들에게는 일체 중대한 위해나 모욕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sup>12</sup> 예컨대 카라칼라가 범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었다. 그는 백인대 대장마저도 항상 위협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사나이를 자기 군대의 수비대장으로 놓아두었다. 이러한 짓은 너무도 무분별한 파멸을 자초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결국 카라칼라는 파멸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콤모두스<sup>13</sup>로 이야기의 방향을 옮겨보자.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로서 상속법에 의하여 제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제위의 보존이 극히 쉬운 입장에 있었다. 요컨대 부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면 되었다. 그랬으면 병사나 백성도 모두 만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본성이 잔인하고 야수적인 사나이였으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백성을 짓눌렀다. 또한 이런 목적으로 군대를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병사들에게 야합하였다. 이밖에도 황제의 존엄성은 생각지도 않고 스스로 투기장에 내려가서 검투사(劍闘士)를 상대로 싸우는 등 황제의 품위는 실로 말이 아니었다. 이런 야비한 행위는 끝내 병사들에게마저도 경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경멸과 증오를 한몸에 모은 그는 결국 음모에 걸려 죽임을 당하였다.

이제는 막시미니우스<sup>14</sup>의 기질을 해설할 일만 남았다. 이 황제는 군인이 지녀야 할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 이미 말한 알렉산더 황제의 유약함에 질린 군대는 황제를 살해하고 막시미니우스를 황제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그도 제위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하였다. 두 가지 사정으로 그는 미움과 경멸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 하

12 《정략론》 제3권 제6장 참조.

13 콤모두스(Commodus, 161~92) :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총신정치(寵臣政治)를 행하였고, 누이동생 루킬라 등에 의한 음모계획을 안 다음 이를 탄압하였다. 그 후 전학무도하게 행동하여 원로원과 대립하였다. 헤리클레스의 재현으로 자처하여 그렇게 분장하고 투기장에 출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음모로 선동된 역사(力士)에게 교살(絞殺)되었다.

14 막시미니우스(Maximinus, 173~238) : 트라키아의 농민 출신. 알렉산더의 암살 후, 장신·거구·대식가로 부하들의 신망을 얻어 최초의 군인황제로 추대되었다. 라인·다뉴브 지방의 미개민족을 정벌하였으나 원로원을 무시한 죄로 공적으로 선언받아 이탈리아 진군 중 부하의 손에 죽었다.

나는 그의 미천한 출신이었다. 원래 그는 트라키아 지방의 목동이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모든 사람의 눈에 비천하게 보였다. 또 한 가지 사정은 그의 잔인성에 기인한다. 그는 로마 황제에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로마에 나아가 황제의 옥좌에 앉으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파견한 장관들은 로마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가혹한 행위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그는 드물게 잔인한 사나이라는 평판을 얻고 말았다. 이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의 비천한 혈통을 경멸하고 그의 잔악무도한 행위를 증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맨 먼저 아프리카에서 황제를 배반하고, 이어서 로마의 원로원이 온 백성과 함께 반기를 들었으며, 마침내는 전 이탈리아가 그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 즉 아퀼레이아(Aquileia) 공략 임무를 맡았던 그의 군대가 포위 전략의 어려움에 지쳐 있었는데, 황제의 잔인성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던 군인들은 황제 반대 세력이 방대한 것을 알고는 황제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져 그를 살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나는 헬리오가발루스<sup>15</sup>와 마크리누스, 율리아누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그들은 너무 심한 경멸을 받아서 제위에 오르자마자 그 세력이 말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기로 하자. 오늘날에 있어서는 옛날과 달라 군주가 상식을 벗어난 수단을 불사해 가면서 자국의 병사들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적어졌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도 군주가 병사에게 가지는 다소의 배려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의 군주는 옛날과는 다른 군대를 가지고 있다. 즉, 로마 제국의 군대처럼 국가의 행정이나 여러 속령(屬領)의 정치·행정에 밀착한 군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된다. 게다가 로마 시대에는 백성보다 병사들이 더 권력을 좌우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군주는 당연히 백성보다 군대의 환심을 사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나 이집트의 술탄(Sultan)<sup>16</sup>의 경우만 뺀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민중이 병사보다 더 정

15 헬리오가발루스(Heliogabalus, 204~222) : 14세에 군대의 힘을 빌려 황제로 즉위하였다. 소행이 좋지 못하여 군대의 폭동으로 곧 살해 되었다.

16 콘스탄티노플(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교 군주와 이집트의 이슬람교 군주는 자국의 군사력을 가져 안정되어 있었다. 더구나 이집트의 이슬람 왕국은 1517년 당시의 오스만 투르크 군주 셀림 1세에 의하여 병합되었다.

치적으로 우세하다. 내가 오스만 투르크를 제외한 것은 이 나라에는 1만 2천의 보병과 1만 5천의 기병이 항상 황제를 보필하고 있어 그의 안태(安泰)와 세력이 이들 병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제로서는 다른 배려는 일체 뒤로 밀더라도 군대와의 친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라와 마찬가지로 술탄 회교국(回教國)에서도 모든 것이 군대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술탄은 백성에게 눈을 돌리기보다 병사들에게 먼저 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술탄 회교국은 다른 군주국들과는 상이하다. 즉, 이 나라는 세습 군주국도 신 군주의 나라도 아니다. 오히려 그 제도는 그리스도교의 교황 제도와 닮았다. 밀하자면 군주의 아들이 군위(君位)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군주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므로 그 군주를 신 군주라고 할 수도 없다. 거기에는 신생 군주국이 반드시 당면하는 곤란이 조금도 없다. 군주는 새롭지만 나라의 제도 자체는 오래 전부터 정해져져 있어 마치 세습군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어쨌든 지금까지의 논의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황제들의 파멸 원인이 한결같이 미움이나 경멸을 받는 데에 기인함을 잘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황제들 중 어떤 사람은 겸허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잔혹하였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서 성공한 자와 비참한 최후를 마친 자가 각각 생겼음은 무엇에 기인하느냐 하는 것도 이상의 논의에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요컨대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더는 신 군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속 군주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모방하려고 한 점은 백해무익하였다. 같은 뜻에서 카라칼라나 콤모두스 또는 막시미니우스 등은 세베루스를 모방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세베루스의 발자취를 따를 만큼 커다란 역량을 못 갖춘 이상 그 모방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베루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세베루스로부터는 권력의 토대를 구축함에 필요한 수단을,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부터는 이미 안정되고 견고한 제국의 영광을 보존하는 데 적절한 방책을 배워야 한다.



제 20 장

## 제20장

### 군주가 구축하는 요새 및 그 비슷한 것들은 과연 유익한가 유해한가

어떤 군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백성을 모두 비무장화하였다. 또 어떤 군주는 자기 지배 하의 여러 성시(城市)에서 파벌의 분쟁을 피하였다. 또 어떤 군주는 자기 자신에게 쓸리는 적의를 일부러 선동하고, 어떤 군주는 정권을 장악한 초기에 자기를 불신한 사람들을 애써 회유하였다. 어떤 군주는 성곽을 구축하였으나 다른 군주는 반대로 이미 있던 요새도 파괴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에 관하여 고정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우선 각 군주들이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총괄적인 논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도대체 새로 군주가 된 자로서 백성의 무장을 해제시킨 자는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속민(屬民)들이 비무장 상태에 있을 때 새 군주는 반드시 이들을 무장시켰다. 백성을 무장시키면 그 병력이 자기의 힘이 되는 까닭이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당초에 회유되지 않았던 자는 충성스러워지고, 원래부터 충성을 서약하였던 자는 그대로 동조자로 남는다. 이리하여 속민들은 보다 단순한 속민으로부터 지지자로 변하기 마련이다. 또 백성 전체를 무장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무장된 자들에게만 특혜를 주어도 된다. 이들을 근거로 다른 속민들에게도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자 간에 나타나는 처우의 차이 때문에 전자는 점점 더 은혜를 느낄 것이다.

한편 후자도 무인의 임무는 위험도가 더 높고 책임도 무겁기 때문에 우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석하여 당신의 태도를 납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속민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면 그것은 그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된다. 즉, 그들의 충성심을 불신한다는 증거가 된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속민들은 당신을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군주는 무방비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병제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용병일지라도 그들은 강력한 적군이나 격노한 민중 앞에서 당신의 몸을 보호할 만큼 충성스럽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 군주들은 반드시 국내에서 군대를 조직하여 왔다. 우리들의 역사에는 이러한 실례가 넘치도록 많다.

한편 구 영토에다 새로이 얹는 영토를 합병시킨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에는 새로 합병한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비무장화해야 한다. 합병 때 당신에게 협력한 사람들은 우선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도 시간이 흐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을 빼야 한다. 이리하여 군주는 자기 나라 출신으로서 측근에 있던 부하 병사들로 군대를 조직해야만 한다.

우리들의 조상, 특히 현인이라고 송양받던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였다. 즉 피사(Pisa)를 다스립에는 성곽이 있어야 하고, 피스토이아(Pistoia)를 통치함에는 파벌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뜻에 부합되게 옛사람들은 점령지역을 원활히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 지역에 분열을 심어놓았다. 이 대책은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평화의 균형<sup>1</sup>이 유지되던 때만 해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수단이 일반원칙으로 통용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열정책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오늘날은 세력이 약한 편이 반드시 외세와 결탁한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쪽의 대응이 힘들어지고, 따라서 한번 적이 침공하여 오면 이런 내분상태의 도시는 금방 멸망하리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어쨌든 통치의 방법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 지배 하의 여러 도시에 교황파와 황제파라는 두 파벌을 조성하였다. 베네치아는 양 파벌 간의 유혈 참극을 막았지만 실제로는 두 파 사이의 의견 대립을 선동하였다. 이것은 시민들이 서로 항쟁에 몰두하여 베네치아 자체에 결속된 힘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것은 베네치아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베네치아가 바일라(Vaila)<sup>2</sup>의 전투에서 패하자, 그 지배에 있던 도시들 중 일부<sup>3</sup>는 곧 용기를 되찾아 베네치아 세력의 기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군주는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

1 15세기 후반 대 로렌초 공은 '균형정책'이라 일컬어지는 평화정책을 썼다.

2 윌리우스 교황을 맹주로 삼은 캉브레(Cambrai) 동맹의 군대가 1509년 베네치아 군을 격파한 곳.

3 Verona, Vicenza, Udine, Padova 등의 도시.

리고 강력한 정부는 결코 이런 분열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 설사 이런 분열정책이 평화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참담한 결과를 빚는다. 대 군주란 모름지기 자기 앞에 가로놓인 혐준한 장애를 극복하는 자를 말한다. 신 군주가 대 군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평판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신 군주가 거물이 되려면 운명의 신이 그에게 많은 적을 주어 투쟁의 길을 열어 놓는다. 여기서 승리하면 적이 마련한 사다리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기회만 있으면 적대 관계를 교묘히 만들어 이의 극복을 통하여 스스로의 세력을 확장한다.

군주는, 특히 새 군주는 정권을 잡던 초기에 반항하던 사람들일수록 처음부터 혼신을 약속한 사람들보다 더욱 믿을 만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에나(Siena)의 군주 판돌포 페트루치<sup>4</sup>는 되도록이면 처음에 자기를 불신하던 인물들을 정복사업에 기용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 이 문제에서는 모든 것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논리를 일반화할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새 군주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일지라도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이들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악평을 봉사로써 씻어야 한다고 통감하는 만큼 군주에게 향하는 충성심이 크다. 그래서 안일한 기분으로 봉사하면서 자기네의 이해만을 생각하는 무리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면, 그 중대성이 비추어 충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국내의 지지자들을 발판으로 새로이 나라를 얻은 군주라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자기편을 들었는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지원자들이 신 군주를 자연스럽게 경애한 것이 아니라, 전 군주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협력하였다면 이들을 끝까지 동지로 삼기 힘들다. 그것은 신 군주도 이들의 기대에 어긋나

4 판돌로 페트루치(Pandolfo Petrucci, 1450~1512) : 의부(義父)인 니콜로 보르게제가 토스카나 지방에까지 그 손길을 뻗쳤을 때 격렬하게 항거하였다. 한번은 보르지아에게 쫓겨나 시에나를 떠난 일이 있으나, 2개월 후에는 루이 12세의 원군을 얻어 군위(君位)에 복귀하였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사절로서 그를 만난 일이 있다.

기 쉽기 때문이다. 또 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전의 군주에게 불만을 품고 새 군주에게 호의를 보여 자국(自國)을 정복케 한 사람들을 자기편에 두기보다는, 이전의 정권에 충실하고 새 군주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협력자로 두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군주 자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군주들은 흔히 성곽을 구축한다. 그 목적을 반란을 막기 위한 것과 첫 공격에 대비하는 피난처를 마련함에 있다. 이 방법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나도 찬성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니콜로 비텔리 경<sup>5</sup>은 나라의 수호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치타 디 카스텔로의 두 보루를 허물었으며, 우르비노 공(公) 귀도발도<sup>6</sup>도 체자레 보르지아에게 쫓기어 자기의 통치 영역을 벗어났다가 그 후 돌아오자마자 우선 이 지방의 성塞(城塞)부터 파괴하였다. 그는 성만 없으면 두 번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앞서 말한 벤티볼리 일문(一門)도 망명지로부터 볼로냐에 돌아왔을 때 같은 대책을 취하였다.<sup>7</sup> 요컨대 성곽은 때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될 수 있다. 또 어떤 면으로는 당신에게 유용하다가도 다른 면으로는 해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국외의 세력보다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군주는 성곽을 세워야 하고 자국민보다 국외를 두려워하는 군주는 요새를 구축하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밀라노에 성곽을 세웠지만, 이 성곽이 스포르차에게는 나라의 어떤 분쟁보다 더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따라서 군주에게 있어서 최상의 성곽은 바로 백성의 미움을 사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성을 세워 보아도 민중의 격노 앞에서는 당신을 구할 수 없다. 민중이 봉기하게 되면 반드시 민중의 편에 서려는 국외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5 니콜로 비텔리 경(Messer Niccolò Vitelli) : 용병 대장으로서 메디치 가의 지지로 치타 디 카스텔로를 영유하였으나 1474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쫓아냈다. 1482년 군위(君位)에 복귀하여 교황이 세운 요새들을 허물었다.

6 귀도발도(Guidobaldo, 재위 1482~1508) : 1502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군위(君位)에서 쫓겨났다가 알렉산데르 교황 사망 후 복귀(1504)하여 영내(領內)의 성을 전부 파괴하였다.

7 Bentivogli 가(家)는 1506년 율리우스 교황에게 쫓겨났다가 1511년 복위하여 교황이 세운 포르타 가리에라의 성곽을 부수어 버렸다.

성곽이 군주에게 도움이 된 실례는 오늘날 보기 드물다. 단 하나의 예외로서 남편  
지롤라모(Girolamo) 백작이 살해된 후의 푸를리(Furli) 백작부인의 경우가 있다.  
그녀는 요새의 덕으로 민중의 습격을 피하고 밀라노의 구원을 얻어 나라를 도로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이 백작부인에게는 다행이었지만, 당시 민중에 가세할 국  
외 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새가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이  
부인이 체자레 보르지아의 공격을 받아 내적(內敵)이던 민중이 적과 결탁하였을  
때에는 성곽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이든 또 그전의 경  
우이든 성곽을 구축하기보다는 민중의 종오를 사지않는 것이 부인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책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상의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성곽을 세우는 이에게나 안 세우는 이에게  
나 다같이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요새를 너무 믿어 서슴지 않고 민중의 미움  
을 사는 이에게는 비난이 있을 따름이다.



제 21 장

## 제21장

###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군주가 명성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대규모 계획을 세우고 희귀한 실례를 몸소 행해야만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에스파냐 국왕 아라곤 가(家)의 페르디난도가 그 좋은 예이다. 이 사람은 약소국의 군주로부터 몸을 일으켜 명성과 명예를 한몸에 지니고 그리스도교국 제1의 국왕으로까지 성장하였으니 가히 신흥 군주라고 일컬을 만하다. 실제로 페르디난도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규모가 크고 범상하지가 않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곧 그라나다(Granada)를 공격하였다. 이 군사행위는 나라의 기초를 굳혔다. 그때는 국내가 평화로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을 염려가 없었다. 말하자면 카스티야(Castile)의 봉건 제후들의 야심을 이 군사행동에 둑어 놓고 전쟁에만 생각을 집중시켜 국내의 개혁 문제를 잊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제후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 대한 지배력이 확고해졌다. 그는 로마 교회와 민중의 돈<sup>1</sup>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전쟁 경비를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었고 군사력의 기초 작업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군사력은 후일 그의 명성의 근원이 되었다. 그밖에도 그는 종교를 구실삼아 광신적인 진학성으로 무어인(Moor)<sup>2</sup>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의 응징처럼 잔인한 예는 드물었다고 한다. 그는 역시 같은 구실로 아프리카를 공략하고<sup>3</sup> 이탈리아에까지 침입했으며<sup>4</sup>, 심지어는 프랑스에도 진격하였다.<sup>5</sup> 이와 같이 그는 쉴 새 없이 큰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 때문에 백성들은 항상 정신을 못 차리고 감탄하였으며, 그가 추진하는 계획에 몰두하기에만 바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행동이 연달아 이루어졌고, 각 행동은 면밀하게 연

1 종교전쟁이었던 그라나다 공격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이 모금한 교회에의 기부금을 말한다.

2 돼지 라는 뜻. 겉으로 그리스도교에 개종한 체하는 에스파냐의 회교도나 헤브라이 인들을 말함.

3 1509년 오랑(Oran)에서 트리폴리까지의 북아프리카를 정복, 튀니지아와 알제리아 두 왕국을 속령으로 하였다.

4 나폴리 왕국 공략.

5 1512년 피레네 지방 나르바 왕국을 점령.

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숨을 돌릴 사이도 없었으며, 사건의 진전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군주가 국내 정치에서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할 때는 세상이 놀랄 만큼 특이한 방법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좋다. 예를 들면 밀라노의 베르나보(Bernabo) 공이 행한 바가 그렇다. 이 군주는 누구든지 시민생활에 있어 큰 죄를 짓든가 남다른 봉사를 하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상별에 있어서 범상하지 않은 방법을 취했다. 요컨대 군주는 자기의 행동 전반에 걸쳐 그릇이 크고 발군의 재능을 가졌다라는 세평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군주는 적과 자기편을 명시할 때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의 지지 혹은 적대감정을 주저없이 밝힐 때 그는 커다란 존경을 받는다. 이러한 태도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어중간한 입장보다 훨씬 유효하다. 당신에게 인접한 두 세력이 무력으로 대립하였을 때 승리는 둘 중의 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이때의 승리자를 당신은 두려워할 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군주는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공공연히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령 승리자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일 경우, 만일 당신의 입장을 밝혀두지 않으면 당신은 승리자에게 먹힐 염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런 재앙을 패자 쪽에서도 좋아한다. 이럴 때 군위를 지키려 해도 명분이 서지 않으며 은닉해 줄 사람도 없다. 승리자는 자기가 역경에 처했을 때 모르는 체하던 자를 동지로 생각지 않는다. 패자도 자기를 위해 무기를 들려 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옛날에 안티오페스가 아이톨리아 인들의 요청으로 로마군을 쫓으려고 그리스로 진공하였을 때, 안티오페스는 원래 로마군 편이던 아카이아(Achaia)에 사절을 보내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래서 아카이아 인들은 이 문제를 평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다. 안티오페스의 사절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그들의 권리에 의하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당신 네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당신네 이익을 무시한 논법도 없습니다. 그러한 짓을 하면 당신네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존엄성도 지키지 못하며, 그저 승리자의 전리품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당신 편이 아닌 자가 중립을 요구하여 오든가, 자기편이었던 자가 군사원조를 청해 오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이때 결단력이 부족한 군주는 대체로 당면한 위험성만을 회피할 셈으로 중립의 길을 택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군주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 이에 반해서 자기의 입장을 선명히 하는 군주도 있다. 이럴 때 만약 당신이 편드는 쪽이 승리를 거둔다면, 혹시 그 자가 당신을 마음대로 움직인다손 치더라도 당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 그리고 그와 당신은 우정의 끈으로 단단히 결속된다. 자고로 인간이란 그러한 상대마저 학대하고 배은망덕하는 본보기가 될 정도로까지 타락하지는 않는다.<sup>6</sup>

더구나 승리자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고 또 공명정대한 배려까지도 무시해 버릴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승리란 있을 수 없다. 도와준 쪽이 패배했다손 치더라도 당신은 그의 옹호를 받는다. 그는 힘 닿는 데까지 당신을 성원해준다. 당신과 운명을 같이하여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

다음 두 번째의 경우, 즉 교전자 중 누가 이기든지 당신이 두려워할 바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맹을 맺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신이 정말로 현명하다면 다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 둘 중에서 한쪽만을 돋는 것은 다른 한쪽을 멸망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도와준 사람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역시 당신 뜻대로 움직일 뿐이니, 그것은 당신의 원조를 떠나서는 승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군주란 필요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 손을 잡고 제삼자를 공격하면 못쓴다.<sup>7</sup> 이런 경우 승리를 거둔다 해도 승리한 동맹자의 포로가 되기 마련이다. 군주는 될 수 있는 한 타인의 뜻대로 되는 것을 피해야한다.

일찍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밀라노 공에 대항하였다.<sup>8</sup> 그러나 후일 베네치아를 파멸로 이끌게 된 이 동맹은 처음부터 맺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교황과 에스파냐가 군대를 이끌고 롬바르디아 지방을 공격하였을 때의 피렌

6 여기서는 인간을 사악한 존재로 보는 마키아벨리의 비관적 인간관이 조금 완화되었다.

7 마키아벨리는 소극적 중립론을 논박하면서 동시에 동맹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8 1449년, 베네치아는 루이 12세와 동맹, 밀라노를 정복하였다.

체 공화국<sup>9</sup>처럼, 동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물론 어느 한쪽에 가세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쨌든 안정책만을 취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항상 불안정한 방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사물의 원칙이다. 어떤 고난을 피했다고 다음에 또 고난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사려깊은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고난의 성격을 통찰하여 될 수 있는 한 해독이 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실력 있는 자를 아끼고, 한 가지 재주에 특출한 자를 우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백성들이 상업·농업, 기타 업무에서 각기 안심하고 맡은 바 직책을 다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 백성들이 재산을 군주에게 빼앗길까봐 증산을 계을리하고 중세(重稅)가 무서워 상행위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증산에 이바지하는 자, 자기네 도시나 국가의 번영을 진심으로 위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어야 한다. 또 이밖에도 일년 중 적당한 시기에 축제나 구경거리를 벌여 민중을 이에 몰두시켜야 한다. 속민(屬民)들은 상공인 단체[guild]나 각 계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각 집단의 사람들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의 회합에 나타나 스스로 풍부한 인품과 넓은 도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군주의 엄격한 위광은 항상 견지해야만 한다.

9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프랑스에 적대하여 조직한 신성동맹에서 피렌체는 중립을 지켰다. 그 결과 피렌체 공화국은 쓰러지고 메디치 일족이 복귀하게 되었다.



제 22 장

## 제22장

### 군주의 측근 대신

군주가 대신을 선정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군주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인재도 혹은 쓸모없는 인물도 등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의 두뇌가 좋고 나쁨을 알려면 먼저 그 측근을 보면 된다. 측근자들이 유능하고 성실하면 그 군주도 총명하다고 평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실력을 알아보았고 또 그들의 충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측근이 무능한 때는 군주를 좋게 평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이미 인선(人選)에서 과실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토니오 디 베나프로(Antonio di Venafro)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재상으로 맞아들인 시에나의 군주 판돌포 페트루치가 탁월한 인품의 소지자라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두뇌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단독으로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는 남이 이해한 것을 알아 차리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고 남의 생각도 모르는 경우이다. 첫 번째 두뇌는 가장 우수하고, 두 번째 두뇌는 조금 우수하고, 세 번째 두뇌는 무능하다. 판돌포 공은 첫 번째 두뇌 정도까지는 못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두뇌는 가졌음에 틀림 없으며, 사실 이로써 죽하다. 모름지기 군주란 자신은 창의력이 모자라더라도 타인의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줄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군주는 재상의 행동에서 좋고 나쁜 것을 식별하고, 좋은 행위는 칭찬하며 나쁜 행동은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러면 재상 쪽에서도 군주를 속이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면 군주는 어떻게 대신의 인품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확실한 식별법이 있다. 즉, 그 대신이 군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면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측근일 수가 없다. 따라서 군주도 이런 신하에게는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된다. 나라를 위탁 받은 인물은 자기 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항상 군주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주와 관계 없는 일은 결코 염두에 두어서는 못쓴다.

입장을 바꾸어 말하자면, 군주는 대신에게 충성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명

예를 주고 풍요한 생활을 보장해 주며 은의(恩義)를 베풀고 명성과 책무를 함께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신하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군주는 대신에게, 군주인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으며 변혁이란 전혀 바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 깊이 심어 주어야 한다. 군주가 대신에게 이런 태도를 지니고, 대신이 군주를 이와 같이 모신다면 그들의 결속은 굳어진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양자 중 어느 한쪽에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닥친다.



제 23 장

## 제23장

### 간신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여기서는 극히 중요한 문제, 즉 군주가 범하기 쉬운 과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군주가 여간 사려 깊지 않든가 또는 훌륭한 인선(人選)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과실을 피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즉, 궁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첨꾼 간신들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자기 일에 관한 한 정말로 자존적(自尊的)이다. 흑사병에서 자기의 몸을 지키기란 여간 힘들지 않아 항상 남의 말에 속기 마련이다. 더구나 함부로 오염을 막으려다가는 양보일 위험성마저 있다. 그러므로 아첨에서 몸을 지키려면, 당신에게 진심을 고해도 결코 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리밖에 없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당신에게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는 당신이 존경을 잃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분별 있는 군주가 택할 길은 제3의 길인 것 같다. 즉, 군주는 국내에서 현인들을 골라내어 이 사람들에게만 군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며, 더구나 그것은 군주가 하문(下問)하는 문제에 한할 뿐, 다른 일에 대해서는 허용치 말아야 한다. 군주는 이에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 혼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구나 이런 조언 전체에 대해서도, 또 개개의 조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솔직할수록 환영받는다는 뜻을 충분히 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도 듣지 말 것이며, 군주 스스로가 결정한 것은 실행하되 그 결정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간신에게 놓락당할 것이며, 잡다한 의견 앞에서 번의(翻意)를 거듭하여 군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하락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실례를 하나 들고 싶다. 지금의 황제 막시밀리안<sup>1</sup>의 신하 루카 신부<sup>2</sup>는 이 황제의 인품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자기의 뜻으로 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권유하는

1 막시밀리안(Maximilian, 재위 1493~1519) : 신성 로마 제국 황제.

2 루카 리날디 : 1500년에서 2년 간 트리에스테의 사교(司教)였다.

방법과는 정반대의 것이라 하겠다. 이 황제는 은밀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는 자기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또 아무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실행에 옮길 즈음에는 그 계획이 알려지고 전모가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이때 그는 약한 기질인지라 곧 자기 계획을 철회한다. 이처럼 오늘 시작한 일이 내일은 허물어지고, 도대체 이 황제의 계획하는 일이 무엇이고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끝내 황제의 결단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황제는 항상 남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은 남이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바랄 때라야만 한다. 아니 군주가 하문할 때 이외에는 아무도 감히 진언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문함에 있어서는 군주가 도량이 넓은 질문자가 되어야 한다. 또 자기가 질문한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진실을 참을성 있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에 대한 외경(畏敬)이 지나쳐 대답을 주저할 때에는 오히려 불쾌하다는 뜻을 나타내야 한다.

군주가 총명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은 사실 그 자신의 자질보다는 그 측근에 훌륭한 조언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명백하게 잘못된 오해이다. 왜냐하면 군주가 총명하지 못하면 남의 의견을 잘 모으지 못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신하가 지극히 총명할 때 군주는 그 신하에게 정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수가 있어 이때만은 예외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는 모든 것이 잘 운행된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는 못갈 것이다. 국정을 전면적으로 담당한 이 신하는 곧 군주로부터 나라를 빼앗을 것 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조언자들이 제각기 사리사욕에만 빠져 있다면, 그 군주는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종하고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조언자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인간이란 필요하니까 선한 짓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당신에게도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요컨대 결론은 이렇다. 누군가가 훌륭한 조언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좋은 의견은 당연히 군주의 깊은 사려에서 나오는 것이지, 훌륭한 진언에서 군주의 깊은 사려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 24 장

## 제24장

###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왜 영지를 잃었는가

신흥 군주는 이상에서 논한 바를 신중히 지켜야 한다. 그러면 세습 군주와 다름없이 존경받을 뿐 아니라 시간을 통해 다져진 권력처럼 국내에서의 지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신흥 군주의 행동은 세습 군주의 행동보다 더 주목을 끌며, 그 인물이 역량 있다고 인정되면 전통 있는 집안의 군주보다도 더 민심을 모아 민중과의 결속이 탄탄해진다. 인간은 과거의 일보다도 현재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다. 현상에 만족하면 이를 즐겨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뿐 아니라 군주에게 큰 과실이 없는 한 위기에 처한 군주를 수호하려고 나서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 군주는 새 나라를 세웠으며, 이 나라를 훌륭한 법률·군대·동맹국·전례(前例)로 장식하여 그 국가를 강대하게 하였다는 이중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군주로 태어나 스스로의 사려가 모자라서 나라를 잃은 사람은 이중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예를 들어 나폴리 왕<sup>1</sup>이나 밀라노 공<sup>2</sup>같은 나라를 잃은 군주들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함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공통된 결함이지만 군사 면에서 저지른 과실이요, 두 번째는 민중의 중요성을 샅든가 아니면 민중의 편을 들어 귀족에게 미움을 받았든가 하는 결함이다. 그들이 다스린 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였다. 그러니 이러한 과오들만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국가를 잃었을 리 없다.

티투스 퀸투스(Titus Quintus)에게 패배한 마케도니아의 필립<sup>3</sup>(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아니다)이 다스리던 나라는 침공하여 온 로마나 그리스의 국력에 비하면 소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무인(武人)이었고 민심을 얻어 귀족을 견제하는 데 능숙하였기 때문에 적군을 상대로 여러 해 동안 전쟁을 지탱할 수 있었다.

1 에스파냐 왕 페르디난도와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동맹군에 의하여 1503년 나폴리 왕국을 잃었다.

2 루드비코 일 모로. 1499년 루이 12세에 의하여 군위(君位)에서 쫓겨났다.

3 필립(Philip) 5세 : 기원전 197년 로마군에 패하여 그리스의 모든 도시를 내놓았으나 마케도니아에서는 왕위를 확보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개의 도시를 잃기는 하였으나 자기의 왕국은 확보할 수 있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군위에 앉아 있던 이탈리아 군주들이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운명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군주들 스스로가 무력한 데 있다. 하늘이 맑은 날 벼락을 생각지 않는 것은 인간 공통의 약점이다. 그들은 평온한 시대에 살면서 닥칠 수 있는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막상 적이 육박해 오자 당황한 나머지 지킬 생각보다 도망칠 궁리부터 먼저 하였다. 그러고는 점령자들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민중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만 하늘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 모르나 이 방법만 믿으면서 다른 모든 방법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안 될 이야기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일으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쓰러지는 격이다.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 설사 백성이 당신을 다시 불렀다 해도 이는 당신이 행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이는 안전책이라 할 수 없다. 군주에게 있어서는 모든 방비를 자기 스스로의 역량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또 그 래야만 이 방비가 훌륭하고 확실하며 장구한 것이 될 수 있다.



제 25 장

## 제25장

### 운명은 인간사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졌으며, 또 운명의 힘에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원래 세상일이란 운명과 신이 지배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인간이 용의주도하게 살아도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으며, 또 어떠한 대책도 소용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법으로 하자면 땀 흘려가며 애쓸 필요 없이 운명의 신에 몸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우리는 오늘날까지 인간의 예측을 뒤엎는 격변을 겪어왔다. 그래서 이런 운명론적 견해는 거칠없이 퍼져나갔다. 이런 사실에 생각이 미칠 때, 때로는 나 자신까지 얼마간 그들의 의견을 좇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의 자유의지만은 어떻게든 잃어서는 안 되겠다. 가령 운명이 인간 활동의 반을 마음대로 재정(裁定)한다순 치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반은 우리들의 지배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운명의 여신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강에 비길 수 있다. 이 강은 성이 나면 들녘으로 넘쳐 흐르고 수목이나 집을 파괴하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땅을 옮겨 놓기도 한다. 누구나 그 격류를 보고 도망치며 저항할 바를 모르고 그 앞에 굴복하고 한다. 강이란 이런 성질을 가졌지만, 그러나 평온할 때 미리 제방이나 둑을 쌓아 단단히 방비를 해둘 수 있다. 그래서 그 후 강물이 범람하더라도 운하 쪽으로 흘러 내리도록 하면 강은 그 맹위를 잃게 된다. 운명도 이와 같은 것이다. 저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운명이다. 그것은 저지할 만한 장애물이 없으면 더욱 그 맹위를 떨치는 것이다.

지금 이탈리아는 격변의 균원이자 무대이다. 이탈리아를 잘 살펴보면 여기가 바로 제방 없는 강변임을 알 수 있다. 즉, 이탈리아에도 독일·스페인·프랑스에서와 같이 적절한 힘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홍수도 오늘날과 같은 격변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홍수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운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관찰해 보면, 어떤 군주가 오늘은 용성했다가 내일은 멸망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구나 이 군주의 심경이나 기질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운명에 전적으로 의존해 버리는 군주는 운명의 전변(轉變)에 따라 멸망할 수가 있다. 즉, 세상의 변천에 따라 자기의 나아갈 길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성공하며, 반대로 시대와 자기의 처신이 어긋나는 사람은 혼란을 면치 못한다. 인간은 모두 한 목표를 갖는다. 그것은 영광과 부(富)다. 그러나 이 동일한 목표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신중파가 있는가 하면 과단파도 있고, 폭력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모사꾼도 있으며,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전혀 끈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은 서로 상이하지만 제각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의 경우, 한 사람은 목적지에 닿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수가 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이 다같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용의주도한 사람과 성급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은 다같이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성품이 과연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달렸다. 이로써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동일한 행동이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라고 어떤 때에나 좋을 수는 없다. 만약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통치하는 방법이 시대의 성격이나 상황에 적합하다면 이로써 그 군주는 번영할 것이며, 반대로 시대의 성질이나 상황이 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그는 또 이로써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세에 적응하는 현명한 인간이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타고난 성질대로 움직이기 쉽고 거기에서 해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길로써 번영을 누린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날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용의주도한 사람은 과감히 움직여야 할 때가 와도 팔짱만 끼고 앉아서 파멸을 면치 못하는 수가 많다. 시세에 맞추어 자기 성질을 바꾸어 나간다면 운명이 변화할 리가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건 과감하게 처리하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시대의 성격과 상황에 스스로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그가 조반니 벤티볼리 공이 살아 있을 당시의 볼로냐에 대하여 처음 싸움을 걸던 때를 상기해 보자.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러한 그의 계획을 좋지 않게 보았다. 에스파냐의

국왕 페르디난도 5세도 그와 같은 심경에서 프랑스 왕과 함께 교황의 이런 처사를 자주 논의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황은 타고난 용맹성과 조급성으로 해서 스스로 원정에 나섰다. 그런데 신속한 이 장거(壯舉)로 해서 에스파냐와 프랑스는 공중에 떠 견제되고 말았다. 베네치아는 무서워 떨었고, 에스파냐와 니폴리 왕국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도 교황의 편에 서게 되었다. 프랑스 공화국은 베네치아 공화국을 응징하기 위하여 교황과의 친선이 필요했으며, 이런 때 병력의 원조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황을 공공연히 모멸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율리우스는 그 과단성 있는 행동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우유부단한 교황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성취하였다. 다른 교황이었다면 중론(衆論)이 굳혀지고 준비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로마를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그 신속성에 있었다. 출발을 늦추고 있었더라면 프랑스 국왕은 원조 거절의 구실을 어떻게든지 마련하였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좀 더 그를 위협하였을 것이다. 이 교황의 다른 행동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련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의 활약은 한결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기는 그의 생애가 짧았던 덕택으로 그 와 반대되는 결과는 맛보지 않았지만, 만약 신중한 방법을 요구하는 시대에까지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실패도 역시 있었을 것이다. 그는 타고난 성질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결론을 얻는다면 운명은 가변적(可變的)이라는 것이다. 즉, 운명은 수시로 변한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생활태도를 고집한다. 여기서 운명의 방향과 사람의 생활태도가 부합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화가 깨어지는 날, 모든 불행은 쏟아지는 것이다. 나는 용의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과단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운명의 신은 여신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녀를 정복하려면 난폭하게 다루어야 한다.<sup>1</sup> “운명은 냉정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폭력적인 사람에게 더 유순한 것 같다. 요컨대 운명은 여성이다. 그녀는 젊은이들을 사랑한다. 즉, 젊은이들은 텔

1 여자는 학대할수록 좋다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 풍조였다. 당시의 격언으로 “좋든 나쁘든 여자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신중하고, 더 거칠고, 그리고 과단성이 있는 법이다.



제 26 장

## 제26장

### 만족(蠻族)으로부터의 이탈리아 해방을 위한 권유

과연 신흥 군주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에서 명성을 드넓힐 수 있을까. 한 사람의 뜻 있고 역량 있는 군주가 새로운 정체(政體)를 이 나라에 바칠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왔단 말인가. 말하자면 군주 한 사람의 영광이 국민 전체의 복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말인가.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바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현재는 신흥 군주에게 있어서 만사가 호전되는 때인 것 같다. 신흥 군주를 위하여 지금처럼 적절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은 모세의 역량을 알게 하는 데 필요했었고, 키루스 왕의 위대한 정신은 페르시아 인들이 메디아 인들로부터 펫박을 받았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며, 또 테세우스의 탁월한 진가도 아테네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을 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천재가 활짝 피어나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떨고 있듯이 이탈리아가 최악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실로 이탈리이는 헤브라이 민족 이상으로 노예화되고 페르시아 인들보다 더 혹사당하고 아테네 인들보도 더 지리멸렬하며, 지도자도 없고 질서도 없이 짓밟히고 헐벗고 찢기고 유린당하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재앙을 견디어왔다.

그래도 한때는 한줄기의 광명이 비치기도 했었다. 신이 이탈리아의 속죄를, 한 인물<sup>1</sup>에게 명한 듯이 보인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바야흐로 그 빛나는 생애의 절정에 오르는 순간 운명의 손으로부터 벼림을 받았다. 이리하여 빈사(瀕死)의 이탈리아는 그저 자기의 상처를 아물게 해줄 인물,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거듭되는 약탈<sup>2</sup>이나 나폴리 왕국과 토스카나 지방에서 자행되는 착취<sup>3</sup>를 끝장낼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곪아 터진 상흔을 치료해 줄 위인의 출현을 목마르

1 체자레 보르지아를 가리킴.

2 1494년 이후 롬바르디아는 늘 전쟁터였다.

3 여기는 전쟁터는 아니었으나 백성은 국왕과 황제의 중세(重稅)에 시달렸다.

게 기다렸다. 무자비한 미개인들의 잔학과 횡포에서 그녀를 구해 줄 구세주를 위하여 이탈리아는 하느님께 기구(祈求)한다. 누구라도 깃발을 높이 쳐들어 궐기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탈리아는 그 뒤를 따라나설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오랜 전통에 빛나는 덕성을 갖추고 행운을 겸비했으며,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교황의 옥좌 까지 지키고 있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집안<sup>4</sup>이 이 속죄의 행렬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이탈리아는 그 희망을 다시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열거한 인물들<sup>5</sup>의 위업이나 일생을 잘만 상기해 준다면 이 창업도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들은 드물게 보는 경탄할 만한 위인들이긴 하였으나 역시 인간이었고, 그 중 누구를 놓고 보아도 지금처럼 혜택 받은 기회는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위업도 오늘날처럼 정의롭지는 못 하였고 당신처럼 하느님의 가호를 받고 있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진실로 찬란한 정의의 광명이 비친다. 어쩔 수 없을 때의 싸움은 정의이며, 무력만이 단 한 가지 남은 방법이라면 무력 또한 신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만백성의 희망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로 뭉친 정신이 뒷받침하는 한 당신의 성공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은 ‘기적’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시한다. 바다는 갈라지고, 구름은 길잡이가 되어 바위에서 샘이 솟고, 이 땅 위에는 하늘에서 ‘만나’<sup>6</sup>가 떨어져 내리고, 모든 것이 당신의 위업을 도우려고 한다. 다음은 당신의 활약만이 있을 뿐이다. 하느님이 일체의 것을 모두 맡아 하시지 않음은 우리들로부터 자유의지를 빼앗거나 우리 네 인간들에게 조금 남은 영광을 마저 없애지 않으시려는 배려 때문이다.

고명한 당신 가문에 기대하는 우리의 이 위업은 일찍이 어느 이탈리아 인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탈리아가 겪은 그 수많은 혁명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이탈리아가 주무대였던 그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도 이 위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군사력만 빛을 잃었다. 그 원인은 이탈리아의 낡은 제도가

4 교황 레오 10세를 배출한 메디치 가(家)를 말함. 특히 여기서는 후에 우르비노 공(公)이 된 로렌초 데 메디치를 가리킨다.

5 모세 · 테시우스 · 키루스.

6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은총으로 얻었다는 음식물(《구약성서》《출애굽기》).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찾아낸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법률을 제정하고 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신흥 군주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이것이 성사되면 군주는 만인의 찬양과 존경을 한몸에 모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는 가장 보편적인 개혁을 받아들일 내적 요인이 충분하다. 머리에는 힘이 없어도 수족에는 힘이 넘쳐 흐른다. 각 개인은 용맹하지만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결투나 소수인의 싸움에서는 이탈리아 인들이 힘에서나 민첩성에 있어서나 재지(才智)에 있어서나 한결같이 우수하다. 그러나 일단 군대라는 단위로 전쟁이 확대되면 그들의 모든 역량이 소멸된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무력한 데 기인한다. 즉, 각 개인은 우수하기 때문에 남에게 복종하려 들지 않는다. 또 누구나가 지력(智力)을 갖추고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역량이나 운에 있어서 뛰어나게 걸출하여 남을 심복시킬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과거 20년 간 수많은 전투에서 이탈리아 군대는 언제나 결과가 나빴다. 타로(Taro)의 전투를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카푸아, 제노바, 볼로냐, 메스트리(Mestri)의 전투<sup>7</sup>들은 모두 이 점을 실증한다.

따라서 민족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옛 위인들<sup>8</sup>을 당신네 저명한 일문이 본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 행동의 진정한 기틀, 즉 자국민만으로 구성된 병력을 길러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우수한 병사들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훌륭한 이들 병사가 한데 뭉쳐 총명한 군주의 지휘를 받고, 후대를 받고, 영광을 얻는 날에는 더욱 우수한 군대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 인의 용맹으로써 이방(異邦)의 병사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이 자국 군대를 정비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예컨대 스위스나 에스파냐의 보병대가 무섭다는 정평이 있다. 그러나 이를 군대에는 각각 결함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들 외에 제3의 보병대<sup>9</sup>로 저항한다면 이들을 무찌를 수도 있는 것이다. 에스파냐 보병대도 기병대에는 약하며, 또 스위스 군

7 이 예는 모두 1495년에서 1513년에 걸쳐 외국군과 이탈리아 군 사이에 있었던 전투를 말함.

8 모세·테세우스·카루스를 가리킴.

9 이탈리아 민병제(民兵制)의 보병대를 말함.

도 전장에서 그들만큼 집념을 갖고 싸우는 완강한 보병대는 두려워 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에스파냐 군은 프랑스 기병대에게 저항하지 못하였고, 스위스 군은 또 에스파냐 보병대에게 꼼짝 못하였다. 후자의 경우, 특히 라벤나의 전투에서 그 증거가 나타났다. 이때 에스파냐 보병대는 스위스 군과 같은 전투대형을 취한 독일 군과 교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에스파냐 보병들은 민첩한 몸과 손에 휘 방패의 덕으로 독일 군의 창 밑으로 뛰어들어가 교묘히 몸을 보호하면서 독일 군을 한껏 무찔렀다. 그때 기병대가 단숨에 뒤벼들지 않았더라면 독일 군은 전멸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즉, 각각의 군대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 기병대에도 저항할 수 있고 보병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군대체제를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병기의 종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군대의 조직과 규율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 군주의 명성과 위세는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

오늘날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좋은 시기다.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림에 지친 이탈리아에는 구세주가 나타나야만 한다. 지금까지 이방인의 홍수에 밀려 그토록 진통을 겪어온 이탈리아의 방방곡곡에서는 얼마나 큰 경모(敬慕)의 정으로 구세주를 맞아 들일 것인가. 복수의 갈망, 충성의 일념, 존경심, 그리고 기쁨의 눈물 등, 이 모든 것으로써 그를 맞을 것이다. 그때 이 군주 앞에 닫혀진 문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느 백성이 그에게 충성을 거부할 것인가. 어느 누가 그의 성공을 질투한단 말인가. 아, 아! 이 야만족의 지배에 가슴 터지지 않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이 싸움은 정의롭고 정당하다. 영예로운 그대의 일문은 드높은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이 숭고한 짐을 두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이리하여 그 높이 들린 깃발 아래 조국은 다시 한 번 영광에 빛나리니, 그대의 가호 밑에 이 페트라르카의 시구(詩句)가 현실로 나타나 주기를 천지신명께 빌어 마지않는다.

미덕은 광포를 무찌르려는 무기를 들었노라.

싸우면 곧 이기리라 이탈리아의 믿심에

아직도 그 옛날의 용맹이 사라지지 않았거늘.<sup>10</sup>

10 페트라르카의 유명한 칸초네의 일절. 마키아벨리는 페트라르카의 시를 애송했다고 한다. 아마 내용면에서 가장 공명할 수 있었던 이 시로서 논문의 대미(大尾)를 장식한 것 같다.

**지은이 소개 | 마키아벨리(1469~1527)**

르네상스 말기의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역사가. 내우외환으로 들끓던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피렌체 최고 통치기관인 시뇨리아(Signoria)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외교사절 역할을 하며 국가 간 무자비한 비윤리적 투쟁과 군주를 목격했고, 혼란스러운 조국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고민했다. 동시대의 천재들인 라파엘로(1483~1520),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미켈란젤로(1475~1564)와 함께 인류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금자탑을 세운 역사적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다.

**옮긴이 소개 | 임명방(1930~)**

일본 상지대 졸업 후 1960년 이탈리아 바티칸의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학과, 인하대 역사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강단에 섰다. 역서로 단테 『신곡』, 크리스토퍼 도슨 『중세유럽의 형성』, 토마소 캄파넬라 『태양의 나라』 등이 있다.

## 군주론

©사단법인 올재

---

발행 | 2013년 5월 9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주준형 박경림

표지제작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ISBN | 978-89-97876-03-7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